

文學博士學位論文

嶺制詩唱・時調唱의 唱劇化 活用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김 영 리

2018年 12月

嶺制詩唱・時調唱의 唱劇化 活用 研究

指導教授 梁 熙 提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김 영 리

文學博士學位論文

嶺制詩唱・時調唱의 唱劇化 活用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김 영 리

2018年 12月

김영리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12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4
II. 영제시창·시조창의 현황	6
1. 시창·시조창의 현황과 특성	6
(1) 시창·시조창의 전승 현황	6
(2) 영제시창·시조창의 악보와 특성	25
2. 영제시창·시조창의 전승과 활동	43
(1) 고조영제시조창 보유자 ‘아당 채숙자’	43
(2) 영제시창·시조창 전승 활동	50
III. 창극의 형성과 주요 창극	59
1. 창극의 형성과 전개	59
2. 창극의 주요 소재	65
(1) 춘향전	65
(2) 심청전	68
(3) 별주부전	71
(4) 배비장전	76
IV. 영제시창·시조창의 창극화 활용	83
1. 김교각 창극	83
(1) 김교각의 일화	83
(2) 창극의 시창과 시조창	88
(3) 극본	98
(4) 김교각 창극공연의 실제	126
2. 최치원 창극	142
(1) 최치원의 일화	142
(2) 창극의 시창과 시조창	148

(3) 극본	164
(4) 최치원 창극공연의 실제	181
3. 이언적 창극	196
(1) 이언적의 일화	196
(2) 창극의 시창과 시조창	204
(3) 극본	219
(4) 이언적 창극공연의 실제	254
V. 결 론	271
참고문헌	275

표 차례

<표 1> 전승지별로 전승되는 시창의 분류	7
<표 2> 1970년대 각지 창제별 시조 원형보유자 현황	12
<표 3> 각지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전승계보	13
<표 4> 각지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창 곡명	14
<표 5> 전국 시조창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2018)	23
<표 6> 채숙자의 십이난간 8구의 시작음과 종지음	29
<표 7> 반주에 따른 각 제(制) 장단	35
<표 8> 영남 곡조의 시창 모음 제1집 시창과 최치원 유적지	51
<표 9> 시조창명과 유적지 배경	53
<표 10> 인터넷 강의 제목 I	54
<표 11> 인터넷 강의 제목 II	55
<표 12> 인터넷 강의 제목 III	56
<표 13> 영제시창·시조창 악보집의 평시조 곡명	57
<표 14> 영제시창·시조창 악보집의 반사설시조, 사설시조, 절음시조의 곡명	58
<표 15> 영제시창·시조창 악보집 중 영제시창	58
<표 16> 김교각 창극공연의 내용	127
<표 17> 최치원 창극공연의 내용	183
<표 18> 이언적 창극공연의 내용	254

그림 목차

<그림 1> 영제시조 원형 - 평시조; 버들은 실이 되고, 채숙자 창	16
<그림 2> 경제시조 원형 - 우조시조; 월정명. 흥원기 창	17
<그림 3> 경제시조 원형 -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김월하 창	18
<그림 4> 경제시조 원형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이양교 창	19
<그림 5> 내포제시조 원형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소동규 창	20
<그림 6> 완제시조 원형 - 평시조; 백년을 가사 인인수. 김용철 창	21
<그림 7> 향제 - 온지름시조. 유종구 창	22
<그림 8> 채숙자의 십이난간 정간보	28
<그림 9> 영제(상)와 석암제(하) 평시조의 가성(속청)과 꾸밈음(▽) 부분	36
<그림 10> 이기룡의 점선보 『시조제요』의 가성(속청) 부분	37
<그림 11> 영제시조 평시조 중 안민영의 ‘매화사’ 초장	38
<그림 12> 영제시조 평시조 중 안민영의 ‘매화사’ 중장	39
<그림 13> 영제시조 평시조 중 안민영의 ‘매화사’ 종장	41
<그림 14> 채숙자와 『동경속지』	43
<그림 15> “조선명창, 음률대회, 대가로만 망라” (중외일보, 1928)	45
<그림 16> 『동경속지』 명기조의 채숙자	46
<그림 17>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 제1집-시조』 집 채숙자 창, 김기수 채보	47
<그림 18> 『국악전집 권10』과 김기수 편저 『정가집』의 채숙자 창	48
<그림 19> 영제시조의 전승	49
<그림 20> 영제시창 제1집 ‘이원 김영리 영제시창’ CD·DVD	52
<그림 21> 영제시조창 모음 제1집 ‘김영리의 영제시조창’	53
<그림 22> 아당 채숙자의 영제시조시창보(김영리, 1996)	56
<그림 23> 아당 채숙자 영제시조창시창악보(김영리, 2013)	57
<그림 24> 황성신문 1901년 12월 27일자 기사	59
<그림 25> 황성신문 1902년 5월 6일	60
<그림 26> 황성신문 1900년 6월 23일 기사	61
<그림 27> 황성신문 1903년 2월 17일 기사	62

<그림 28> 거타지 설화(삼국유사 권2)와 연권녀 설화(삼국유사 권5)	68
<그림 29> 삼국사기 〈구토지설〉	72
<그림 30> 중국 구화산 김지장왕보살 현지 탐방 1	86
<그림 31> 중국 구화산 김지장왕보살 현지 탐방 2	87
<그림 32> 영제시창 중 ‘월야첨향로(月夜瞻鄉路)’	90
<그림 33> 영제시창 중 ‘수혜미(酬惠米)’	92
<그림 34> 영제시창 중 ‘송동자하산(送童子下山)’	95
<그림 35>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황립도(黃粒稻)’	97
<그림 36> 2017년 11월 9일, 김교각 국악 창극	128
<그림 37> 1막 1장/중국 구화산 화성사 찾은 경주 관광객	129
<그림 38> 1막 2장/왕자(김교각)의 탄생	130
<그림 39> 1막 3장/왕권다툼에 밀려난 왕자	131
<그림 40> 1막 4장/낭랑과의 이별, 5장/수행의 길을 떠나는 김교각	132
<그림 41> 2막 1장/구도의 길에서 만난 혜초 스님, 2장/구화산에 도착한 김교각 스님	133
<그림 42> 2막 3장/수행에만 전념한 김교각 스님	134
<그림 43> 2막 4장/오용지와 만남, 5장/민양화와 도명과의 만남	135
<그림 44> 3막 1장/안녹산의 난	136
<그림 45> 3막 2장/노모와의 만남	137
<그림 46> 3막 3장/화성사에 온 낭랑, 4장/소사미하산(小沙彌下山); 동자를 보내며	138
<그림 47> 3막 5장/육신과의 이별	139
<그림 48> 3막 6장/등신불; 김지장왕보살	140
<그림 49> 포토타임/관객과의 만남	141
<그림 50> 영제시창 ‘쌍녀분(雙女墳) 석문에 쓴 시- 최치원’	150
<그림 51> 영제시창 ‘ 쌍녀분(雙女墳) - 팔낭자’	152
<그림 52> 영제시창 ‘쌍녀분(雙女墳) - 구낭자’	154
<그림 53> 동문선 권지19의 추야우중	155
<그림 54> 영제시창 ‘추야우중(秋夜雨中)’	156
<그림 55> 고전원문 『고운집(孤雲集)』 권1	157
<그림 56> 영제시창 ‘범해(泛海)’	159

<그림 57> 고전원문 『고운집(孤雲集)』 권1	160
<그림 58> 영제시창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161
<그림 59> 영제시조창 평시조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	163
<그림 60> 2015년 12월 10일, 최치원 국악 창극	184
<그림 61> 2016년 4월 23일, 최치원 국악 창극 앙코르	185
<그림 62> 1막 1장/유학길에 오른 최치원	186
<그림 63> 괴짜도인과의 만남	187
<그림 64> 1막 2장/쌍너분 이야기, 1막 3장/팔·구 남자의 등장, 1막 4장/화답시 를 주고받는 최치원과 팔·구 남자	188
<그림 65> 2막 1장/황소의 난을 제압한 최치원(토황소격문)	189
<그림 66> 2막 2장/당황제께 자금어대 하사받는 최치원, 2막 3장/고국에 대한 그리움	190
<그림 67> 2막 4장/최치원의 금의환향	191
<그림 68> 3막 1장/시독을 겸한 한림학사 임명과 왕의 죽음	192
<그림 69> 3막 2장/진성여왕께 받치는 시무책십여조	193
<그림 70> 3막 3장/정계를 떠나 가야산으로 간 최치원	194
<그림 71> 포토타임/관객과의 만남	195
<그림 72> 영제시창 ‘영남루차점필재김선생운(嶺南樓次佔畢齋金先生韻) ...’	205
<그림 73> 영제시창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중 관심(觀心)’	207
<그림 74> 영제시창 ‘가형 부 강제적소시추지 달천 읍정’	209
<그림 75> 『회재집』 권4 <서천록(西遷錄)>	210
<그림 76> 영제시창 ‘별사제자용환향 신해증추’	212
<그림 77> 영제시창 ‘서색환향시읍차가형증별운’	214
<그림 78> 영제시창 ‘무위’	216
<그림 79> 영제시조창 평시조 ‘청산곡’	218
<그림 80> 2016년 11월 26일, 회재 이언적 국악 창극	255
<그림 81> 1500년 2월, 부친상 당한 어린 복고	256
<그림 82> 1막 1장/낙향한 회재	257
<그림 83> 1막 2장/회재의 복직	258
<그림 84> 1막 3장/윤원형의 계략, 4장/양재역 벽서사건	259
<그림 85> 1막 5장/벽서사건의 고문	260

<그림 86> 2막 1장/유배 떠나는 불효자	261
<그림 87> 2막 2장/유배지에서의 인연, 3장/농재의 기도	262
<그림 88> 2막 4장/어머니의 죽음	263
<그림 89> 2막 5장/다시 만난 형제	264
<그림 90> 2막 6장/형제의 작별, 7장/형제의 죽음	265
<그림 91> 3막 1장/회재의 아픔	266
<그림 92> 3막 2장/마지막 효심, 3장/퇴계 이황의 안타까움	267
<그림 93> 3막 4장/아들의 회향	268
<그림 94> 회재 이언적 국악창극을 마치며	269
<그림 95> 포토타임/관객과의 만남	270

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동양의 한자문화권에서 서술하는 문장은 전통적으로 운문(韻文)이 있고 산문(散文)이 있다. 운이 있으면 시형이고 산문은 운율이거나 음절 등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문장이다. 산문 고전이나 이를 언해(諺解)한 문장의 낭독은 일반적으로 송서(誦書)라고 한다. 운문에서 고체시(古體詩)에 율려를 얹어 부르는 것을 시창(詩唱)이라 하고, 율문체로 읊조리는 것을 율창(律唱)이라 하며, 시조시에 음률을 얹어 부르면 시조창과 가곡이라 한다. 시창과 시조창은 지역에 따라 서울·경기지방은 경제(京制)라 하고 기타 지방을 향제(鄕制)라 한다. 향제(鄕制)중 영남은 영제(嶺制), 충청도는 내포제(內浦制), 전라도는 완제(完制)가 있으며, 현재 전국에 널리 애창되는 석암제(石菴制)가 있다.

근대기까지 시창·시조창은 전통적인 음악이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문화의 한 장르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전통음악의 명맥이 단절될 위기에 기방(妓房)문화는 전통음악이 지켜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방문화로 전승된 시창·시조창 중 영제시조창은 경주의 채숙자를 통해서 전승되었다. 그녀는 70년대 말에 고조영제시조창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그 전통이 전승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지켜온 전통 시창은 다른 어떤 사람 보다 많아 절대다수의 우위를 차지한다. 한편 영제시조창은 근대기까지 지방의 향제 중 가장 높은 기량으로 인정되었고 현대에 새로이 창작된 석암제의 근본이 되기도 하였다.

영제시조창과 관련한 연구는 4편이 보고된바 있으며, 악보집은 4종이 있다. 먼저 김향교의 연구는 영제시조의 계보를 경남 의령의 손덕겸 - 김영도 - 이기룡 - 박선애 - 김향교 - 이종록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¹⁾ 그러나 김영리(2012)

는 영제시조의 전승자로 채숙자가 유일함을 밝혔다.²⁾ 한편 민수민의 연구에서는 경기시창 1곡과 영남시창 3곡만으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³⁾ 반면 김영리의 연구에서는 영제시조의 보유자인 채숙자는 영제시조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영제시창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⁴⁾ 악보집으로는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 악보』⁵⁾와 『시조제요(時調提要)』⁶⁾ 및 『영제시조보』⁷⁾가 있다.

현재 영제시창·시조창은 전술한 바와 같이 면면히 이어온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정통성에 대한 오류와 전승과 관련한 자료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제시창·시조창과 관련한 보존활동은 일부 유림들의 활동만으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영제시창·시조창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자는 영제시창·시조창의 보급과 전승을 위하여 19세기에 대중과 호응하기 쉬웠던 음악문화인 창극에 주목하였다. 창극은 고종 41년(1902년) 칭경예식(稱慶禮式)을 위해 새로운 형식의 음악공연으로 등장하였다. 판소리가 1인 독창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창극은 전문소리꾼들과 가기, 전통연희단들로 구성된 합동공연이다.

창극의 공연을 위해 협률사라는 전문공연장이 최초로 설립되고 원각사로 이어진다. 전문공연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문화가 창출된 것이며, 서양식 공연이 합쳐진 새로운 음악무대의 도전장이었다. 이인직의 신소설인 ‘은세계’가 최초로 창극화 되었고 당대 명창인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1) 김향교, 『영제시조창에 관한 연구: 평시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 김영리, 『영제시조의 맥과 계보를 찾아서』, 대구, 유한사, 2012.

3) 김영리, 『영제시창·시조창의 전승에 관한 연구: 채숙자의 정통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주대학교대학원, 2014.

4) 각주 3)과 동일, pp. 1-108.

5) 김영리,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악보』, 국악춘추사, 2011과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악보』, 교재용, 1996.

6) 이기륜·김영도, 『시조제요』, 금성사, 1992.

7) 김향교, 『영제시조보』, 수서원, 2009.

등에 의해 창극이 실연되었다. 이 공연은 1930년대까지 전국의 연희집단들에 의해 각각의 지방에서 인기 대중극으로 공연되었다. 이후 창극은 1962년에 국립극단으로 이어졌고, 1973년에 국립창극단으로 개칭되었다. 국립극단의 창단기념공연은 『창극 춘향전』이었고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가루지기타령』 등이 주로 공연되었다. 현재는 독립인물 등을 소재로 창극이 실연되고 있다.

19세기에는 판소리가 첫 창극이 이루어진 반면, 20세기에 와서는 시창·시조창을 중심으로 창극이 이루어졌다.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창과 시조창 가운데에서도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영제시창과 영제시조창을 이용하여 국내 첫 창극을 시도하였다. 이를 연구한 연구자 또한 국내 최초로 시도하면서 영제시창·시조창을 모태로 한 창극개발과 전통을 보존하고 대중 보급을 목적으로 창극화하였다.

영제시창·시조창 창극 첫 작품은 2015년 12월 10일 『최치원 선생의 혼담은 김영리의 소리』로 기립박수를 받으며 대성황리에 이루어져 4개월만인 2016년 4월 23일 양코르공연이 이어졌다. 두 번째 작품은 2016년 11월 26일 『회재 이언적』, 세 번째 작품은 2017년 11월 『등신불이 된 신라왕자 김교각』으로 이어져 시창·시조창 창극이 또 하나의 예술 장르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제시창·시조창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시창과 시조창의 전승 현황과 악보를 이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영제시창·시조창의 특성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영제시창·시조창의 정통성에 대하여 아당 채숙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그녀의 창법을 악보로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창극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창극 형성과 소재를 연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영제시창·시조창을 중심으로 창극화를 연구하였다. 영제시창·시조창 중심의 창극은 김교각, 최치원, 이언적의 일대기를 소재로 삼았다. 창극에 필요한 시창·시조창은 영제의 율조로 실제 공연에 활용하였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영제시창·시조창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⁸⁾를 통해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시조창에 대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현황과 전수자를 정리하였다. 지역적으로 분류하는 시조창은 경제, 영제, 내포제, 완제의 4가지가 있으며, 최근에 석암제가 포함되었다. 시조창은 무형문화재로서 최초로 1990년에 영제가 지정되었고 다음으로 1992년에 내포제, 1995년에 완제, 2016년에 경제, 최근에 석암제가 등록되었다. 현재 5개의 시조창과 관련하여 총 10명의 보유자가 있고 전수조교는 2명이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향제의 시조창에서는 가성(이하 속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암제의 정경태는 영제시조의 평시조에 기본하여 석암제를 만들었고 석암제의 평시조에는 가성을 사용한다. 또한 이기룡의 『시조제요』와 채보된 채숙자의 악보에서도 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속칭과 관련하여 석암제의 평시조와 두 명의 영제시조창 보유자 악보를 통하여 속칭이 사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속칭의 사용과 관련한 악보집은 이기룡의 『시조제요』와 김영리가 채보한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 악보』이다.

영제시조창의 전승과 관련한 계보는 현재 2개이며, 이기룡에 의한 전승 계보와 채숙자의 전승 계보이다. 전승계보와 관련한 정통성은 영제시조창 보유자 채숙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덕검을 위시한 이기룡의 전승 계보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채숙자의 전승 계보가 지니고 있는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자료를 제시하면서 계보를 연구하였다. 또한 채숙자 생전의 기록영상을 통하여 채숙자류 영제시창·시조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채숙자에 의해 본 연구자에게 전승된 영제시조창은 평시조 34곡, 반사설시

8) 문화재청 홈페이지, 시·도지정무형문화재 현황, 2018.

조 5곡, 사설시조 10곡, 지름시조 5곡이며, 시창은 32곡으로 총 86곡이다. 과거 본 연구자에 의해 보고된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 악보』에서는 시창을 6곡만 채보하여 실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영제시조창 5곡과 영제시창 15곡을 연구에 제시하였다. 영제시조창은 평시조 5곡이고 영제시창은 7언 율시인 김교각의 수혜미(酬惠米)와 송동자하산(送童子下山), 5언 율시인 최치원의 범해(泛海), 7언 절구인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이언적의 임거십오영중 관심(觀心)과 무위(無爲), 5언 절구인 최치원의 추야우중(秋夜雨中)이다.

영제시창·시조창의 활용을 위해 시창 음반과 시조창 음반을 각각 제작하고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 연구하였다. 시조창 음반은 2012년에 이조년, 이색, 길재, 정몽주, 정몽주 자당(慈堂) 등 총 10곡을 수록하여 CD와 DVD로 제작하였다. 시창은 2014년에 최치원의 한시 10곡을 시창으로 담아 CD와 DVD로 제작하였다. 음반의 제작과정에는 인물과 관련된 유적지를 그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인터넷 강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총 58강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였고 이 연구에 그 제목만을 제시하였다.

영제시창·시조창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김교각, 최치원, 이언적을 대상으로 영제시창·시조창 국악 창극을 연구하였다. 김교각은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중국 4대 불교성지인 구화산에서 김지장왕보살로 받들고 있는 인물이다.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장군 칭호를 받고 유·불·선을 통합한 인물이다. 이언적은 유교적 효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아들 이전인의 일화로 구성하였다. 김교각의 국악 창극에는 한시 낭송 4수와 시창 3곡, 시조창 1곡이 연구하였고 최치원의 국악 창극에는 한시 낭송 8수와 시창 6곡, 시조창 1수와 시조창 1곡과 이언적은 한시 낭송 4수와 시창 6곡, 시조창 1수와 시조창 1곡을 영제시창·시조창으로 연구하였다.

II. 영제시창 · 시조창의 현황

1. 시창 · 시조창의 현황과 특성

(1) 시창 · 시조창의 전승 현황

1) 시창

한시에 긴 율조(律調)를 얹어 부르는 시창은 영제시창이 나오기 전까진 3곡만이 근·현대 명창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었다. 서도의 김정연과 오복녀는 칠언율시인 신광수의 관산용마(關山戎馬) 1곡을 전승하였고, 경제의 김월하는 칠언율시인 심영경의 십이난간(十二欄干), 작자 미상인 십재경영(十載經營) 그리고 경제시창으로 부른 관산용마 3곡을 전승하였다.

영제시창으로 채숙자는 칠언율시인 십이난간(十二欄干), 신라고도(新羅古都), 영남루(嶺南樓), 석봉(石峯), 축석루(矗石樓), 황학루(黃鶴樓), 십재경영(十載經營), 무제(無題) 8곡을 비롯하여 칠언절구(七言絕句)인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영련(詠蓮), 도산월야영매(陶山月夜詠梅) 3수,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7수, 무위(無爲), 대면(大面), 산예(狻猊), 신설(新雪), 동천년노항장곡(桐千年老恒藏曲) 17곡이다. 오언율시(五言律詩)는 범해(泛海), 고의(古意), 종국(種菊) 3곡이며, 오언절구(五言絕句)는 추야우중(秋夜雨中), 제황강정사(題黃江亭舍) 2곡이다. 사언절구(四言絕句)로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황조가(黃鳥歌) 2곡 등 총 32곡을 전승하였다. 전승되는 시창을 전승지 별로 분류하여 표시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전승지별로 전승되는 시창의 분류

	창자	지역	형태		제목	첫 구절	작자	비고
1	김월하	경제	철언	율시	십이난간	십이난간벽옥대	심영경	
					십재경영	십재경영옥수연	미상	
					관산용마	추강적막어룡내	신광수	석북집
2	김정연	서도	철언	율시	관산용마	추강적막어룡내	신광수	석북집
3	오복녀	서도	철언	율시	관산용마	추강적막어룡내	신광수	석북집
4	채숙자	영제	철언	율시	십이난간	십이난간벽옥대	심영경	
					신라고도	유유왕사문무빙	미상	
					영남루	서풍인의영남루	미상	
					석봉	참암절정옥마천	최치원	계원필경집
					축석루	진양성외수동류	신유한	
					황학루	석인이승황학거	최호	
					십재경영	십재경영옥수연	미상	
					무제	종일망혜신각행	김시습	
			철언	절구	제가야산 독서당	광분첩석후중만	최치원	계원필경집
					영련	화개정정취만당	조식	
					도산월야영 매	독의산창야색한 외 2수	이황	
					임거십오영	조춘 외 6수	이언적	
					무위	만물변천무정태	이언적	
					대면	황금면색시기인	최치원	계원필경집
					산예	원섭류사만리래	최치원	계원필경집
					신설	신설금조홀만지	이언적	
					동천년노향 장곡	동천년노향장곡	신흙<야 언>중	
			오언	율시	범해	패석부창해	최치원	계원필경집
					고의	호능화미녀	최치원	계원필경집
					종국	향근이세우	이율곡	
			오언	절구	추야우중	추풍유고음	최치원	계원필경집
					제황강정사	노초무명사	조식	
			사언	절구	공무도하가	공무도하	최표	고금주
					황조가	편편황조	유리왕	

한시를 긴 율조에 올려 일정한 장단 없이 부르는 시창의 역사는 한글시조시에 곡조를 얹어 부르는 시조창보다도 시대적으로 앞선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기록 자료가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명맥이 근·현대 시창의 명창들로 인해 겨우 전승되어 졌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지정 종목이다. 현재까지 시창을 전승한 이는 근·현대 시창의 명창인 영제의 채숙자, 서도의 김정연·오복녀, 경제의 김월하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생애와 활동, 입문 경륜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영제시창

채숙자(蔡淑子, 1908~1995)의 호는 아당(雅堂)이고 기명은 월단(月丹)이다. 현재의 경북 경주시 노동동이 출신지로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6호 영제시조 예능보유자로 1990년에 지정되었다. 어린 나이에 경주의 관기가 되어 익힌 기예로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성에서 벌어지는 유명한 공연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30대 초반에는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수학을 한 후 경주동도국악원으로 내려와 교사로서 활동하였다. 1960년대에는 대구 남산동에서 지내다가 1995년 졸하였다.

그녀는 1915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인 7세 때 가정 형편에 의해 교방에 맡겨지게 되었고, 어린 시절 그녀는 교방에서도 기예를 익히는데 있어서 남달랐다고 한다. 당대 영제의 대가인 이명서(李明瑞)는 경주에 기조합에서 시창과 시조를 가르쳤으며 채숙자의 스승이 된다. 이후 그녀는 조선정악전습소에서 당대 시조와 양금의 대가인 김영도에게 사사 받기도 한다. 이외에도 그녀는 당대의 명인들에게 각종 기예를 익혀서 많은 예인 그녀를 주목하였다.

그녀의 기예로는 시창, 시조창 및 민요에 능했으며, 현악기로는 가야금, 거문고, 양금에 뛰어났고 타악기로는 장구, 팽과리, 북 등도 인정을 받았으며 무용도 능숙했다. 그밖에도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즐기던 서화를 말년에 조용히 지내면서 더욱 원숙해졌다. 1979년도 국립국악원에서 발행한 『국악전집 1

0』에는 영남지방을 대표하여 채숙자의 영제 창인 <평시조; 버들은 실이 되고>, <사설시조; 땅은 천하 제일강산>이 각각 채보되어 있으며, 음원은 중요 기관에 비치·소장되어 있다.

② 서도시창

서도(西道)시창의 전승자로 김정연(金正淵)과 오복녀(吳福女)가 있으나 현재는 줄하였다. 먼저 김정연(1913~1987)은 평안남도 평양 출신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로 1971년에 지정되었다. 서도소리는 김칠성에게 배웠으며 1929년 이승찬(李承唱)에게서 가곡·가사를 사사, 1934년 이장산(李長山)에게서 전통무용(傳統舞踊)과 서도민요를 사사했다.

광복 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959년에 서도소리 음반을 취입하였고, 1971년 서도소리전수소를 개소하였다. 이후 서도가무발표회를 1974년까지 매년 개최하였다. 1972년에 낸 음반 <서도소리대전집> 53곡은 가장 방대한 자료이다. 1979년 <서도소리대전집>을 간행하여 서도소리의 실기 및 이론적 체계화에 큰 공을 남겼다. 1960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고 1966년 전국민속예술제 공로상, 1969년 전국백일장 시조부 대통령상, 1973년과 1975년에 전국민속예술제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에 <우리춤의 첫 걸음>, <한국 무용곡집>, <시조집 빙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오복녀(1913~2001)는 평안남도 평양시 상수동 출신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보유자로 1971년에 지정되었다. 서도소리<관산용마(關山戎馬)>와 <수심가> 분야 예능보유자로 서도소리의 원형보존과 전파에 주력한 국악인이다. 1929년 평양 서문여자고등학교 재학 중 정학기에게 가곡을 사사, 이듬해 서도명창 장금화에게서 <관산용마>, <수심가>, <공명가> 등의 서도소리를 배웠다.

다동 조선 권번에서 정학기(鄭學基)에게 가곡을 사사, 정남희(鄭南希, 납북)에게 가야금을 사사, 김상순에게 양금풍류를 사사, 주수봉에게 12잡가를 사사, 하규일에게 궁중무용과 가사를 배웠다. 1·4후퇴 이후 대구에서 16년간

생활했다. 1967년 서울로 올라와 김정연(金正淵)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 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관산용마와 〈수심가〉 분야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이후 〈서도소리대전집〉, 〈전통서도소리집〉, 〈뿌리 깊은 나무 팔도소리(서도편)〉, 〈서도소리전집〉 등의 음반을 내면서 서도소리 보존에 주력했다.

③ 경제시창

경제시창의 전승자로는 김월하가 있으며, 본명은 김덕순(1918~1996)으로 경기도 고양군 출신이다. 김월하는 1937년 서울 묘동학원 야간부 고등부를 졸업하였다. 1950년 6·25전쟁 중 부산에서 이병성에게 시조를 배웠으며 1958년도부터 이주환에게 가곡을 배웠다.

임석윤, 정운산, 이창배에게도 각각 시조 및 시창(詩唱) 등을 배웠다. 1968년도부터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 육성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고, 1969년 국악협회 시조분과위원장을 거쳤고, 1970년에는 전국 시우단체 총연합회를 발족시켰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예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국립국악원 연주원을 역임하였으며 1991년에는 재단법인 월하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밖에 대학에서 후진들을 가르쳤고, 각종 공연 및 강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여창가곡과 시조의 진수를 알렸다.

음반으로는 1976년 〈김월하 시조집〉, 〈한국전통음악대전집〉, 1986년 〈한국의 전통가곡〉 등을 냈으며, 1984년 국악대상과 세종문화대상, 1988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2년 국민훈장 보관장, 1994년 서울시민상 및 1995년 KBS 국악대상 특별공로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2) 시조창의 현황

문학적으로 전하는 시조의 역사보다 한 맥락인 시조창에 관한 기록과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유달리 역사적 시련을 겪었던 옛 선조들이 근근이 이어 전해준 고귀한 문화유산이다. 그중 근근이 전승되어

온 시조창은 영남지방의 영제, 경기도 지방의 경제, 충청도 지방의 내포제, 전라도 지방의 완제이며, 현대 창작인 석암제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소중하고 귀중한 수많은 전통음악자료들이 소멸되었다. 시조창이 지역적으로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오랫동안 몸소 연마해 온 예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해방 후부터 일부 시조꾼들에 의해 시조음곡이 점점 변조되어 가자 시조의 원형이 연멸될 위기를 인식한 한국 정부에서는 시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197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민속악체계정립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제일 먼저 이루어진 시조를 비롯하여 판소리·농악·무악·민요·잡가·범패·가면극·인형극 등 아홉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의 전문가들에 의해 심도있는 예비조사와 1, 2차에 걸친 신빙성 있는 현지조사과정 등을 통해 발굴된 모든 기록과 자료들이 정립되어 전하는 자료가 바로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民俗樂體系定立資料集)』이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시조이며, 1976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사되어 1979년에 발행한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 제1집; 시조』이다.

그때 당시 발굴된 각 지역의 고조시조 원형보유자들은 마땅히 지정되어야 하나, 시조부문은 문화재제도가 없어 원형보유자로 인정만 되어 국립국악원 및 각 중요기관에 채록, 채보되어 영구히 소장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 관여된 자료들은 현재까지 국악교육자료인 『국악전집』, 『정가집』 등에 기술되어 각 제(制)의 시조원형으로 전해져 연구되고 있다.

1990년에 시조창이 문화재 지정 종목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전인 1970년대 고증된 각 지역의 시조원형기능보유자(時調原形技能保有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 시조창이 지정 종목으로 이루어지게 한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각 지역의 시조를 원형 그대로 전승하여온 인물들이다. 근대에 가장 빛난 사업이었다는 평을 받을 만큼 성공적으로 마쳤던 이 사업에 기술된 학술연구를 다음과 같다.

「시조정립사업조사보고서」	손용배(孫容培)
「현행시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장사훈(張師勛)
「시가적 고찰과 음악적 참고」	홍원기(洪元基)
「이차조사보고서」	손용배(孫容培)
「시조창의 특징과 고찰」	홍원기(洪元基)
「시조 (Ⅰ)」	김기수(金琪洙)
「시조 (Ⅱ)」	김기수(金琪洙)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현지조사 과정을 상세히 연구하여 위와 같이 학술로 발표되었다. 당시 이 연구조사 보고서들에 의하면 예비조사를 마치고 1차적으로 전국 각지 창제별 시조원형 조사대상자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남지방의 영제는 채숙자·유일지·김진숙, 경기도지방의 경제는 이범원·홍원기·김월하·이양교, 전라도 지방의 완제는 김용철·이순태·이훈규, 충청도지방의 내포제는 김희현·소동규·최홍래,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제인 향제는 박기옥·유종구이다. 2차적으로 각 지역의 창제별로 최종적으로 인정된 시조원형보유자들과 전승계보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였다.

<표 2> 1970년대 각지 창제별 시조 원형보유자 현황

명칭	지역	보유자	생년	출신지
경제시조	서울·경기도	홍원기	19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김월하	1918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이양교	1928	충남 서산군 부석면
영제시조	영남	채숙자	1908	경주 경주시 로동
내포제시조	충청도	소동규	191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완제시조	전라도	김용철	1896	전북 완주군 조촌면
향제(석암제)		유종구	1920	전북 정읍시

<표 3> 각지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전승계보

명칭	보유자	전승계보
경제시조	홍원기	이병성(李炳星)으로부터 가곡 일년간 사사, 이주환(李珠煥)으로부터 가곡 여창가곡 가사 및 시조 사년간 사사, 최상욱(崔相旭)으로부터 가사 및 시조창을 사년간 사사. ⁹⁾
	김월하	1951년 시조의 명인 김태영(金泰榮)에게서 경제 평시조, 이병성 명인에게서 평시조와 가사, 이주환에게서 여창 가곡과 가사를 사사, 이창배(李昌培)에게서 휘모리시조와 관산용마, 임석윤에게서 사설시조, 인영환(印榮煥)에게서 남·여창 지름시조, 무형문화재 홍원기(洪元基)에게서 우조시조·우조지름시조를 사사하였음. ¹⁰⁾
	이양교	원래 충남 서산 향리에서 이문교(李文敎)·유병익(柳炳益)·유병철(柳炳喆) 등으로부터 내포제를 전수, 상경후 김원영(金元英)·김동수(金東洙)·손정모(孫貞模)·남상혁(南相赫) 등으로부터 경제의 각 부문을 사사, 지름시조·사설시조의 명인 임기준(林基俊)에게서 사사받아 채보한 장사훈(張師勛)에게서 지도받아 현재 임기준의 제를 전승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있음. ¹¹⁾
영제시조	채숙자	영제 대가인 이명서(李明瑞)에게서 20세부터 「경주예기조합」에서 사사하였으며 27세부터 1년간은 역시 영제 대가인 김영도(金永道)에게서 사사하였음. ¹²⁾
내포제시조	소동규	내포제 대가인 윤종선(尹鍾善) 및 역시 내포제 시조 대선생인 김용래(金容來)·강진호(姜眞浩)에게서 사사하였음. ¹³⁾
완제시조	김용철	완제시조의 거성 임종환(林宗桓)으로부터 29세에 사사하여 40년간 당대에 완제 대가라는 명성이 자자하였다 함. ¹⁴⁾
향제시조	유종구	전승계보에 관한 기록자료가 없으며, 학력에 관련된 기록이 기재되어 있음.

각 제의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전승계보중 향제시조 유종구의 전승기록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향제시조는 현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현대 창작시조로써, 이를 창작한 석암(石菴) 정경태(鄭炯兌)의 호를 따서 일명 석암제(石菴制)로 불리어지고 있다. 즉, 유종구의 전승 계보는 석암 정경태라고 할 수 있다. 43년째 시조창을 하며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는 대구에 있을 당시 생전 유종구를 알고 있으며, 그의 스승은 석암 정경태 임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기에 확신할 수 있다. 각지 창제별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창곡은 다음과 같다.

<표 4> 각지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창 곡명

명칭	보유자	시조의 종류	창	비고
경제시조	홍원기	우조시조	월정명 월정명커늘	시조(Ⅱ) p.100
		우조지름시조	석인이승 황학거	시조(Ⅱ) p.102
		사설지름시조	서상에	시조(Ⅱ) p.104
	김월하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시조(Ⅰ) p.82
		사설지름시조	푸른산중하	시조(Ⅱ) p.110
		평지름시조	장검을	시조(Ⅱ) p.106
		여창지름시조	청조야	시조(Ⅱ) p.108
	이양교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Ⅰ) p.80
영제시조	채숙자	평시조	버들은 실이	시조(Ⅰ) p.88
		사설시조	땅은 천하 제일강산	시조(Ⅰ) p.90
내포제시조	소동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Ⅰ) p.84
		사설시조	부소산	시조(Ⅰ) p.86
완제시조	김용철	평시조	백년을 可使	시조(Ⅰ) p.94
		사설시조	산천은 험준하고	시조(Ⅰ) p.96
향제시조	유종구	반각시조	일년이 열두달	시조(Ⅱ) p.118
		온지름시조	기러기떼떼	시조(Ⅱ) p.120

9) 손용배, 『2차조사보고서』, 「시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p. 65.

10) 손용배, 『시조정립사업조사보고서』, 「시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p. 27.

11) 각주 23과 동일, p. 27.

12) 각주 23과 동일, p. 26.

13) 각주 23과 동일, p. 25.

14) 각주 23과 동일, p. 25.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에서는 각지 창제별 시조원형보유자들의 전승과정 현황과 기록뿐만 아니라, 근대 국악 채보의 일인자인 죽헌 김기수가 시조(Ⅰ), (Ⅱ)로 나누어 표의 창곡들을 오선보로 채보되어 전해진다. 이 자료는 『국악전집』이나 『정가집』 등에도 시조원형보유자들이 전승한 각지의 창제가 정간보로 채보되어 현재까지도 시조연구에 중요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에서 전하는 시조(Ⅰ), (Ⅱ)에 오선보로 채보된 각 지역에 전승되어온 창곡을 1곡씩만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영제시조 - 채숙자 (평시조; 머들은 실이 되고)

경제시조 - 홍원기 (우조시조; 월정명 월정명커늘)

김월하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이양교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내포제시조 - 소동규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완제시조 - 김용철 (평시조; 백년을 가사 인인수라도)

향제시조 - 유종구 (온지름시조; 기리기 떼떼)

① 영제시조 - 채숙자 창¹⁵⁾

평시조

채숙자 노래
박현영 편곡

영제

버들 - 이 - 은 - 실 - 이 - 되 - 고

피 - 겠 - 리

꽃 - 이 - 피 - 어

구 - 실 - 은 - 잘 - 맺 - 어

짜 - 아 - 내 - 노 - 나

나 - 의 - 시 - 상

구 - 구 - 시 - 다

하 - 유 - 반 - 코 - 분

금 - 파 - 세 - 바 - 허 - 는 - 고

<그림 1> 영제시조 원형 - 평시조; 버들은 실이 되고, 채숙자 창

15) 김기수, “시조 I”, 『민속악계정립자료집 제1집; 시조』,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p. 88.

② 경제시조 - 홍원기 창¹⁶⁾

우조시조

홍 원 기 노래
작 곡 원 역 음

1. ♩ = 30

원 정 명 - - - - -

원 - - - - - 정 - - - - - 명 - - - - - 커 - - - - - 누 -

새 - - - - - 물 - - - - - 저 - - - - -

주 감 애 - - - - - 나 - - - - -

너 - - - - -

2. 분 - - - - - 아 - - - - - 라 - - - - - 이 - - - - -

하 - - - - - 는 - - - - - 이 - - - - - 요 - - - - -

마 눈 - - - - - 가 운 - - - - - 어 - - - - - 이 - - - - -

명 - - - - - 칠 - - - - - 이 - - - - -

파 - - - - -

- 100 -

3. 선 - - - - - 동 - - - - - 아 - - - - -

긴 - - - - - 건 - - - - - 단 - - - - - 모 - - - - - 건 - - - - - 적 - - - - - 파 - - - - -

진 - - - - - 뒤 - - - - - 러 - - - - -

세 - - - - - 문 - - - - -

<그림 2> 경제시조 원형 - 우조시조; 월정명. 홍원기 창

16) 김기수, “시조Ⅱ”, 『민속악계정립자료집 제1집: 시조』,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p. 100.

③ 경제시조 - 김월하 창¹⁷⁾

평시조

양 사면 시조
김 월 하 노래
곡 원 위용

□ 경제

- 82 -

<그림 3> 경제시조 원형 -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김월하 창

17) 각주 28과 동일, p. 82.

④ 경제시조 - 이양교 창¹⁸⁾

평시조

남 무한 시조
이 양교 노래
죽 환 억울

- 80 -

<그림 4> 경제시조 원형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이양교 창

18) 각주 28과 동일, p. 80.

⑤ 내포제시조 - 소동규 창¹⁹⁾

평시조

남 구만 서조
이 양고 노래
죽 편 엮음

- 80 -

<그림 5> 내포제시조 원형 -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소동규 창

19) 각주 28과 동일, p. 84.

⑥ 완제시조 - 김용철 창²⁰⁾

평시조

남 주안 시조
소 불각 노래
죽 편 억음

- 84 -

<그림 6> 완제시조 원형 - 평시조; 백년을 가사 인인수. 김용철 창

20) 각주 28과 동일, p. 94.

⑦ 향제 시조 - 유종구 창²¹⁾

온지름시조

유종구 노래
작 편 역음

1. ♩ = 30

- 120 -

3.

<그림 7> 향제 - 온지름시조. 유종구 창

21) 각주 29와 동일, p. 120.

현재 전국에 전승되고 있는 시조창 무형문화재 전승 현황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2018년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통계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면 시조창과 관련하여 영제, 내포제, 완제, 경제, 석암제로 대별하여 등록되어 있다. 이중 경제와 석암제는 다소 늦은 시기인 2016년에 등록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전국 시조창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2018)

지역	지정 년도	지정 번호	명칭	보유자	제2대 보유자	제3대 보유자	전수 조교
영남	1990	6	영제시조	남창 이기룡(졸)	박선애		김향교
				여창 채숙자(졸)			
충북	1992	17	내포제시조 (아랫내포제)	소동규(졸)	김원실	김연소	
광주	1995	10	완제시조	이상술(?)			이미화
전북	1996	14	완제시조	채규남(?)	오종수 김영희		
				김종수(?)			
				임산본(?)			
				박인수(?)			
전남	1999	33	완제시조	손한술(졸)			
경남	2010	34	영제시조	이종록			
충북	2012	26	석암제시조	이상래			
충남	2016	17-2	내포제시조 (윗내포제)	박선웅			
서울	2016	47	경제시조	변진심			
서울	2016	47	석암제시조	이영준			

시조창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에서 최초로 지정종목으로 관리한 분야는 영제시조이다. 영제시조는 다른 지역의 시조보다 앞서서 1990년에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로 종목이 인정되었다.

영제시조 외 다른 지역인 내포제시조는 1992년에 충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완제시조는 광주광역시에서 1995년에 시도무형문화재 제10호 지정되었고, 1996년에 전북에서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에 전남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되었다. 2010년에 경남에서 영제시조가 종목지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충북에서 석암제시조창이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에는 충남 내포제시조(윗내포제)와 서울 경제시조 및 서울 석암제시조가 지정되었다.

최초 시조창으로 지정된 영남지방의 영제 시조 무형문화재는 1990년에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남창 이기륜(1901~1996)과 여창 채숙자(1908~1995)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96년에 남창 이기륜이 타계하자 1997년에 제2대 보유자로 박선애가 인정되어 현재 전승계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수조교로는 1999년에 김향교가 인정되었다. 여창 채숙자는 1995년에 타계하였으며, 그녀의 제자들은 모두 졸하였고 현재 김영리가 유일하다.

충청도 지방의 내포제시조는 1992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어 초대 예능보유자 소동규(1917~1995)에 이어 김원실이 제2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2008년에 김원실이 타계하자 현재 내포제 시조(아랫내포제) 무형문화재 제17-1호인 보유자로 김연소가 2010년 7월 제3대 보유자로 지정되어 전승하고 있다.

1995년 4월 20일에 지정된 광주광역시 완제시조 무형문화재 제10호 보유자 이상술이다. 그는 19세에 다시면의 박희성에게 평시조를, 21세 때 나주 문평 출신의 박남규로부터 사설시조를 배웠다. 28세 때에 광주국악원의 안치선에게 시조창과 단소를 사사, 34세때 유종구에게, 37세 때 석암 정경태에게 사사 받았다. 현재 문화재청 지정현황 조사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완제 시조 무형문화재 제10호 전수교육조교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 지정된 전북 완제시조 무형문화재 제14호 보유자는 임산본(林山本), 김종수(金鍾洙), 채규남(蔡圭楠), 박인수(朴仁洙)이다. 임산본은 전주 출신이며 정경태에게 사사 받았으며, 전수자는 이종국이다. 김종수는 정읍 출신

이며 정경태에게 사사, 이후 유종구에게 사사하였다. 채규남은 김석현, 최장현, 강신경, 유종구, 정경태에게 사사 받았다. 박인수는 정경태, 설명규 등에게 사사하였다. 현재 전라북도 완제시조 무형문화재 제14호 보유자는 2006년에 인정된 오종수와 2012년에 인정된 김영희이다.

1999년에 지정된 전남 무형문화재 제33호 보유자 손한술은 전남 신안군 출신이다. 한때 80여명의 제자들이 따랐지만, 현재 전남 무형문화재 제33호는 전승이 되지 않고 있다. 2010년에 지정된 경남 영제시조 무형문화재 제34호 보유자는 이종록이며, 대구시 보유자인 박선애에게 사사하였다. 2012년에 충북 석암제 시조창 무형문화재 제26호 보유자로 이상래가 지정되어 있다.

2016년에 지정된 충남 내포제시조(윗내포제) 무형문화재 제17-2호 보유자는 박선웅이다. 충남도 서산 등 내포지역의 내포제시조를 윗내포제, 아랫내포제로 나누어졌다. 윗내포제로 박선웅은 1962년 유병익, 유홍복으로부터 내포제시조를 사사하였다. 2016년에 서울시 경제시조 무형문화재 제47호 보유자로 변진심이 지정되어 있다. 2016년에 서울시 석암제시조 무형문화재 제47호 보유자로 이영준이 지정되었다.

(2) 영제시창 · 시조창의 악보와 특성

1) 시창의 악보와 특성

영제시창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지정 종목으로 시창은 일반인들 및 전문가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영제시조 보유자 채숙자는 영남 지방에서 전승되어온 시조창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영제시창 32곡을 전승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자는 채숙자의 영제시조창 · 시창 악보를 출판하면서 일부 악보를 제시하였다. 이후 영제와 관련한 음악인들이 시창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제시창을 재조명하면서 영제시창 · 시조창은 경제시창을 하던 영제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자가 과거 제시한 채숙자의 시창은 사언 · 오언 · 칠언 절구나 율시 그리

고 현토에 따라 음률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연구자가 출판한 악보집을 통하여 일부만 전했던 시창은 보존·보급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 중 한가지의 형식만을 제시하였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시창 3곡 가운데 영제시창과 동일시되는 곡명으로 ‘십이난간(경포대)’ 한 곡만을 선택하여 시의 가사와 번역, 박자 구조와 선율, 구성음 등 영제시창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경포대는 강릉 경포호수 북쪽에 위치한 누각이다. 누각에는 경포대(鏡浦臺)의 현판이 걸려 있다. 십이난간은 강릉 경포대의 빼어난 경치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 취해 읊은 칠언고시로써 순조·철종 때 심영경이 지은 시이다. 연구자는 스승인 채숙자로부터 채보한 정간보를 분석하였다. 채숙자가 부른 칠언율시인 ‘십이난간(경포대)’의 원문과 한학자 이수락²²⁾에 의해 번역된 시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십이난간(경포대)

심영경

십이란간벽옥대(十二欄干碧玉臺) 대영춘색경전개(大瀛春色鏡前開)
 녹파담담무심천(綠波澹澹無深淺) 백조쌍쌍자거래(白鳥雙雙自去來)
 만리귀선운외적(萬里歸仙雲外笛) 사시유자월중배(四時遊子月中盃)
 동비황학지오의(東飛黃鶴知吾意) 호상배회고불취(湖上徘徊故不催)

[해석] 십이난간

십이난간 벽옥대

크고 넓은 바다에 춘색이 경포대 앞에 펼쳐지도다.

물이 맑고 담담한 푸른 파도는 깊고 얕음이 없고

흰 갈매기는 짝을 지어 자유롭게 갔다가 오는 구나

만리 구름 밖에서 신선이 피리를 불며 돌아오는 것 같고,

사시(四時)로 노니는 사람 달빛 속에서 술잔을 기우린다.

동으로 나르는 황학은 나의 뜻을 알고서

22) 이수락(李壽洛; 1913~2003)은 채숙자의 문하에서 시창을 배운 제자이다. 한학자로서 대구 향교에서 오랜 동안 한학을 가르쳤던 그는 틈틈이 채숙자를 도와 한시를 번역하였다.

호반 위를 떠나려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도다.

위와 같이 십이난간(경포대)은 7언 8구인 율시로 지은 시이다. 원래 시의 원문은 2구에 경중개(鏡中開)이다. 하지만 채숙자의 시창에는 경전개(鏡前開)로 되어 있다. 56자 가운데 2구와 6구의 중(中)자가 중복되어 시를 짓는데 있어서 글자의 중복은 율격에 위배 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가 같은 ‘경중개; 거울 속’ 과 ‘월중배(月中盃); 달 속’ 은 위와 아래가 짝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이 시를 창으로 부르는 채숙자는 십이난간 2구에서 경중개를 경전개로 해석하였다. 이는 아마도 자중(字重)을 염려하여 ‘중(中)’ 자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 또한 경중개와 경전개가 서로 뜻이 통함을 알 수 있다.

嶺制詩唱， 십이난간(十二欄干)

十二欄干碧玉臺 (십이난간벽옥대) 大瀛春色鏡前開 (대영춘색경전개)

綠波瀾瀾無深淺 (녹파당당무심천) 白鳥雙雙自去來 (백조쌍쌍자거래)

萬里歸仙雲外笛 (만리귀선운외적) 四時遊子月中盃 (사시유자월중배)

東飛黃鶴知吾意 (동비황학지오의) 湖上徘徊故不催 (호상배회고불취)

8구		7구		6구		5구		4구		3구		2구		1구	
·漢演	호사	△△	동비	漢漢	사시	·仲林	만리	·漢漢	백조	△△	녹파	·△漢	대여	·仲仲	십이
-		-		-		林		-		-		-		-	
-		黃		-		南		-		黃		-		-	
△漢		仲	<	△漢		南漢		·林漢		仲	<	·林漢		-	
△漢		仲林	황하	△漢		仲		△漢		仲林	다	-		△漢	
漢		△仲	이	漢漢		仲仲	귀서	漢		仲		漢		黃	
-		-		漢		南		-		南		·林仲		·仲	나
-		南		漢		漢		△漢		漢		黃		仲	가
△漢		仲		漢		·林仲		△漢		仲		黃		仲	
-		黃		漢		黃		漢		黃		仲		黃	
南		仲		漢		仲		南		仲		-		仲	
林仲		△		南		△		·林仲		△		口		-	
△	○	△		仲		△		△		△		△		△	△
林南	배회	南南	지오	·漢南	유자	南南	운외	漢南	쌍차	南南	무시	南南	춘색	·林仲	벽오
-		-		漢		-		-		-		南	이	仲	
漢		漢	으	漢		漢		漢		漢		漢		-	
林仲		△仲	이	·林仲		·林仲	저	·林仲		·林仲	치	·林仲		林仲	
仲		-		仲		-		仲		-		-		-	
-		-		-		-		-		-		-		-	
黃		仲	하야	黃		仲	인테	黃		仲	데	黃		仲	대
△		△		△		△		△黃	○	△		△		△	
黃仲	고			黃仲	원			仲	자			黃仲	겨		
-		-		-		-		-		-		-		-	
黃仲	부르			黃	주	(仲)	○	△黃	거			黃	○	△	
林	좌르			林	배르	林		林仲	래			仲	△	△	
△仲				仲		仲		-				林	개르	△	
-		-		-		-		-		-		-		-	
黃△	르			△		△		△	르			△	르	△	

〈그림 8〉 채숙자의 십이난간 정간보

채숙자가 부른 ‘십이난간(경포대)’은 8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8구의 박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홀수(奇數) 구(句)인 제1·3·5·7 구는 8박으로 되어 있고,
짝수(偶數) 구(句)인 제2·4·6·8 구는 12박으로 되어 있다.

채숙자가 부른 시창은 8박을 기본으로 하고, 짝수 구(句)인 제2·4·6·8 구에는 대체적으로 지르는 선율로 시작하여 세침 즉 속침으로 음이 올라가고, 음을 흔들고 꺾어 내리면서 쉬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넓은 음역대가 이루어져 대개 홀수 구 보다 3, 4박을 더 박자를 늘려서 부른다. 영제시창은 중려(仲呂)로 시작하여 황종(黃鐘)으로 끝나는데, 시가(時價)가 짧은 장식음을 제외하고 줄거리가 되는 음은 시작 음과 종지 음이다.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채숙자의 십이난간 8구의 시작음과 종지음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7구	8구
시작음	중(仲)	태(汰)	태(太)	황(潢)	중(仲)	황(潢)	태(太)	황(潢)
종지음	중(仲)	중(仲)	중(仲)	중(仲)	중(仲)	중(仲)	중(仲)	황(潢)

칠언율시 8구체로 구성된 ‘십이난간’의 각 구에 구성된 출현음 및 선율진행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구인 십이난간벽옥대(十二欄干碧玉臺)는 8박으로 이루어졌다. 출현음은 황·태·중·림(黃·太·仲·林)의 4음이다. 1구의 시작 음과 종지 음은 중(仲)이고 ‘십이~’는 중중(仲仲)으로 뻗어 내다가 태(太)로 종지, 황(黃)으로 다시 이어 ‘난간~’은 중(仲)으로 꾸밈음과 함께 나타내다가 황(黃)으로 하행하여 된발음소리를 내다가 다시 추성으로 중(仲)으로 뻗어 주면서 ‘벽옥대~’는 임중(林仲)을 요성으로 부른다. 1구의 선율진행은 전반적으로 중(仲)과 황

(黃)은 평으로 내는 선율로 이루어지고, 임(林)은 중지나 꾸밈음으로 이용하였다.

제2구인 대영춘색경전개(大瀛春色鏡前開)는 12박으로 이루어졌다. 출현음은 황·태·중·림·남·황·태·중(黃·太·仲·林·南·潢·汰·泖)의 8음이다. 2구의 시작 음은 태(汰), 중지 음은 중(仲)이며, ‘대여~ㅇ’는 태황(汰潢)을 질러내는 선율로 시작하다가 임(林)으로 하행, 바로 황(潢)으로 부르다 중(泖)에 잠시 가성을 사용하다 중(仲)으로 부른다. 이어서 중(仲)을 평으로 내다가 갑자기 황(黃)로 하행하고 된발음소리를 내다가 다시 중(仲)으로 중지하는 선율이 각 구마다 나타난다. 이것이 영제시창의 특징인 선율형이다.

‘춘색이~’ 남남(南南)으로 부르다 중(泖)을 거쳐 중(仲)으로 하행, 황(黃)로 중지, ‘이 경전개를~’ 황(黃)으로 다시 이어 중(仲)으로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하행, 다시 중(仲)으로 중지한다. 2구의 선율은 황·중·중(黃·仲·泖)을 평으로 떠는 선율이 자주 등장하였고 받쳐주는 음이나 거치는 음도 사용하였다. 질러내는 음인 태황(汰潢)을 살짝 받쳐주는 임(林)이 한 번 출현하였고, 1구에서와는 달리 2구에서는 가성을 나타내는 중(泖)이 두 번 출현한다. 가성 사용은 영제시창 특징의 하나이다.

제3구인 녹파담담무심천(綠波澹澹無深淺)은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태·중·림·남·황(黃·太·仲·林·南·潢)의 6음이다. 3구의 시작 음은 태(太), 중지 음은 중(仲)이다. ‘녹파~’는 태(太)로 시작하여 황(黃)으로 내려왔다가 중(仲)으로 추성, ‘담담~’은 중(仲)으로 꾸밈음과 함께 표현하다가 남(南)에서 황(潢)으로 살짝 올려 부르다가 중(仲)으로 하행하여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하행하고 된발음소리를 내다가 다시 추성으로 중(仲)으로 뺀어 준다. ‘무심천~’은 남(南)을 평으로 내다가 임중(林仲)을 요성, 중(仲)으로 중지한다.

제4구인 백조쌍쌍자거래(白鳥雙雙自去來)는 12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태·중·림·남·황·태·중(黃·太·仲·林·南·潢·汰·泖)의 8음이다. 4구의 시작 음은 황(潢), 중지 음은 중(仲)이다. ‘백조~’는 황(潢)으로 질러내다

가 임(林)으로 살짝 내려부르다 황(潢)으로 중지, 다시 황(潢)을 이어 중(泚)을 가성으로 부르다가 태(汰)로 내려 요성으로 부르다 다시 중(泚)으로 가성, 남(南)에서 중(仲)으로 중지, ‘쌍쌍~’은 남남(南南)으로 부르다 다시 황(潢)으로 살짝 감았다가 임중(林仲)으로, 황(黃)으로 된 발음소리를 내며 하행하여 요성으로 부르다 중지하지 ‘자거래~’는 황(黃)을 이어 중(仲)으로 부르다 중(仲)으로 중지한다.

제5구인 만리귀선운외적(萬里歸仙雲外笛)은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중·림·남·황(黃·仲·林·南·潢)의 5음이다. 5구의 시작 음과 중지 음은 중(仲)이다. ‘만리~’는 중(仲)→임(林)→남(南)→황(潢)으로 서서히 추성하다가 중(仲)으로 하행하여 중지, ‘귀선~’은 중(仲)으로 다시 이어 남(南)→황(潢)로 추성하다가 중(仲)으로 하행하여 평으로 내다가 잠시 황(黃)으로 하행하면서 된 발음소리로 낮추었다가 중(仲)으로 중지, ‘운외적~’은 남(南)으로 부르다 중(仲)으로 중지한다.

제6구인 사시유자월중배(四時遊子月中盃)은 12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중·림·남·황·태·중(黃·仲·林·南·潢·汰·泚)의 7음이다. 6구의 시작 음은 황(潢), 중지 음은 중(仲)이다. ‘사시~’는 황(潢)으로 질러내다가 태(汰)로 계속 질러낸다. 황(潢)으로 잠시 떨어 주다가 중(泚)을 가성으로 부르다가 점차 빠르게 황중(潢泚)을 오가며 3번 더 가성으로 재빨리 감아 부른다. 이는 영제시창 중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황중(潢泚)을 반복하며 4번 가성으로 부르다가 태(汰)로 잠시 낮추어 부른 후 다시 중(泚)으로 한 번 더 가성으로 부르고 남(南)에서 중(仲)으로 중지, ‘유자~’는 황남(潢南)으로 부르다가 중(仲)으로 하행하여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된 발음소리로 낮추어 하행하고 요성으로 부르다 중지, ‘월중배~’는 황(黃)에서 중(仲)으로 상행하여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떨어 부르다 중(仲)으로 중지한다.

제7구인 동비황학지오의(東飛黃鶴知吾意)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태·중·림·남·황(黃·太·仲·林·南·潢)의 5음이다. 7구의 시작 음은 태

(太), 중지 음은 중(仲)이다. ‘동비~’는 태(太)로 시작하여 평으로 내다가 황(黃)로 떨어구어 중(仲)으로 추성, ‘황학~’은 중림(仲林)로 부르다가 남(南)→황(潢)으로 추성하다가 중(仲)으로 떨어구어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하행하면서 된 발음소리로 잠시 낮추었다가 중(仲)으로 중지, ‘지오의~’는 남남(南南)을 평으로 내다가 황(潢)으로 추성, 중(仲)으로 중지한다.

제8구인 호상배회고불취(湖上徘徊故不催)는 12박으로 이루어졌다. 출현음은 황·중·림·남·황·태·중(黃·仲·林·南·潢·汰·泲)의 7음이다. 8구의 시작 음은 황(潢), 중지 음은 황(黃)이다. ‘호상~’은 황(潢)으로 질러내다가 태(汰)로 중지, 황(潢)→중(泲)으로 가성으로 부르다가 남(南)→중(仲)으로 하행하여 평으로 낸다. ‘배회~’는 임남(林南)으로 부르다가 황(潢)으로 추성, 중(仲)으로 하행하여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하행하면서 된 발음소리로 낮추어 평으로 부른다. ‘고불취~’는 중(仲)을 평으로 내다가 황(黃)으로 잠시 하행하여 다시 중(仲)으로 추성, 임중(林仲)을 평으로 내다가 마지막 중지음을 황(黃)으로 맺는다.

영제시창의 출현음은 황·태·중·림·남·황·태·중(黃·太·仲·林·南·潢·汰·泲)의 매우 다양한 음이 출현한다. 황(黃), 중(泲)의 넓은 음역대로 이루어졌다. 꾸밈음과 장식음이 다양하게 구사되고 시김새가 풍부하다. 선율진행은 전반적으로 황(黃)과 중(仲)은 평으로 내는 선율로 이며, 2·4·6·8구는 첫 음을 황(潢)으로 질러내는 점과 중(仲)을 평으로 내다가 갑자기 황(黃)으로 하행된 발음을 내고 다시 중(仲)으로 중지하는 선율이 각 구마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영제시창의 특징인 선율형이다. 특히, 황(潢)를 잠시 떨어주다가 중(泲)을 속청으로, 점차 빠르게 황·중(潢·泲)을 오가며 3번 더 속청으로 재빨리 감아 부르는 영제시창만의 특징이다.

2) 시조창의 악보와 특성

시조창과 관련한 최고의 문헌은 신광수²³⁾의 『석북집』 중 〈관서악부(關西

23) 신광수(申光洙; 1712 ~ 1775), 영조 때의 문신, 자는 성연(聖淵), 호는 석북(石北), 저서로 석

樂府)〉²⁴⁾이다. 관서악부 기록에는 이세춘(李世春)이 시조장단을 배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세춘은 18세기 인물로서 『해동가요(海東歌謠)』의 고금창가제씨조(古今唱歌諸氏條)에 허정, 장현, 탁주한 등 56명의 명창과 함께하는 인물이다. 이세춘이 활약하던 시기의 시조는 3장 형식의 평시조로써 시절가(時節歌) 또는 시절단가(時節短歌)라고 불렀다.

19세기에 시조의 향유층이 사대부에서 평민층으로 확대되면서 평시조에서 파생, 변주되어 사설시조, 엇시조 등이 나타났다. 당시 전국 각지의 시조인들 사이에 평시조는 영제시조를 진미로 꼽았으며, 널리 애창할 만큼 인정받았다. 시조계에서도 평시조라 하면 영제고 사설시조라 하면 완제로 질음시조은 경제로 들어야 시조창의 참 멋을 안다고 할 정도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알려진 현대의 시조창인 석암제는 정경태²⁵⁾가 전승시켰다. 석암제의 평시조는 각 지역의 시조창 중 영제 평시조를 차용하였으며, 『경북예악지(慶北禮樂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영남 시조인들은 석암제 시조를 완제시조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정경태는 그가(정경태) 짠 평시조가 완제시조가 아니고 반영제시조를 토대로 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⁶⁾

향제인 석암제는 현대 창작시조라 할 수 있으며,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영제 평시조를 토대로 석암제의 평시조를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제에서는 가성(이하 속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제에서 중장과 종장에 속청을 사용한다. 이는 석암제에서도 중장·종장에 속청을 사용하는 점이 동일하다. 영제시조에서 나타나는 속청의 사용이 석암제로 이어졌다고 볼

북집(石北集)이 있는데, 서도 시창(詩唱)인 관산용마(關山戎馬)는 그의 과시로서 ‘등악양루탄 관산용마(登岳陽樓歎關山戎馬)’임, 장사훈, 국악개요, 1961, p. 111.

24) 일반시조배장단 래자장안이세춘(一般時調排長短 來自長安李世春). 신광수, 『석북집』, 권지 십 중 “관서악부” 기 15, 국악대사전, 1984, p. 449.

25)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예능보유자, 가곡·가사 명인.

26) 영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경북예악지(慶北禮樂誌)』, 경상북도, 1989, p. 136.

수 있다. 반면, 완제, 내포제 등과 같은 지방제 시조들에서는 속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1970년대에 죽헌(竹軒) 김기수(金琪洙)²⁷⁾에 의해 오선보와 정간보로 채보된 채숙자의 평시조 중 중장·종장 및 사설시조 중장 부분(호주~사~)에 속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채숙자가 1990년 시도 영제시조 무형문화재 제6호 여창 보유자로 지정되면서, 당시 권영철(문화재위원장)과 김월하(가곡, 인간문화재), 김경배(문화재전문위원)와의 인터뷰²⁸⁾에서도 채숙자의 영제시조 창을 극찬하며 인정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영제 평시조와 이를 차용한 석암제 평시조를 음악적으로 살펴보고자,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를 각각 영제 평시조와 석암제 평시조와 비교하였다. 석암제 악보는 선율보로 되어 있으므로 비교를 위하여 영제의 청산리 벽계수야도 선율보로 제시하였다. 영제와 석암제의 박자구조와 선율, 구성음 등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시조의 박자는 5박, 8박으로 이루어지며 영제와 석암제 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동일하다. 하지만 장별 박자의 구성은 반주를 수반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각 제의 초장·중장 끝에 생기는 여음부분의 5박에 반주를 하느냐 아니면 바로 노래가 이어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종장은 반주에 상관없이 동일한 박자를 이용한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반주가 있을 경우 초장과 중장은 여음이 5박이 들어가고 무반주일 경우 5박이 없다. 여기에 따른 차이점은 한국의 국악학자인 장사훈²⁹⁾의 자료집³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7) 김기수(金琪洙, 1917.11.12~1986.10.21), 대금 연주가 및 작곡가·교육자, 서울 출생, 1936년 이왕직아악부원양성소를 졸업, 1941년 사중병주곡(四重並奏曲)인 <세우영(細雨影)>을 창작한 이후 많은 신작 국악곡을 작곡함, 민족대백과사전.

28) KBS방송, 「영제시조 그 남녘의 끝소리」, 권영철, 김월하, 김경배 인터뷰 내용 중, 1991.

29) 장사훈(張師勛, 1916~1991), 국악학자이자 이왕직아악부 출신으로 호는 운초(云初)임.

30) 장사훈, 「현행 시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시조; 민속악체계정립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표 7> 반주에 따른 각 제(制) 장단

장별	반주를 수반한 각 제	반주가 수반되지 않은 각 제
초장	5박 · 8박 · 8박 · 5박 · 8박	5박 · 8박 · 8박 · 8박
중장	5박 · 8박 · 8박 · 5박 · 8박	5박 · 8박 · 8박 · 8박
종장	5박 · 8박 · 5박 · 1박(8박)	5박 · 8박 · 5박 · 1박(8박)

분석에 앞서서 이 연구에 제시된 석암제 선율보는 초창기 악보이다. 석암제 초창기 악보의 음계는 ‘율(律)’ → ‘꺾’ 로, ‘여(呂)’ → ‘口’ 인 약자(略字)로 표기한다. 선율보는 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랫선은 1(황종, 黃鍾)을 나타내며 윗선은 4(중려, 仲呂)를 나타낸다. 제시된 악보에 표기된 ‘꺾’ 가 아랫선일 경우는 1, 황종으로, ‘꺾’ 가 윗선이 경우는 #4, 유빈으로, 속청일 경우는 i, 청황종을 나타내며, 제시된 악보에 표기된 ‘口’ 가 아랫선일 경우는 #1, 대려(大呂)로, 윗선일 경우는 4, (중려, 仲呂)로, 속청일 경우는 #i, 청대려(淸大呂)를 나타낸다.

영제와 석암제는 주로 # (유빈, 蕤賓), 4 (중려, 仲呂), 1 (황종, 黃鍾) 음인 4도를 중심으로 요성, 추성, 퇴성을 사용하고 중장과 종장에 공통적으로 속청을 사용하고 있다. 영제의 중장에서 5박 중 첫 번째 1박은 4# (중려 · 유빈) 으로, 4번째 박에서 #4 (유빈 · 중려) 로 5박까지 부른다. 석암제는 중장에서 5박 중 첫 번째 1박은 1→4 (황종→중려) 로 추성, 1박의 끝에 # (유빈) 으로 1부르면서 5박의 끝에서는 ▽인 #4# (유빈 · 중려 · 유빈) 로 부른다. 이 부분은 석암제 종장은 두 번째 5박인(수여 간~) 3번째 박 끝에 ▽인 #4# (유빈 · 중려 · 유빈) 을 사용된다. 제시된 그림에서 석암제 악보의 파란색 점선이 꾸밈음 부분이다.

한편 속청은 영제의 중장인 첫 번째 8박 중 4번째 박에서 4→i (중려→청황, 淸黃種) 로 속청으로 부르다가 5박에서 i→4 (청황→중려) 로 부른다. 영제와 석암제의 종장 5박 중 첫 번째 1박 끝에 4→i (중려→청황, 淸黃種) 로 속청으로 부르다가 3박에서 i→4 (청황→중려) 로 부른다. 제시된 그림에서 영제와 석암

제 악보의 빨간색 점선부분이 속청부분이다. 즉 영제와 석암제의 평시조는 같은 박과 음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 #4#(유빈·중려·유빈)의 꾸밈음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곡을 화려하게 엮었고 속청의 사용은 동일하다.

평시조 중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야

4. 平時調

청사리 벽계수야
수이강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 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우니)

명월이 만공산 하니
수여 간들 (어머하리).

황진이 작사
채숙자 창
김영리 채보

聲과 음의 強弱研究 ⑦

이 一 律 (黑字) 平時調 靑山裡 碧溪水 아 수이강을 자랑마라
一到 滄海하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明月이 滿空산하니 수여강이 어이리 黃英伊 詞

(어 이 리)

<그림 9> 영제(상)와 석암제(하) 평시조의 가성(속청)과 꾸밈음(▽) 부분

위와 같은 영제와 석암제 평시조의 속청은 영제시조 보유자였던 이기륜의 점선보인 『시조제요』에도 나타난다. 그의 평시조 중 ‘산 넘고 또 산 넘어’와 ‘백설이다 진토록’ 외 다수에서 속청이 나타나지만 2개의 악보만을 제시하였다. 이기륜의 악보에서 속청은 중장과 중장에 사용하거나 중장과 중장 중 어느 한 장에만 사용하는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The image shows a two-page musical score from 'Sijo Je-yo' by Lee Ki-rim. The score is written for a vocal line (속청) and includes lyrics in Korean. The notation is in a traditional Korean style, with notes on a staff and lyrics below. Red dashed circles highlight specific musical phrases in both staves. The lyrics are as follows:

Left page lyrics: 산 넘고 또 산 넘어 / 임 제진 곳 찾아 가세 / 님은 산이 깨이 현만 / 님을 산이 천가 만가 / 두이러 억이나 조 일제 / 라도 찾아 가리

Right page lyrics: 적월이 다 진 토록 / 풍소식을 물탄더니 / 귀흥독의 천문합이로 / 화를 생실 주동요 보다 / 동계야 잃은 술 / 결리라 새봄 맞이

<그림 10> 이기륜의 점선보 『시조제요』의 가성(속청) 부분

작사 : 안 민영

[• 初章 : 바람이 / 눈을 몰아 / 산창에 / 부딪치니]

창 : 채 숙자

채보 : 김 영리

Figure 1

[illegible]

〈그림 11〉 영제시조 평시조 중 안민영의 ‘매화사’ 초장

3장 6구체로 구성된 평시조 ‘바람이 눈을 몰아’의 각 장에 구성된 출현음 및 선율진행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장의 첫 번째 ‘바람이~’는 5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黃)·중(仲)·유(蕤)의 3음이다. 첫 박인 ‘바람~’은 유·중(蕤·仲)으로 꾸밈음과 함께 평으로 내다 3박에 유·중(蕤·仲)을 반복하며 요성(搖聲), 4박에 중(仲)·황(黃)으로 하행하여 5박까지 평으로 내는 선율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눈을 몰아~’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黃)·중(仲)·유(莚)의 3음이다. 1박인 ‘눈을~’를 황(黃)-중(仲)으로 추성하여 3박까지 평으로 낸다. 4박 ‘몰~’에 유·중(莚·仲)으로 요성(搖聲), 5박 끝부분에 살짝 유(莚)으로 요성, 6박 ‘아~’는 중(仲)으로 8박까지 평으로 낸다.

세 번째 ‘산창에~’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중(仲)·황(黃)·중(仲)·유(莚)의 4음이다. 1박인 ‘산창~’은 유·중(莚·仲)으로 꾸미다 중(仲)으로 5박까지 평으로 내다 5박 끝부분에 중(仲)－황(黃)으로 된발음소리를 내며 하행하여 6박에 황(黃)으로 7박까지 평으로 낸다. 8박에 중(仲)－황

네 번째 ‘부딿치니~’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黃)·중(仲)·유(蕤)의 3음이다. 1박에 황(黃)－중(仲)으로 추성하여 3박까지 요성, 4박인 ‘치~’에서 다시 중(仲)－황(黃)으로 된발음소리를 나타내며 하행하여 5박까지 평으로 낸다. 다시 5박 끝부분에 황(黃)을 이어 6박인 ‘니~’는 중(仲)으로 8박까지 평으로 내는 선율로 이루어진다.

[* 中章 : 찬 기운 / 새어 들어 / 잠든 매화 / 침로헌다]

	①		仲 - - 口	①		·莠仲 仲	세 이	①	·莠莠 莠	차 기	①
	○		仲 - - 口	○		·仲莠 莠 黃		○			○
			·仲莠 黃 △黃								
	○		仲 - - 口	○			△仲	○	·莠仲 仲	후	○
						△ △			- - - △	△	
	...		仲 - - 口	...		·莠仲 仲	며 화	○			
								○	·莠仲 - - - △	己	○
								○	仲 - - - △	이	○
								...			...

— 주장

- 39 -

중(仲)·유(蕤)의 3음이다. 첫 박인 ‘찬기~’ 는 황(黃)-유(蕤)으로 추성하여 3박까지 평으로 내다 4박에 살짝 유(蕤)에서 중(仲)으로 내려 5박까지 요성(搖聲)으로 부른다.

두 번째 ‘새어 들어~’ 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중(仲)·유(蕤)·청황(淸黃)의 3음이다. 1박인 ‘새어~’ 를 유중(蕤仲)으로 자연스럽게 내려 중(仲)으로 2박까지 부르다가 3박에 유중(蕤仲)을 반복하여 요성, 4박 ‘드~’ 에 중(仲)-청황(淸黃)으로 상행하여 가성(속청)으로 부르다가 5박에 청황(淸黃)-중(仲)으로 된발음소리를 내며 하행하여 6박에 유중(蕤仲)을 반복하여 7박까지 요성, 8박에 중(仲)으로 평을 내는 선율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잠든 매화~’ 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黃)·중(仲)·유(蕤)의 3음이다. 1박인 ‘잠~’ 은 중(仲)으로, 2박 ‘든~’ 은 중(仲)-황(黃)으로 된발음소리를 내며 하행하여 3박까지는 평으로 내고 4박,5박까지는 요성으로 부른다. 6박에는 황(黃)-중(仲)으로 추성하여 7박까지 평으로 내다가 8박에 유중(蕤仲)을 반복하여 요성으로 부른다.

네 번째 ‘침로헌다~’ 는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황(黃)·중(仲)·유(蕤)의 3음이다. 1박인 ‘침~’ 과 2박 ‘로~’ 는 중(仲)으로, 3박에는 중(仲)-황(黃)로 된발음소리를 내며 하행하였다가 다시 황(黃)에서 4박 중(仲)으로 추성하여 요성으로 8박까지 이루다가 8박 끝부분에 중(仲)-황(黃)으로 하행하여 맺는다.

중장의 박자구성은 5·8·8·8박이며, 선율진행은 황(黃)·중(仲)·유(蕤)·청황(淸黃)으로 이루어진다. 평으로 내는 선율을 이루다 가성 즉, 속청을 나타내면서 추성, 퇴성, 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 終章 : 아모리 / 어루려 한들 / 봄뜻이야]

·黃仲	봄	①
仲		○
}		
·黃仲		
仲	△	○
}		
仲	아	○
黃	아	●
△		

·黃仲	어루	①
仲	려	○
}		
·黃仲		
仲	허	○
黃		
}		○
黃	트	○
}		●
△		
仲	으	○
黃	르	

仲	아	①
仲 黃		○
黃		
仲	모	
黃	리	○
仲		
}		
△		

<그림 13> 영제시조 평시조 중 안민영의 ‘매화사’ 중장

－ 중장

중장의 첫 번째 ‘아모리~’ 는 5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중(仲)·청황(淸黃)의 2음이다. 1박인 ‘아~’ 는 중(仲)－청황(淸黃)으로 추성하여 2박까지 가성(속청)으로 부르다가 3박에서 다시 청황(淸黃)－중(仲)으로 퇴성하여 5박까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어루려 한들~’ 은 8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중(仲)·황(黃)·중(仲)·유(蕤)의 4음이다. 1박인 ‘어루려~’ 는 유중(蕤仲)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평으로 내는 선율로 2박까지 이루어지다가 3박에 유중(蕤仲)을 반복하여 요성, 4박 ‘허~’ 는 중(仲)－황(黃)으로 된발음소리를 내며 하행하였다가 다시 중(仲)으로 상행, 5박 끝부분에 다시 황(黃)으로 하행하여 7박까지 이루어진다. 8박에는 중(仲)－황(黃)으로 부른다.

세 번째 ‘봄뜻이야~’ 는 6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현음은 중(仲)·황(黃)·중(仲)·유(蕤)의 4음이다. 1박 황(黃)－중(仲)으로 추성하여 2박까지 부

르다 3박에 유중(蕤仲)을 반복하여 요성, 4박에 중(仲)으로 5박까지 평으로 내다가 6박에 중(仲)-황(黃)으로 맺는다.

중장의 박자구성은 5·8·8(6)박이며, 선율진행은 황(黃)·중(仲)·유(蕤)·청황(淸黃)으로 이루어진다. 중장의 첫 부분은 가성(속청)을 나타내면서 추성, 퇴성을 연이어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선율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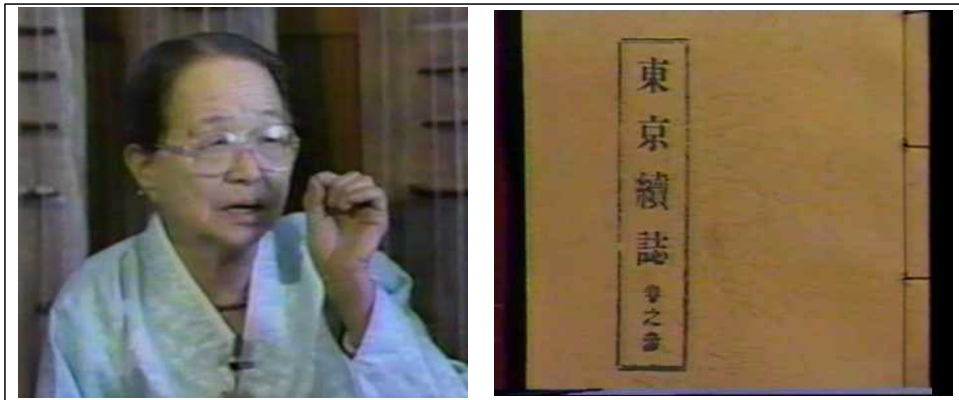
영제시조창의 선율진행은 전반적으로 두 가락선인 황(黃)·중(仲)에서 평으로 내는 선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율 마지막 종결음 부분은 중(仲)에서 황(黃)으로 맺는 부분이 영제시조창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제시창·시조창의 전승과 활동

(1) 고조영제시조창 보유자 ‘아당 채숙자’

영남지방에서 전승되어온 시창과 시조창에 관련한 문헌자료는 거의 전무하며, 다만 채숙자에 의해 유일하게 예능으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1년 KBS에서 방송된 ‘영제시조 그 남녘의 끝소리’에서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김경배가 “다른 지방의 시조창에 비해 창자(昌者) 및 문헌, 악보 등이 거의 없다시피한 영제시조를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³¹⁾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채숙자는 1963년에 대구에서 칩거하는데 그녀의 나이 55세였다. 당시 문화재위원장 권영철은 채숙자의 칭찬으로 “젊었을 때 경향 각지에서 영제시조로써 아주 유명했었는데 홀로 은둔하고 있어 행방을 몰랐다. 83세 임에도 아주 탁월한 성대와 요성, 음률의 진행과정이 완전한 영제를 가지고 있으며, 가성사용은 김월하도 인정하고 있듯이 아주 완벽하다”³²⁾고 극찬하였다.



<그림 14> 채숙자와 『동경속지』

31) 매일신문, “인간문화재지정 채숙자, 지금 생각해도 잘 했다 싶어”, 1990.12.1.

32) KBS방송, 「영제시조 그 남녘의 끝소리」, 1991.

채숙자는 경주 태생으로 어린 나이에 관기가 되어 경주예기조합을 거쳐 동도국악원의 교사를 역임하는 예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주로 가·무·악을 익혔고 20대에 조선 궁궐의 궁중행사에 참여할 만큼 유명세가 있었다. 세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경연대회에 두각을 나타내어 초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창이라는 수식어가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다. 한편 이미 출신지역에 그녀를 문헌기록으로 남기는 등 이미 재능을 인정하였다. 그녀의 제자로서 연구자는 영제시창·시조창의 전승계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통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채숙자는 본관이 평강이고 시조는 채경연(蔡敬延)이며, 이 문중에서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채재공(蔡濟恭)이 있다. 1908년 채숙자가 태어난 시절은 일제강점기의 간악한 수탈로 조선이 피폐하여 백성이 곤혹한 삶을 살던 시대이다. 민호(民戶)에서 남녀 아이를 막론하고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매매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가난한 집에서는 그나마 조선의 반가에 자식을 보낼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린 노동력을 제공해야하는 장소로 무작정 보내야 하는 곤혹한 삶의 시절이다.

여자아이들은 흔히 당시 권번이라 말하던 기생집으로 팔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만큼 빈번한 일로 후대에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기생들 중에서 현존하는 인물들이 현재 생존해서 당시의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아마도 일제의 수탈이 극악하였던 1920년경을 전후하여 조선 백성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빈곤한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족의 분산만이 해결책이라 판단하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부모자식간의 인연을 포기하는 방법이 비일비재하게 행하여졌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여자 아이들 중 기생이 되는 경우는 선발을 거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기생이 되면 일반 백성의 노동과는 다른 노동을 하고 의식주에서도 백성의 민호와 차별되어 기생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당대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채숙자의 경우에도 7세의 어린 시절에 빈곤한 가계로 인해 권번에 보내어져 생활하였다. 당시 권번에서는 허드렛일 외에 기생 교육으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일정 시간 가무악을 교육시켰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기생으로 관기(官妓)와 사기(私妓)가 있었다. 채숙자는 관기로서 가무악을 중시하는 기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무악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재목으로 성장도 하였다. 초년시절 그녀는 시조창의 명창으로 당대의 명창들과 같이 <조선명창음률대회>에 공연하였다. 또한 <전국조선권번명창대회>에서 당대의 기생들과 경합하여 3년 연속 장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그녀의 활동으로 인하여 일찍이 『동경속지』 「명기조」에 기록되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5> “조선명창, 음률대회, 대가로만 망라” (중외일보, 1928)

魏花與瘦竹의 共惜少年情이라

續

蔡淑子의 一名은 雅堂이요 本貫은 平康이니 生于 慶州市하다 才藝出類하여 歌舞琴

이 自少有名하고 以 慶州國學院敎師로 勉回舊譜하고 全國詩詞大會에 受一等賞하다

有贈詩曰 蔡淑子의 已 離韓하니 萬古梨園第一名이라 唱到 嶽々 奇絕處에 劍盤移玉의 詩念

滑이라 又曰 願爲 豪放笑銀河라 此 亦淑子의 長古詩體이라 此 白東都紅粉傳의 後 繼先 著雅堂

의 詩이라 又曰 故國被塵一榮花가 多情多情又 餘多情 殘夢淚線이 元無情이라 其 向 培蘭樓日

錄片이라 又曰 鳳凰於 祥麟 壽域에 門 抱東風 落花의 休 展紅顏이 非 昔日하와 梨園舊譜가 一 樣스라

雜記

車建中은 事新羅昭聖王하더니 王이 親以 周公의 負成王 朝諸侯之圖을 付之하니 蓋以

太子哀莊王之幼故也이라 及 哀莊王이 即位에 公이 爲 輔相하고 及 卒에 以 王禮로 葬

于 機張萬化洞하고 號를 車陵이라 하다가 子承橋이 事 哀莊王爲 左相이라가 及 憲德王이

駕哀莊王立에 與其弟恭叔으로 圖報君讐가 事覺에 避禍于 儒州九山하야 冒祖

母姓爲 氏하고 後에 變楊爲 柳라가 至 五世孫建하야 佐麗太祖하야 迎報不絶하고 爲

勳贊 顯上功臣하다 麗祖가 以其長子孝全으로 封延安君姓車하고 以 次子孝金으로

<그림 16> 『동경속지』 명기조의 채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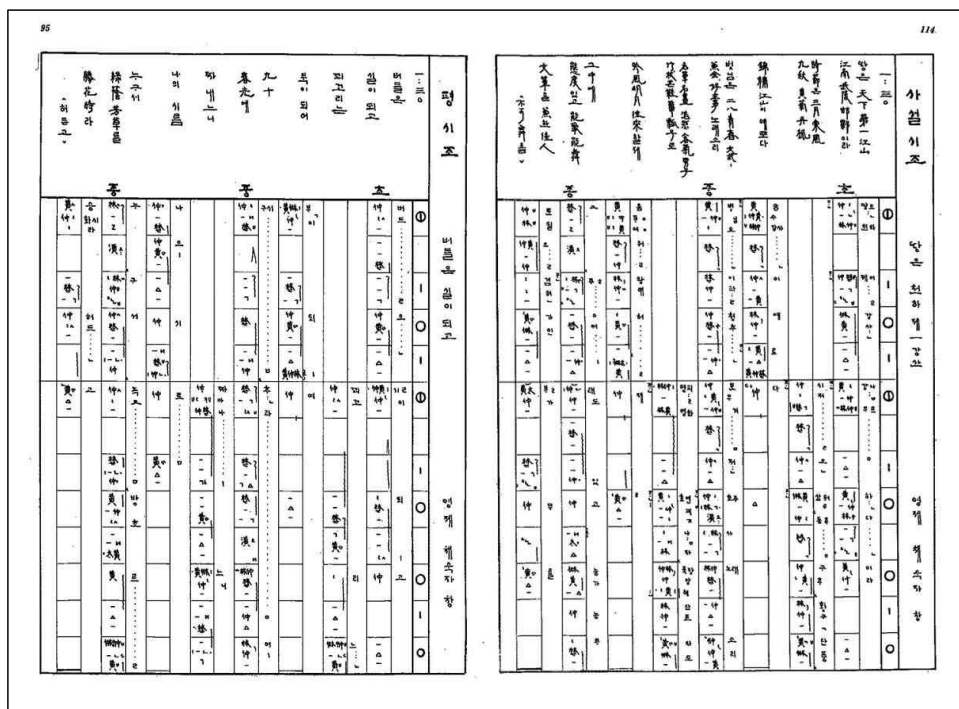
조선의 해방은 민족문화의 부활을 의미하였으나 1950년의 6.25전쟁은 민족의 비극이자 또다른 전통문화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기생들과 몇몇 조선의 예인들로 전통문화가 간신히 이어오다가 전쟁이란 큰 시련 속에 속절없이 우리의 전통 음악문화는 척박한 삶속에서 소외되어 쇠퇴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1960년대 초에 국립국악원이 설립되고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일제조사가 관련기관에 의해 5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illegible]

<그림 17>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 제1집-시조』 집 채숙자 창, 김기수 채보

이 조사사업으로 편찬된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 제1집-시조』에서 채숙자는 ‘고조영제시조원형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평시조와 사설시조 등

이 채보되어 오선보로 기록되었다. 당시에 영제시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분야에서는 시조종목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채숙자의 영제 평시조 ‘버들은 실이 되어’와 사설시조 ‘땅은 천하’가 채보되어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국악전집 권10』과 김기수 편저 『정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1990년에 들어와서 전국 최초로 영제시조가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채숙자가 보유자로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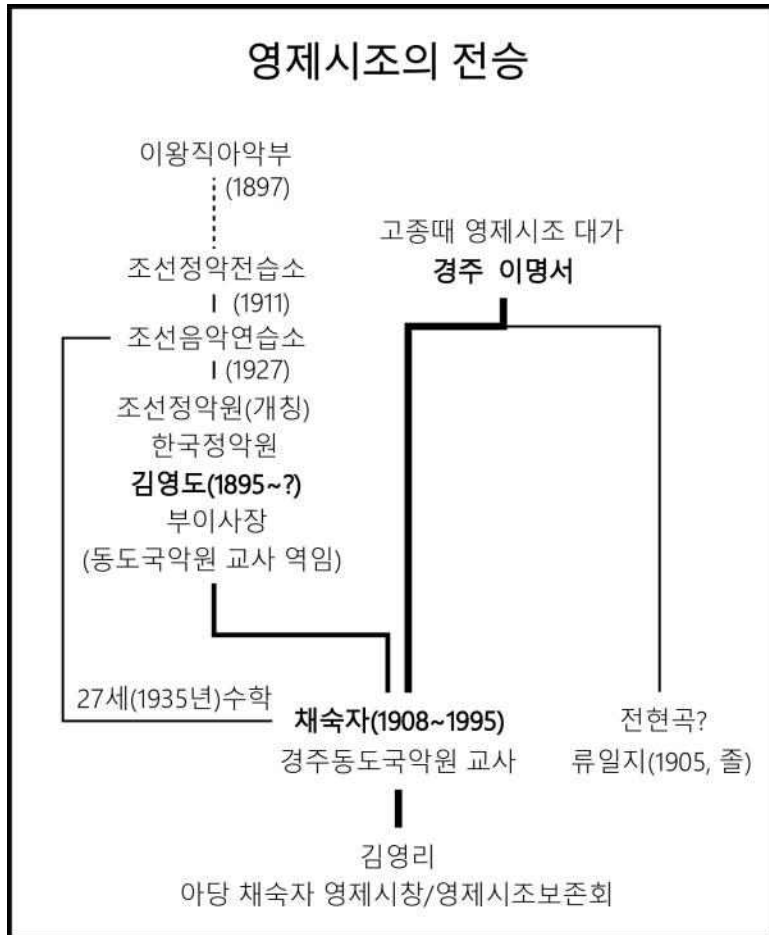


<그림 18> 『국악전집 권10』과 김기수 편저 『정가집』의 채숙자 창

영제시조는 현재 대구시와 경남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종목으로 되어 있다. 대구시와 경남 무형문화재는 이기륜 계보를 잇고 있으며, 이기륜은 경남 의령의 손덕겸→김영도→영제 남창 이기륜→대구 박선애와 경남 이종록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전승 계보에 대한 의구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제시조 여창 보유자 채숙자의 전승계보에 대하여 문헌자료와 기록을 통해 전통성을 연구하였다.

채숙자는 당시 영제의 대가인 이명서(李明瑞)에게 시창과 시조창을 배웠다고 본 연구자에게 말하였다. 이명서는 고종대의 인물로서 경주출신으로 <경주예기조합>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당대에 영제시조의 대가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채숙자를 7세부터 26세까지 사사하였다. 이명서의 제자로는 많은 사람이 있겠으나 현재는 채숙자와 전현곡이 유일하다. 그와 관련된 채숙자의 기록으로는 『경주시사』, 『경북예악지』, 『대구시사』 등에 채숙자의 스승으로서 기록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림 19> 영제시조의 전승

채숙자의 또다른 스승인 김영도(金永燾)는 한국정악원의 부이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한국정악원은 조선정악원의 개칭된 명칭이고 조선음악연습소의 후신이다. 조선음악연습소의 전신은 조선정악전습소이며 이는 이왕직아악부의 후신이다. 따라서 한국정악원은 이왕직아악부의 정악을 중시하여 교육하였음이 짐작된다. 김영도는 양금과 시조에 능하였고 한국정악원의 부이사장이 되기 전에는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동도국악원의 교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채숙자는 7세에 권번에 들어간 후 이명서로부터 시조창을 오랜 동

안 수학하였다. 채숙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년에 조선말기의 명창들과 함께 공연하였고 여러 차례 경연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녀의 나이 27세에는 경성(서울)에 위치한 조선음악연습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즉 김영도가 동도국악원에서 교사로 활동한 점과 결부하면 채숙자와 김영도는 경성과 동경(경주)을 오가며 사제지간의 친분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영제시창·시조창 전승 활동

영제시창·시조창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자는 악보집, 음반 작업, 인터넷 강의 및 각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은 1995년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 끊임없이 영제시창과 관련한 선연의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였다. 그 과정에 2007년도에 CD로만 제작된 ‘김영리 소리와 부모님께 효를’ 시작으로 2012년에 ‘영제시조창 모음 제1집’과 2014년에 ‘영제시창 모음 제1집’을 각각 DVD·CD로 제작하였다.

시창과 관련하여 시창은 고운 최치원이 지은 한시에 곡조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최치원의 유적지는 78곳에 이른다. 연구자는 최치원의 유적지와 관련하여 한시 10수를 1차적으로 선별하여 창과 영상으로 엮었다. 그중 주요 영상은 최치원의 친필이 새겨진 비석 4군데로 이는 ‘사산비명(四山碑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산비명은 경상북도 경주시 대승복사에 있었던 초월산 대승복사비명(初月山 大崇福寺碑銘), 충청남도 성주사지의 송엄산 성주사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명(崇嚴山 聖住寺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銘, 국보 제8호),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사의 지리산 쌍계사진감선사대공령탑비명(智異山 雙溪寺眞鑑禪師大空靈碑銘, 국보 제47호), 경상북도 문경시 봉암사의 희양산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명(曦陽山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銘, 보물 제138호)이다. 사산비명과 함께 영제시창 모음 제1집을 위하여 선택한 최치원의 한시 10수에 실린 영상 배경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8> 영남 곡조의 시창 모음 제1집 시창과 최치원 유적지

순번	시창명	유적지 배경
1	추야우중	충남 맥도, 첨성대, 양산제, 나정, 소벌도리공기적비 등
2	제가야산독서당	충남 조각공원, 가야산 해인사, 가야서당, 홍류동학사당, 농산정, 고운둔세비, 홍류동, 수식노회, 석벽제시, 무릉교 등
3	범해	중국 양주, 상서장, 서악서원 등
4	동풍	경주 포석정, 부산 동백섬 고운 동상, 해운정, 청량사 등
5	해변춘망	고운친필각자, 수식송유지비, 학사루 등
6	석봉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 야유암, 고산유수명월청풍친필등
7	대면	구회당, 대곡영당, 문창사 등
8	산예	함양상림, 사운정, 고운 신도비, 벽송정 등
9	고의	성주사지, 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 고운선생신도비, 고운사, 가운루, 우화루 등
10	우 흥	초월산대승복사비, 경주박물관, 승복사지, 쌍계사, 진감대사대공탑비, 쌍계. 석문친필, 세이암친필 등



<그림 20> 영제시창 제1집 ‘이원 김영리 영제시창’ CD·DVD

옛 선조들이 전하는 고귀한 시와 영남지방에서 전승되어온 영제시조창의 곡조를 엮어 부르고 필자가 직접 유적지를 탐방하며 촬영한 영상을 배경으로 엮어 제작하였다. 고려 말의 문신이자 대학자인 매운당 이조년의 ‘다정가’를 비롯하여 고려 삼은인 목은 이색의 ‘우국가’,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 야은 길재의 ‘회고가’, 시조문학의 효시라 전해지는 역동 우탁의 ‘탄로가’,

안민영의 ‘매화사’ , 황진이의 ‘청산리’ 그리고 작자미상인 사설시조 ‘청산은’ 이다.

영상의 배경은, 그들의 유적지인 매국정, 안산서원, 오헌재, 유품전시관, 문헌서원, 채미정, 현릉, 임고서원 등이다. 그들이 지은 시와 곡조를 엮어 전하는 시조창을 정간보와 선율보로 살펴보고 유적지 배경을 통하여 위인들의 업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DVD로 제작한 시조창 10수의 영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9> 시조창명과 유적지 배경

순번	작자/시창명	유적지 배경
1	이조년/다정가	안산서원, 안산영당, 농서군공 신도비, 성주이씨영정, 오헌재, 이장경의 묘소, 유품전시관, 이조년의 묘소,매국정, 이조년 신도비 및 사당과 영당, 시비, 백화헌
2	이색/우국가	괴시마을, 유허비각, 이색의 생가터, 이색 기념관, 가정목은 유허비, 관어대소부비, 목은 이색의 각 시비
3	길재/회고가	채미정, 경모각, 구인제, 길재 유허비각,야은 길재의 묘소.
4	정몽주母/백로가	임고서원, 시비, 정몽주의 묘소
5	이방원/하여가	현릉, 현릉 신도비각, 인릉, 인릉 신도비각
6	정몽주/단심가	정몽주의 묘소, 정몽주의 신도비각, 시비, 이석형의 묘소, 이석형 신도비각, 연안이씨 비각공원.
7	우탁/탄로가	사인암, 청량사, 우탁의 기적비, 바독판, 장기판, 시비, 역동 우탁의 친필, 안동대학교, 역동서원, 역동 우탁의 묘소, 우탁의 유허비
8	황진이/청산리	‘황진이 묘’ 사진과 눈내리는 배경
9	안민영/매화사	눈꽃속에 핀 매화사진들 배경
10	작자미상/땅은 천하	지리산, 강원도 화천군, 청량산 청량사, 동해, 첨성대



<그림 21> 영제시조창 모음 제1집 ‘김영리의 영제시조창’

인터넷 강의는 총 58강으로 각각의 강의는 약 10분정도이다. 제1강에서 제 11강까지는 영제시조창의 설명과 특징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제12강에서 제 18강은 실기습득을 목적으로 평시조 중 황진이의 ‘청산리 벽계수’를 강의한다. 이후 제19강부터는 58강까지는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의 전승을 위해 시조작가를 중심으로 시조를 감상하고 영제시조창을 강의한다. 이 강의의 특징으로는 시조작가의 유적지를 탐방하여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표 10> 인터넷 강의 제목 I

순번	강의 제목
제1강	시조와 시조창이란
제2강	시조의 명칭, 형식 및 종류
제3강	한시로 묘사한 시조영시와 시조창의 박자에 관하여
제4강	울려를 갖춰 부르는 시조창과 장구의 역사
제5강	시조창 장단을 치기전 앉는 자세와 치는 타법
제6강	시조장단의 장구부호와 시조창 장단 배우기
제7강	십이율명(十二律名)에 관하여
제8강	정간보(井間譜)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
제9강	단소로 들어보는 남창 . 여창의 영제시조창 반주
제10강	영제시조창 정간보의 부호와 창법 배우기
제11강	영제시조창의 부호와 창법 배우기
제12강	평시조 중 '청산리 벽계수야 ' 시조창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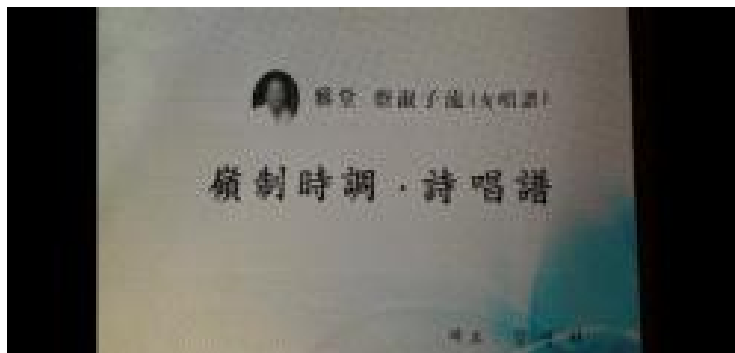
<표 11> 인터넷 강의 제목Ⅱ

순번	강의 제목
제13강	반주 장단 없이 부른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제14강	황진이의 시조와 그에 얽힌 일화들
제15강	황진이의 시조 모음
제16강	평시조 - '청산리 벽계수야' 중 '초장' 배우기 (1)
제17강	평시조 - '청산리 벽계수야' 중 '초장' 배우기 (2)
제18강	평시조 - '청산리 벽계수야' 중 '초장' 배우기 (3)
제19강	역동 우탁 선생에 관하여 - 역동 우탁의 묘
제20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中 우탁의 시조 " 탄로가 1 " - 역동 우탁 선생의 묘 앞에서.
제21강	역동 우탁 선생의 기념비와 사인암의 글씨,장기판,바둑판에 관하여
제22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中 역동 우탁의 시조 " 탄로가 2 " - 역동서원의 배경과 함께
제23강	'다정가' 지으신 이조년 선생과 '매국정'
제24강	역대 성주이씨의 시조를 모신 "안산서원"과 "오현재"
제25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中 매운당 이조년의 시조 "다정가"
제26강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 1 (경북 영덕군 '장육사' 편)
제27강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 2 (부도탑이 모셔진 '신흥사')
제28강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 3 (보제존자 석종이 모셔진 '신흥사')
제29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중 반사설시조. 나옹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제30강	목은 이색 선생의 "백설이 찾아진 골에" - 1 (괴시마을의 출생지, 기념관 탐방)
제31강	목은 이색 선생의 "백설이 찾아진 골에" -2 (목은 이색선생 묘소와 문헌 서원 탐방)
제32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목은 이색의 "백설이 찾아진 골에"
제33강	포은 정몽주선생의 "묘소와 신도비" 탐방
제34강	포은 정몽주선생의 충절을 기린 "임고서원" 탐방
제35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포은 정몽주의 시조 "단심가"
제36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포은 정몽주 모친의 시조 "백로가"
제37강	조선 제3대 태종 이방원의 시조 "현릉"을 찾아서
제38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태종 이방원의 시조 "하여가"
제39강	야은 길재의 충절과 학덕을 기린 "채미정"
제40강	야은 길재 선생의 묘소를 찾아서
제41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야은 길재의 시조 "회고가; 오백년 도읍 지를"
제42강	영남시조의 선구자. 농암 이현보의 작품세계 (1)

<표 12> 인터넷 강의 제목Ⅲ

제43강	농암 이현보의 작품세계(2) - 궁구당, 명농당, 선조의 친필, 농암신도비 편
제44강	농암 이현보의 작품세계(3) - 애일당, 강각, 농암각자 편
제45강	농암 이현보의 작품세계(4) - 분강서원, 농암 이현보 선생의 묘소
제46강	농암종택 '강각'에서 부른 "효빈가"
제47강	농암종택 '강각'에서 부른 "농암가"
제48강	농암종택 '강각'에서 부른 "생일가"
제49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효빈가"
제50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농암가"
제51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모 권씨 부인의 시조 "선반가"
제52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생일가"
제53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어부가 - 제1수"
제54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어부가 - 제2수"
제55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어부가 - 제3수"
제56강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농암 이현보의 시조 "어부가- 제4수"
제57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中 농암 이현보의 시조 "어부가 - 제5수"
제58강	채숙자류 영제시조 평시조 중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 “청산은 어찌하여”

인터넷 강의에 있어 앞서 영제시창·시조창 DVD영상에 소개된 인물 중 반복되는 인물은 제외하고, 고려 말 나옹선사와 조선의 농암 이현보, 퇴계 이황의 영제시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채숙자의 시조창 악보는 과거에 해설을 포함하여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 악보』로 연구자에 의해 출간된바 있다.



<그림 22> 아당 채숙자의 영제시조·시창보(김영리, 1996)



<그림 23> 아당 채숙자 영제시조창·시창악보(김영리, 2013)

제1편은 영제시조 정간보 여창 53수, 제2편 영제시조 정간보 남창 54수, 제3편 영제시조 선율보 여창 53수, 제4편 영제시조 선율보 남창 53수 그리고 제3편에 영제시창 6수 등 시조창·시창 219곡을 수록하였다.

<표 13> 영제시창·시조창 악보집의 평시조 곡명

	연번	곡 명	작 자	연번	곡 명	작 자
평 시 조	1	바람이 눈을몰아	안민영	18	녹양이 천만사인들	이원이
	2	한산섬 달 밝은밤에	이순신	19	십년을 경영하여	송 순
	3	이 몸이 죽고죽어	정몽주	20	금준에 가득한 술	익종대왕
	4	청산리 벽계수야	황진이	21	한 손에 가시들고	우 탁
	5	태산이 높다하되	양사언	22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삼문
	6	동창이 밝았느냐	남구만	23	오백년 도읍지를	길 재
	7	마음이 지척이면	김 영	24	벼슬을 저마다하면	김창업
	8	이런들 어떠하리	이방원	25	마음이 어련후이니	서경덕
	9	녹수청산 깊은골에	이명한	26	강호에 봄이드니	맹사성
	10	내 벗이 몇이나	윤선도	27	강호에 여름이드니	맹사성
	11	가노라 삼각산아	김상헌	28	꽃은 무슨 일로	윤선도
	12	가마귀 겁다하고	이 직	29	버들은 실이 되고	작자미상
	13	공수래 공수거하니	조현명	30	어버이 살아신제	정 철
	14	만수산 만수동에	노 진	31	靑山은 어찌하여	이 황
	15	금잔 은잔	작자미상	32	任그린 상사물이	박효관
	16	받으시오 들으시오	작자미상	33	공명을 즐겨마라	김삼헌
	17	菊花야 너는 어이	이정보	34	이화에 월백하고	이조년

<표 14> 영제시창·시조창 악보집의 반사설시조, 사설시조, 절음시조의 곡명

	연번	곡명	작자
반 사 설 시 조	35	청산은 나를보고	나옹선사
	36	벽사창이 어른어른	작자미상
	37	일년 열두달	작자미상
	38	바람은 지동치듯	작자미상
	39	초당에 곤히 든잠	작자미상
사 설 시 조	40	땅은 천하 제일강산	작자미상
	41	팔만대장 부처님	작자미상
	42	명년삼월 오시마더니	작자미상
	43	창외삼경 세우시에	작자미상
	44	만고명기 절대가인	작자미상
	45	일년삼백육십일은	작자미상
	46	세상공명 부운이라	작자미상
	47	죽장망혜 단표자로	작자미상
	48	범피중류 동덩실	작자미상
절 음 시 조	49	증경은 쌍쌍	작자미상
	50	기리기 앓은 곳에	작자미상
	51	바람아 부지마라	작자미상
	52	주렴에 달비취었다	작자미상
	53	약수삼천리	작자미상
	54	바람도 수여넘고	작자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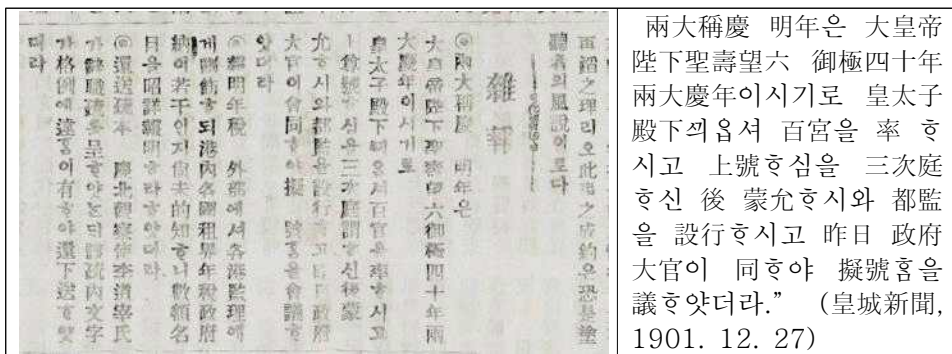
<표 15> 영제시창·시조창 악보집 중 영제시창

연번	곡명	사설	작자
55	경포대	십이난간벽옥대	종산 심영경
56	신라고도	유유왕사문무빙	작자미상
57	영남루	서풍인의영남루	작자미상
58	축석루	진양성외수동류	
59	황학루	석인이승황학거	
60	십재경영	십재경영옥수연	

Ⅲ. 창극의 형성과 주요 창극

1. 창극의 형성과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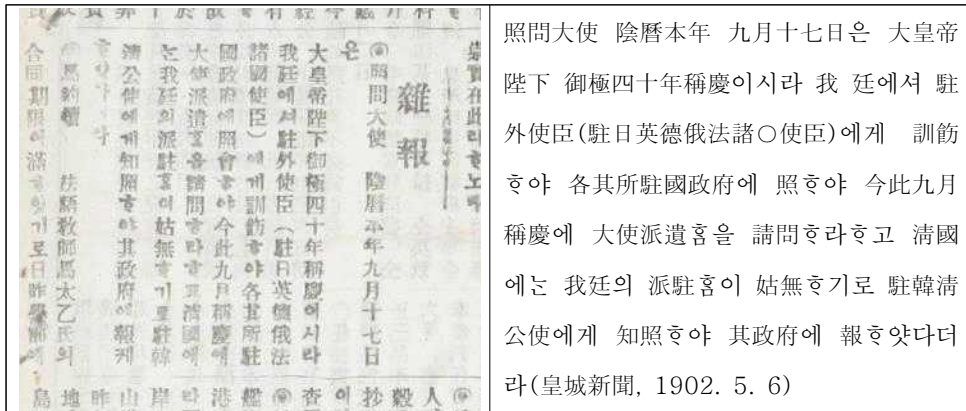
우리나라 초기창극이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초인 개화기이다. 연극사(演劇史)와 더불어 현재까지 인문·예능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창극의 형성과 전개는 협률사(協律社)와 원각사(圓覺社)가 중심이다. 초기창극의 형성과 관련한 연구는 협률사를 중시한다. 초기창극을 공연한 협률사는 고종황제가 60세를 바라보는 망육순(望六旬) 진연(進宴)과 어극 40년(御極四十年)인 해를 기념하여 개설되었다. 고종의 양대경사(兩大慶事)를 관장할 도감(협률사)에 대해서는 1901년 12월 27일자 황성신문에 발표되었다.



<그림 24> 황성신문 1901년 12월 27일자 기사

공식 발표 후, 대한제국 정부는 가을에 거행될 성수망육(聖壽望六)과 어극 40주년을 기념하는 칭경예식(稱慶禮式)을 음력 본년 9월 17일(양력 10월 18일)로 정하고, 각국에 대사(大使)파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는 각국 대사를 맞이할 접빈소를 마련하였다. 각국의 언어로 통역할 능력자 140여명을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는 등 가을에 열릴 칭경예식을 위해 5월 달부터 본격적

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는 제국 정부가 국제적인 행사로 기획하였던 것을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25> 황성신문 1902년 5월 6일

칭경예식이 열릴 기념식장으로 당대 서구 양식으로 건립된 ‘소춘대(笑春臺)’라 불린 희대(戲臺)³³⁾는 경희궁 흥화문앞(현재 서울 새문안교회 자리)에 세워졌다. 8월 15일자 「희대교습(戲臺敎習)」 기사 내용에는 봉상시(奉常寺)³⁴⁾ 내에 희대를 설치하고 한성(漢城)내 가무악을 하는 여공인을 선택하여 연희제구(演戲諸具)를 연습하는데 참령 장봉환이 주관하여 맡았다³⁵⁾고 하였다.

궁중에는 국가와 왕실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는 음악기관이 있었다. 장악원(掌樂院)은 회례악(會禮樂)을 담당하였고, 봉상시(奉常寺)는 제례악(祭禮樂)을 담당하던 음악기관이었다. 장악서에서 개칭한 장악원은 조선시대 예조(禮曹)소속의 정 3품 관청으로써 악(樂)·가(歌)·무(舞)를 담당하였다. 악인에는 악사, 양인 출신인 악생(樂生), 관노(官奴)출신인 악공(樂工), 기녀, 가동

33) 1902년, 황제즉위 40년 경축 예식장으로 봉상시(奉常寺) 구내에 최초의 극장(원각사의 전신).

34) 조선시대,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35) 황성신문, 1902. 8. 15.

(歌童), 무동(舞童)이 있었다. 장악원 소속인 기녀들은 주로 내연(內宴)을 비롯하여 연향에서 공연하였다.

장악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의 관제 개혁이 단행된 다음 해인 1895년에 궁내부의 장례원(掌禮院)으로 이속되었다. 장례원 소속의 봉상사(奉常司)에서 제례와 악공 관리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11월에 궁내부가 개편되면서 봉상사가 독립하고 장례원 소속의 협률과(協律課)가 만들어졌다.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1900년에 협률과(協律課)가 교방사(敎坊司)로 개칭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00년 6월 23일자의 황성신문의 기사 내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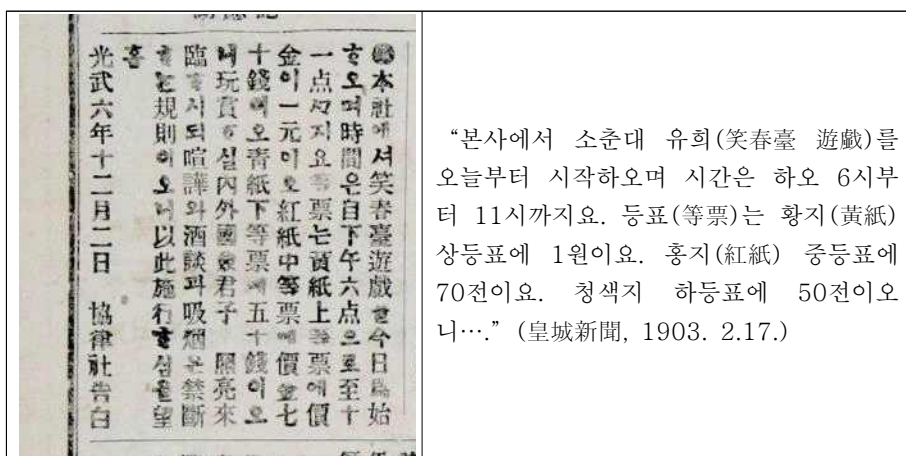
	第二十六條 宮內府職員中 掌禮院職掌內에 協律課를 以敎坊司로 改稱호야 提調를 增置호고 典膳司에 提調와 副提調를 增置호되 職員을 左갓치 定 호고 掌禮院主事 十八人은 以十六人으로 改正호미라 敎坊司 提調 一人 勅任 掌禮院卿例兼 但宴享時에 另爲差出호야 其事務를 管理호미라 主事 二人 判任 典膳司 提調 一人 勅任 但宴享時에 差出호야 其事務를 管理호 미라 副提調 一人 奏任 但宴享嘉禮時에 差出호야 其事務를 管理호미라. (皇城新聞, 1900. 6. 23.)
--	--

<그림 26> 황성신문 1900년 6월 23일 기사

협률과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한 교방사는 협률과의 과(課)를 사(司)로 바꾸어 협률사(協律司)라 하였다. 협률사는 고종의 어극 40주년을 기념하는 청경예식과 관련한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다. 하지만, 1902년에 건립된 희대에서 청경예식을 한 달 앞두고 콜레라가 만연(蔓延)하여 행사가 연기되었다. 또한 영친왕의 천연두 발병과 보리경작의 흉년 등으로 행사가 몇 차례 연기되기도 하였다.

경축공연의 총책임자는 나주의 김창환(金昌煥) 명창이었으며, 송만갑, 이동백, 유성준, 김채만, 장자백 등 고종의 청경예식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가기(歌妓), 재인(才人), 연희 광대 등이 총망라 되었다. 모여든 예인(藝人)들의 활용과 군악대의 경비를 보충하는 명목으로 연희회사(演戲會社)를 설립하여 이익을 창출할 필요한 대두되었다. 이에 일반백성을 대상으로 소득을 내기 위한 영업을 위하여 협률사(協律社)라는 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최고의 전통예술인들이 소속된 협률사에서는 궁중무, 판소리, 무동춤, 민요 등을 엮어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라는 창극의 전신을 공연을 선보였다. 「소춘대유희」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소리의 대화창(對話唱)도 이때 등장하였다. 협률사의 최초 유료공연인 「소춘대유희」를 광고하는 황성신문 1902년 12월 4일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7> 황성신문 1903년 2월 17일 기사

이 공연에 출연한 협률사 소속 남녀전통연희자들은 청경예식을 위해 모여든 예인(藝人)들과 함께 삼패도가(三牌都家)에서 생활하였다. 하지만 협률사는 전통연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던 「소춘대유희」 공연 이후 창우(倡優)의 공연은 사라지고 기생들의 예능만이 공연되었다. 황성신문 1903년 2월 17일자

기사에서는 “정우여기(停優餘妓) 작년(昨年)부터 협률회에서 여기(妓女)와 창우(倡優)를 회집(會集)하야 회대를 설(設)하고 ○내인사(○內人士)의 관광함을 이공(以供)하더니 재작위시(再昨爲始)하야 창우는 정지하고 기생만 유희케 되앗다더라 ” 라고 하였다.

당시 대중들은 기생의 공연보다 전통연희단인 창우들의 공연을 더 선호하였다. 이는 기존에 인식된 판소리가 서양문물의 유입과 함께 창극으로 발전하였다. 창극에 대거 참여한 명창들의 뛰어난 소리와 연기, 전통연희단들의 기예가 합작으로 이루어진 창극에 서민들은 열광하게 되었다. 그 까닭에 점점 관객이 없어져 협률사의 업무가 수시로 정지되기도 하였다. 협률사는 1주일 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지만 궁내부의 칙령에 따라 일시 정무, 이후 두 달 만에 1년 정도 유지하다가 1904년에 폐지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협률사는 여러 차례 공연중단을 반복하였다. 그러면서도 1907년 2월에 관인구락부(官人俱樂部)로 이용되면서 1908년 7월에 박정동(朴鼎東)·김상천(金相天)·이인직(李人植) 등이 협률사 건물을 임대 받아 내부수리를 하고 원각사로 개칭하여 재개관하였다.

원각사는 판소리를 중심으로 무대화하면서 약간의 무대장치와 여러 가객(歌客)들이 나와 각본에 따라 극중 배역을 맡아 창을 하고 광대들은 행동·대화 등 연기할 수 있었기에 쉽게 분창(分唱)형식의 창극이 시도되었다. 이것이 창극의 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대중의 호응으로 창극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조선후기 판소리와 독립된 또 하나의 예술 장르로 등장한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판소리는 소리, 타령, 광대소리, 창악(唱樂), 극가(劇歌), 잡가 등으로 불리어 졌다. 원각사 시절의 판소리는 창극의 전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창극공연은 판소리 명창인 김창환·송만갑·정정열·이동백 등이 중심이 되었고 이화중선·박녹주·김초향 등의 명창과 가기가 있었다.

원각사는 1908년 11월에 이인직의 신창작극인 「은세계」가 신창작극으로 공연되었다. 이후 「최병도타령」, 「수궁사」 및 판소리 다섯마당을 창극화하여

공연하였다. 연희자들은 원각사를 비롯하여 장안사, 연흥사, 광무대 등 여러 극장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극장마다 재정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던 중 1909년 11월 말 원각사가 폐지되자 판소리 창자를 중심으로 연희 단체를 구성하고 연희자들은 지방순회공연을 목적으로 다시 협률사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민간협률사는 송만갑협률사, 김창환나주협률사, 김창룡협률사, 김봉이협률사 등이 전국순회공연을 하였고 194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한편으로는 1930년대에 전수의 목적과 창극인들의 조직을 만들고자 1933년 5월 10일 김초향의 주도로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가 창립되었다. 회원은 판소리 명창인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한성준, 박녹주 등이다. 창립 첫 작품으로 창극 <춘향전>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배비장전>·<별주부전>·<유충렬전> 등을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1936년 말 「조선성악연구회」가 해산하게 되었다.

1942년 9월에는 박석기(朴錫紀)·허순구(許舜九)에 의해 조선성악연구회 직속 창극좌와 화랑창극단(花郎唱劇團)이 통합하면서 새로이 「조선창극단(朝鮮唱劇團)」이 창립되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분산되었던 조선성악연구회의 재결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창극단」은 광복 직후까지 활동하다가 1948년 <왕자 호동> 공연을 끝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해방 후, 1945년 11월 5일에 대한국악원 산하의 창극단체인 「국극사(國劇社)」가 창단된다. 초대원장은 함화진이며, 부원장은 박헌봉이다. 국극사원은 오태석(吳太石)·정남희(丁南希)·임방울(林芳蔚)·조상선(趙相鮮)·장영찬(張泳瓚)·정원섭·한갑득·박녹주·김소희·박귀희·임소향(林小香)·조순애 등이다. 「국극사」는 1946년 1월 11~18일 명동 예술극장에서 창립기념으로 창극<대춘향전>을 공연하여 성황리에 마치고, 같은 해인 6월 국악원의 새로운 산하단체인 국극협회(國劇協會)·조선창극단·김연수창극단과 합동으로 국도극장에서 <대심청전> 공연을 하였다. 1959년 4월, 국립극장 개장으로 새로이 시도된 창극 <만리장성> 공연을 끝으로 해산되었다.

1962년 2월, 「국극단(國劇團)」으로 창단되고, 초대 단장은 김연수, 부단장은 김소희, 간사는 박귀희이며 단원은 21명이다. 1973년 5월 1일에 국극단은 「국립창극단(國立唱劇團)」으로 개칭되었으며, 초대단장은 김연수에 이어 박동진·박귀희·박후성 등으로 이어졌다.

2. 창극의 주요 소재

(1) 춘향전

<춘향전(春香傳)>은 조선후기에 가장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고전작품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다. 작자는 미상이며 창작한 시기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 영조(英祖)·정조(正祖)때 생성되어 현재의 춘향전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존하는 춘향전 사본과 간행본은 총 143종 286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 필사기나 간기 또는 장서기가 확인된 것은 90종 183책 즉, 사본 42종 54책, 목판본 19종 47책, 활자본 29종 82책이다. 이중에서 목판본 춘향전은 모두 한글본으로서 간행 지역에 따라 경판본 7종 17책, 완판본 9종 26책, 안성판본 3종 4책 등으로 나타났다. 활자본 춘향전은 형태에 따라 신연활자본 28종 79책, 석판본 1종 3책으로 나타났다. 신연활자본은 표기 문자에 따라 국한문 혼용본 4종 11책, 한글본 19종 37책, 한문본 5종 31책으로 나뉘었고, 석판본 1종은 연회본 형식의 한문본이다.³⁶⁾

이 작품은 이도령과 춘향이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탐관오리의 정치를 다룬 고전소설이다. 작품의 전개는 양반자제이자 남원부사의 아들인 이몽룡과 기생의 딸인 춘향이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새로 부임한 변학도의 횡포와 이를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에게 처벌 당한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굳은 사랑과 절개를 지킨 춘향이를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백성들

36) 이옥성·강순애, 『춘향전-刊行本の系統 및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한국서지학회, 2012.

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당시 시대적으로 불가능했던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백성들을 지배했던 탐관오리가 통쾌하게 처벌당하는 모습과 굳은 절개를 지킨 춘향이의 모습에서 백성들은 자신이 꿈꾸던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와 정서, 대리만족을 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이자 판소리로 불려졌던 춘향전은 1900년대에는 창극으로 탄생하고 연극, 영화, 신소설, 현대소설,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적 장르로 알려진 작품이다. 또한 문학성과 음악성, 연극적인 짜임새가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손꼽힌다. 춘향전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목이 ‘사랑가’이며, 판소리는 창, 아니리, 발림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창은 노래·소리를 뜻하고, 아니리는 노래 중간에 삽입되어 곡의 흐름을 설명하며, 발림은 창자가 부채나 다른 소도구들을 사용하며 나타내는 몸짓이나 행동을 말한다. 춘향전중 ‘사랑가’ 대목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향전 중 ‘사랑가’ 대목³⁷⁾

창은 노래·소리를 뜻하고, 아니리는 노래 중간에 삽입되어 곡의 흐름을 설명하며, 발림은 창자가 부채나 다른 소도구들을 사용하며 나타내는 몸짓이나 행동을 말한다. 춘향전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불려지는 대목이 ‘사랑가’이다. 사설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창은 노래·소리를 뜻하며, 장단은 중중모리로 불려지는 사랑가이다.

[중중몰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37) www.koreapansori.com/ 김세종제 춘향가 사설.

이~ 이~ 이~ 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썰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푹 떠 반간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굴병 사탕의 해화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지 지루지 허니 외가지 단 참외 먹으랴느냐?

시금 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잇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아니리는 노래 중간에 삽입되어 곡의 흐름을 사설로 설명한다.

[아니리]

“이 애,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 어찌 업는단 말ियो?”

“내가 언제 널 다려 무겁게 업어 달라더냐?

내 양팔만 니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 다니면 그 속에 천지 우락 장막이
다 들었느니라.”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디 파겁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노는디.

[중중몰이]

“둥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내 낭군. 둥 둥 둥 둥 어허 둥둥 내 낭군.

도련님을 업고 보니 좋을 ‘호’ 자가 절로 나.
 부용 작약의 모란화. 탐화봉접이 좋을시고.
 소상동정 칠백리 일생을 보아도 좋을 ‘호’ 로 구나.
 등 등 등 등 어허등등 내 낭군.”

(2) 심청전(沈淸傳)

연대 미상이며 작가 미상인 한국의 고전소설이다. 심청전의 모태가 된 효녀 설화는 신라 진성여왕때 명궁(名弓) 거타지에 관한 거타지 설화(居陀知說話)와 경상북도 경주의 연권녀 설화(효녀 지은 설화)에서 유래한다.

거타지 설화는 『삼국유사』 권2 기이편(紀異篇)진성여대왕 거타지조에 수록되어 있으며, 1512년 규장각본(국보 306-2호)와 조병순 소장본에 원문이 전해진다. 연권녀 설화(효녀 지은 설화)는 『삼국사기』 권48과 『삼국유사』 권5 제9 효선(孝善)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1537년 옥산서원본(보물 제525호)와 1512년 규장각본(국보 306-2호), 성보박물관소장본(범어사 소장본)보물 419-3호에 원문이 전해진다.



<그림 28> 거타지 설화(삼국유사 권2)와 연권녀 설화(삼국유사 권5)

거타지 설화(居陀知說話)는 진성여왕의 계자인 아찬 양패가 당에 사신으로 갈 때 그들을 호위하던 군사중 한사람이 거타지이다. 항해 도중 곡도에서 풍랑을 만난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활을 잘 쏘는 한 사람만 섬에 두고 가면 순풍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섬을 남을 자를 가리기 위해 각자의 이름이 써어진 목간 50쪽을 물에 놓자 거타지라 써어진 목간만이 물에 잠겨 남게 된다.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고, 거타지는 용왕을 도와 요괴의 제물이 될 뻔한 딸 용녀를 구출하고 신라로 돌아와 그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진다.

연권녀 설화(효녀 지은 설화)는 지은은 연권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나이 32세가 되도록 출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활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자 결국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였고 지은이도 함께 울었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화랑 효종랑(孝宗郎)은 그녀의 효성에 감탄하여 곡식 100섬과 옷을 보냈고, 다른 낭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각각 곡식을 보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왕에게도 전해져 곡식 500섬과 집을 하사하여 잘 살도록 해주었다고 전해진다.

<심청전>은 필사본(筆寫本), 판각본(板刻本), 활자본(活字本)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모두 80여종이 된다.

심청전의 작품 내용은 가난한 심봉사의 딸로 태어난 심청이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눈 먼 아버지 심봉사의 보살핌 속에 잘 자라 아버지를 봉양한다.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팔았다. 심청은 인당수(印塘水)에 몸을 던졌고 병을 앓던 용왕은 심청의 간을 빼서 병을 치료하고 심청은 연꽃에 태워 다시 인당수로 보냈다. 이 연꽃이 뱃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고 임금님께 바쳐졌다. 연꽃에서 나온 심청은 왕과 혼례하여 왕비가 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열어 아버지를 만난다. 그 반가움과 놀라움에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다. 홀아버지를

모시며 빈곤한 삶을 이어가던 심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처절한 현실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다. 이 작품은 심청이의 지극한 효심을 통해 효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적 가치임을 깨닫게 한다. <심청전> 중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심봉사 눈뜨는 대목으로 다음과 같다.

심청전³⁸⁾

[중중머리]

예, 소맹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웁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정월 달에, 산후증으로 상처하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에다 싸서 안고, 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동냥 젖을 얻어 먹여, 겨우 겨우 길러내어, 십오세가 되었는데, 효성이 출천하여, 애비 눈을 띄인다고, 남경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죽으로 간지가 삼년이요. 눈도 뜨지 못 하웁고, 자식만 팔아 먹은 놈을, 살려두어 쓸데 있소. 비수검 드는 칼로,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

[жат은머리]

심황후(沈皇后) 이말 듣고, 산호주렴(珊瑚珠簾)을 걷어버리고, 보선발로 우르르, 부친(父親)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沈奉士) 깜작 놀라,

“아니, 아버지라니, 뉘가 날더러 아버지여. 에이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無男獨女)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지가, 우금(于今) 삼년(三年)인데, 뉘가 날더러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인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38) <http://www.koreapansori.com/>

“아니 청이라니, 에이 이것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수궁에 들어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제. 아이고 답답하여라.”
두 눈을 끔적하더니 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아니리]

심봉사, 정신을 차려, 궁안을 살펴보니, 철모금관 황홀하여, 딸이라니, 딸인줄 알지, 전후불견초면이라. 가만히 살펴보니.

[중머리]

옳지 인제 알겠구나. 내가 인제야 알겠구나. 갑자 사월 초파일야, 꿈속에 보던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을 하였는가. 내가 죽어서 따라 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시냐. 꿈과 생시, 분별을 못하겠네. 나도 이제까지 맹인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아느냐. 나도 오늘부터,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지팡이 너도,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는 너도, 너 갈데로 잘 가거라. 피르르 내던지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자, 좋을시구.

(3) 별주부전(鰐主簿傳)

조선 후기의 판소리계 작품으로써 작자는 미상이며, 동물을 의인화한 우화소설이다. 필사본 및 목판본의 이본은 다수 존재하며, 이를 판소리계와 소설계 이본으로 양분되어 이본의 명칭이 다양하다. 명칭은 토끼전·토생전(兎生傳)·수궁가(水宮歌)·토공전(兎公傳)·토별가(兎鰐歌)·별토전(鰐兎傳)·수궁록(水宮錄)·별토가(鰐兎歌)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구토지설>이라는 짧은 이야기에 근원을 둔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이자 우화소설이다. 백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구려에 청병을 하러 갔던 김춘추는 보장왕으로부터 마목령과 죽령을 돌려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된다. 이에 김춘추는 신하가 국가의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가 옥에 갇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이때 선도해라는 고구려의 대신이 김춘추를 찾아와 해준 이야기가 바로 구토지설이다.³⁹⁾

토끼와 별주부의 지략 대결이 중심이 된 구토지설은 수궁가의 시초를 마련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권제41 열전 제1에 전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옥산서원본⁴⁰⁾과 정덕본⁴¹⁾에도 원문이 전해진다.



<그림 29> 삼국사기 <구토지설>

선도해가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다 (642년)

39)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81%BC%EC%A0%84>

40) 옥산서원본1537년 보물 제525호.

41) 정덕본1512년 보물 제723호.

김춘추가 청포(靑布) 3백 보를 고구려왕이 좋아하는 신하 선도해(先道解)에게 몰래 주었다. 선도해가 음식을 차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무르익자 농담하듯 말하였다. “그대는 또한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소?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에 병이 났는데 의원이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소. 거북이 1마리가 있어 용왕에게 ‘제가 능히 그것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라고 아뢰었소. 이윽고 육지에 올라 토끼를 보고는 ‘바다 속에 섬이 하나 있는데, 샘은 맑으며 돌은 하얗고 수풀은 무성하고 과일은 맛이 좋으며 추위와 더위는 이르지 못하고 매와 송골매도 침입하지 못한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소. 이로 인해 토끼를 등에 업고 2~3리 정도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가 돌아보며 토끼에게 ‘지금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모름지기 토끼의 간이 약이 되는 까닭에 수고를 꺼리지 않고 너를 업고 왔을 따름이다.’ 라고 하였소. 그러자 토끼가 말하였소. ‘아! 나는 신명(神明)의 후예라 능히 오장(五藏)을 꺼내 씻어 넣을 수 있다. 일전에 잠시 마음이 어지러워 마침내 간과 심장을 꺼내 씻어 잠깐 바위 아래에 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오느라 간은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 어찌 간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또한 살 수 있으니 어찌 양자가 서로 좋지 않겠는가.’ 거북이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 겨우 해안에 이르렀는데 토끼가 도망치며 풀 속으로 들어가 거북이에게 ‘어리석구나, 그대여. 어찌 간 없이 살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소. 거북이는 근심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소.”

토끼와 별주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토끼에 대한 긍정적인고 우호적인 태도를 표현한 19세기 중엽 이유원의 ‘관극팔령 8수(觀劇八令八首)’ 42) 중 한 수는 다음과 같다.

42) 관극팔령(觀劇八令)-조선 말기에 이유원(李裕元)이 지은 소악부(小樂府)로써 칠언절구 8수로 엮어진 것이다. 광한춘제1령(廣寒春第一令)-「춘향가」, 연자포제2령(燕子匏第二令)-「홍보가」, 예여장제3령(艾如帳第三令)-「장끼전」, 중산군제4령(中山君第四令)-「수궁가」, 삼절일제5령(三絶一第五令)-「적벽가」, 아영랑제6령(阿英娘第六令)-「배비장전」, 화중아제7령(花中兒第七令)-「심청가」, 광쇠제8령(光釧第八令)-「변강쇠가」이다.

용왕이 약 구한다 별주부를 보내려고(龍伯求仙遣主簿)
 수정궁에 물고기 모여 회의를 한다(水晶宮闢朝鱗部)
 달에서 약 찰는 신령스런 토끼를(月中搗藥兔神靈)
 어찌하여 업신여겨 욕지 엿봤나(底事凌波窺旱土)⁴³⁾

거의 같은 시기에 지은 송만재의 ‘관우희(觀優戲)’⁴⁴⁾는 토끼를 비판하고 별주부의 충을 부각시킨 시로써 다음과 같다.

동해의 자라가 사신이 되어(東海波臣玄介使)
 임금 위한 충성으로 약 구해 나섰네(一心爲主訪靈丹)
 얄미운 토끼는 요설을 퍼서(生憎缺口偏饒舌)
 간 두고 왔다고 용왕을 우롱하네(愚弄龍王出納肝)⁴⁵⁾

<별주부전>의 작품 내용은 용왕님이 깊은 병이 걸리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주부에게 토끼 간을 구해 오라고 명령을 했다. 별주부는 즉시 욕지로 올라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한다. 별주부는 토끼에게 수궁을 구경시켜준다고 유혹하고, 토끼는 별주부를 따라 수궁을 구경했다. 하지만 토끼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간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고 피를 낸다. 토끼는 용왕님께 자신의 간을 욕지에 놓고 왔음을 거짓으로 고하고 즉시 별주부를 타고 다시 욕지로 올라왔다. 토끼는 별주부에게 호통을 치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별주부는 후회했다는 내용이다.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찾기 위하여 화공이 토끼 생김새를 그리는 대목이다.

43)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81%BC%EC%A0%84>

44) 관우희(觀優戲): 조선 순조 때 송만재(宋晩載)가 지은 한문시, 8백여 자의 서문과 50수의 시로 이루짐, 제9수부터 제20수까지는 「춘향가」·「적벽가」·「흥보가」·「강릉매화타령」·「가루지기타령」(일명 변강쇠타령)·「왈자타령(曰者打令)」·「심청가」·「배비장전」·「옹고집전」·「가짜신선타령」·「별주부전」(일명 토끼타령)·「장끼전」 등의 판소리 열두마당을 노래한 내용이다. 이해구, 「송만재(宋晩載)의 관우희(觀優戲)」, 『한국음악연구(韓國音樂研究)』, 국민음악연구회, 1957.

45)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81%BC%EC%A0%84>

별주부전⁴⁶⁾

[중중모리]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청홍연 (洞庭琉璃靑紅硯) 금수추파(錦水秋波: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을 담은)거북 연적(硯滴) 오징어로 먹갈어 양두화필(兩頭畫筆)을 덤벼풀어 단청채색을 두루묻히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천하명산 승지(勝地) 강산 경개보던 눈그리고 봉래방장(蓬萊方丈) 운무중에 내(냄새) 잘 맡던 코그리고 난초지초 원갖 향초 꽃따먹든 입그리고 두견앵무 지지울제 소리듣던 귀 그리고 만화방창 화림중 펄펄 뛰든 발 그리고 대한엄동 설한풍 방풍허던 털 그리고 두 귀는 쫓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신 콩텡이 묘뚝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인디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 휘느러진 양류속 들랑달랑 오락가락 앙그주춤 지나 토끼 화중퇴(畵中兎) 얼핏 그리어 아미산월으 반륜퇴(峨眉山月半輪兎) 이어서 더할 소냐 아나 였다 별주부야 니가 가지고 나가거라.

[아니리]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어데다 넣어야 물이 한점 안묻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허다 한 피를 얼른 내여 목을 길게 빼고 목덜미에다 화상을 톱 붙여 놓고 목을 움추리며 자아 이만허면 수로만리를 다녀와도 물한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허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주부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못가게 만류를 허시는데!!

[진양]

(별주부가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모친이 울며 가지 말라 만류한다)
여봐라 주부야 여보아라 별주부야 니가 세상을 간다허니 무엇허러 가라느냐 삼대독자 니 아니냐 장탄식병이 든들 뉘 알뜰히 구환허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연으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뿌다리며 휘여쳐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냐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마라 세상이라 현는디는 수중 인갑(鱗

46) <http://cafe.daum.net/0one0one/1IUr/>

甲)이 얼른 허면 잡기로만 위주를 헨단다 옛날에 너의 부친도 세상구경을 가시더니 십리사장 모래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못가느니라 못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가면 니가 세상을 가지마는 살려두고는 못가느니라 주 부야 위방 불입(危邦不入)이니 가지를 마라.

<아니리>

별주부 여짜오되 "나라에 환후(患候)가 게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폐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마는 니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니 지기를 보기위하여 잠깐 만류를 하였고나 니 충심이 그러할진데 수도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4) 배비장전

배비장전(裵裨將傳)은 판소리 열두 마당중 한편으로써 국문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공간 배경은 제주지역이며, 당대 양반들의 위선과 권위, 제주 관아의 관인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그려 낸 풍자문학으로써 역사적으로도 그 의의가 큰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배비장전은 작자가 미상이며, 20세기 이후 활자본으로 만들어진 2종의 한글본이 전해진다. 1916년 발간된 구활자본 신구서림본(新舊書林本)과 1950년에 필사본을 대본으로 한 국제문화관본(國際文化館本)이다. 신구서림본은 전체 112쪽의 구활자본 소설로 글자 오른쪽 옆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 다른 이본에 비해 분량이 길다. 국제문화관본은 김삼불(金三不)이 교주(校註)한 것으로 전체분량은 74쪽으로 되어 있다. 김삼불교주본(이하 김삼불본)의 원본은 1800년대의 판소리 사설(辭說)로서 1916년에 간행된 신구서림본 보다 더 오래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⁴⁷⁾

배비장전의 근원설화는 서거정(徐居正)이 쓴 『태평한화골계(太平閑話滑稽傳)』⁴⁸⁾에 실려 있는 발치설화(拔齒說話)와 이원명(李原命)의 미쾌설화(米櫃

47) 고동실,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 4.

48) 서거정(徐居正; 1420~1488), 1477년(성종 8), 조선 전기 문신, 저서 소화집(笑話集)은 원본이

說話)가 근간이 되었다. 발치설화는 기생에게 사랑의 정표로 이를 빼어 주었다가 망신을 당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설화의 하나이다. 줄거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안의 한 소년이 경주의 아름다운 기생에게 혹하여 지내다가 이별하게 되었다. 기생이 신물로 몸의 일부(切身之物)를 요구하므로, 소년은 자기의 이를 뽑아 기생에게 주고 서울로 돌아왔다. 뒷날 그 기생이 다른 남자와 좋아지낸다는 말을 듣고 기생에게 가서 자신의 이를 돌려달라고 했다. 기생은 소년을 비웃으면서, 자루에 가득 담겨 있는 이를 내보이며 찾아가라고 하였다. 그 동안 남자들이 빼서 준 이가 그렇게 많았던 것이다.⁴⁹⁾

<배비장전>의 후반부에 영향을 주는 쌀뒤주설화 즉 미케설화는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통하려던 남자가 본 남편을 피하여 쌀뒤주에 숨었다가 망신당하는 내용의 설화이다. 『동야휘집(東野彙輯)』 차관출櫃羞裸袒)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줄거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주에 도입해온 관리 가운데 기생을 더럽게 여기고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원님이 밋게 여겨 그를 유혹하여 창피를 줄 수 있는 기생이 있다면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하자 한 기생이 자청하고 나섰다. 기생은 여염집 여자로 꾸며 계락을 써서 관리를 유혹하고는 자기 집으로 오게 하였다. 주연을 파하고 동침하려는데 여자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자 여자는 당황한 척하면서 관리를 뒤주에 숨겼다. 남편은 현재 별거중이지만 자기 소유물인 뒤주를 가지러 왔다면서 운반해 가려고 하였다. 기생이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원님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하였다. 원님은 싸우지 말고 톱으로 뒤주를 나눈 뒤 한 쪽씩 가져가라고 하면서 톱을 가져오게 하였다. 톱질하는 소리가 들리자 뒤주 속의 관리는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놀란 사람들이 뒤주를 열어 보니 별

전해지지 않으며 이본 4종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골개집으로 꼽힌다. 골개집은 고려말~조선 초에 해학적 기문(奇聞)과 일화(逸話)를 들은 대로 기록한 책으로서 책머리에 양성지(梁誠之)와 강희맹(姜希孟)의 서(序)가 있다.

49)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거벗은 관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였다.⁵⁰⁾

배비장전의 작품은 19세기 조선시대를 반영하고 풍자하는 작품이다. 배비장 뿐만 아니라 제주목사와 정비장, 방자, 육방 아전 등에 대한 풍자도 들어 있다. 제주도를 떠나는 정비장은 애랑과 이별하며 자신의 모든 물건과 입고 있던 옷마저도 다 벗어준다. 마지막에는 기생에게 빠져 이까지 뽑아주는 어리석은 관리의 모습을 폭로한다. 이를 지켜 본 배비장은 여자에게 전혀 관심 없는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그를 길들이고자 계획한다. 제주 목사가 지시하고 이에 스스로 자원한 애랑과 방자가 계교를 꾸민다. 목사가 이를 돕고자 배비장과 봄놀이를 계곡을 가고 애랑은 배비장을 유혹하려고 계곡에서 온갖 교태를 부린다.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배비장은 방자가 지정한 개가죽 옷을 입고, 애랑의 집 담 구멍을 간신히 통과하여 애랑을 만난다. 하지만 애랑의 남편으로 가장한 방자의 등장에 놀라 궤 속에 갇히게 된 배비장은 자신이 바다 위에 던져진 줄로 안다. 이에 배비장은 궤 속에서 도움을 청하자, 뱃사공으로 가장한 사령들이 궤문을 열어 준다. 배비장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헤엄치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 온갖 망신을 당하고, 그의 위선이 폭로되어 추락하고 만다. 배비장전의 근원설화인 발치설화와 미륵설화 중 미륵설화에 관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배비장전(裵裨將傳)⁵¹⁾

； 배비장은 애랑의 집 담 구멍을 간신히 통과하여 애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방자가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쳐 배비장이 피신하게 되는 상황

<중략>

50) 김동욱, 동야회집,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51)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사, 1970.

케 속으로 들어간 배비장은 몸을 웅숭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계집이 케문을 닫고 쇠를 덜커덕 채우니 이제는 함정에 든 범이요, 독 안에 든 쥐였다. 배 비장은 숨이 가빠져 왔다. 이 때 나갔던 사내가 다시 들어오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눈이 저절로 감겨 잠깐 꿈을 꾸니 백발노인이 나를 불러, 네 집에 거문고와 피나무케가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액신이 붙어서 장난을 하므로 패가망신할 징조라 했다. 저 케를 불태워 버려라. 어서 쪼 한 단을 가지고 가서 불을 놓아라!”

배 비장은 탄식하였다.

“이젠 화장인가.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나.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이 때 계집이 악을 썼다.

“조상 적부터 전해 내려온 기물로 업귀신이 들어 있는 업케인데 그것을 불사르라니 안 될 말이오”

“이년아,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나는 업케⁵²⁾를 가지고 나가겠다.”

사내가 케를 덜컥 어깨에 걸머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집이 붙들고 늘어졌다.

“임자가 업케를 가져가고 나는 망하란 말이오? 이 케는 못 놓겠소.”

“그렇다면 한 토막씩 나누어 갖자.”

사내는 커다란 톱을 가지고 와서 케짝 위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52) 한 집안의 살림을 보살펴 준다는 동물이나 사람.

“자, 어서 톱을 마주 잡고 당기자”

배 비장은 더 참지 못하고 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여~ 보소, 미련도 하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하지 않소? 그 계집
에게 퀘를 다 주구려. 토막을 내면 못 쓰게 되고 말지 않소?”

그러자 사내는 톱을 내던지며 말하였다.

“아빨사! 이놈의 업귀신이 도생하여 인사가 되었으니 불침으로 찌르자.”

불에 단 송곳이 배 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퀘 속의 배 비장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서 악이라도 한 번 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눈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오?”

“에그! 퀘신이 저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걸하니 정상이 가없구나. 그 몸 상하
지 않도록 퀘를 저다가 물에다 던져 버려라”

사내는 질방을 걸어 퀘짝을 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쯤
가는데 어디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게 뭐냐?”

“업퀘요”

“그 퀘를 내게 팔아라”

“그러시오”

사내는 퀘짝을 저다가 사또가 있는 동헌 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는 듯이 말

하며 궤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다.

“궤 속 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 테니 천리 길을 떠나거라”

배 비장은 생각하였다.

‘어허 궤가 벌써 물에 뗏나보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들으니 어기어차! 어기어차!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사령들이 지어서 하는 배 젓는 소리였다.

배 비장은 소리를 질렀다.

“거기 가는 배는 어디로 가는 배란 말ियो?”

“제주 배요”

“어렵지만 이 궤를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 주오”

“궤 속에서 나는 그 소리가 이상하다. 우리 배에 부정 탈라! 상앗대로 떠밀자.”

“난 사람이니 부디 살려 주오”

“어디 사는 사람이나?”

“제주 사오”

“제주라는 곳이 미색의 땅이라, 분명 유부녀 통간 갔다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예, 옳소이다”

“우리 배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궤문이나 열어 줄 테니 해엄을 쳐서 가거라. 그런데 이 물은 짠물이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 눈을 감고 가라”

사공이 쇠를 덜커덕 열어놓자, 배 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서 두 눈을 잔뜩 감고 이를 악물고 외락 두 손을 짚으면서 허우적거렸다. 한참을 이 모양으로 해엄쳐 가다가 동헌 댕돌에다가 대가리를 부딪치니 배 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번쩍 떴다. 자세히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가 앉고 전후좌우에 관속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그 꼴이 웬일인가?"

배 비장이 어이없어 고개를 푹 수그렸다.

IV. 영제시창·시조창의 창극화 활용

1. 김교각 창극

(1) 김교각의 일화

신라의 불교 공인은 법흥왕(재위; 514~54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라불교는 중앙을 중심으로 확고해졌을 것이다. 3번째 국악 창극의 주제로 삼은 김교각은 신라의 불교공인 이후 약 150년이 흐른 697~794년의 인물로서 신라 왕족 출신의 승려 김교각이다. 김교각은 신라 성덕왕의 첫째 아들로써 속명은 중경(重慶)이다. 성덕왕이 왕이 되기 전에 맞은 성정왕후 소생으로 신라 하대의 복잡한 왕위 계승에 환멸을 느껴 당나라로 건너가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하였다고 한다.⁵³⁾

신라 왕족 출신의 김중경은 24세에 당나라에서 교각(喬覺)이라는 법명을 받는다. 당나라 비경관(費冠卿)이 813년 쓴 구화산화성기(九華산화城寺記)와 이룡(李庸)이 편찬한 구화산지(九華山志)에서 김교각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안후이성 구화산에서 화엄경을 설파하며,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았고 현재도 구화산 화성사의 지장왕보살로 섬겨지고 있다.

중국의 4대 종파불교는 오대산의 문수보살, 보타산의 관음보살, 아미산의 보현보살, 구화산의 지장보살이다. 그중 중국 국민들이 인지하는 구화산의 지장보살은 바로 김교각이다. 구화산의 원명은 구자산 또는 능양산이라 하였으나 시선 이태백이 친구의 초청으로 이곳을 찾았을 때 “묘할 손 영기가 둘로 나뉘매, 부용이 구화산을 열어 놓았도다(妙有分二靈氣 芙蓉開九華(花))” 라고

53) 사수전(謝樹田), 안경사범대학 교수, ‘등신불 김교각 스님은 신라 보길도태자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김지장이 성덕왕의 다섯 아들 중 맏이인 김수충으로 보았다’, 동국대, 『불교대학 원론총』, 제1집, 1995.

하며 아홉 봉우리 산모양 아름답기가 연꽃과 같다하여 구화산으로 고쳐 불렀다.

중국의 지장도량인 구화산은 김교각과 관련한 설화가 많이 전해진다. 김교각은 어린 시절 총명하고 마음씨가 자애로웠고 학문을 즐겼다. 독서를 좋아해 불교의 경전과 천문지리에 밝았으며, 청년시절에는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7척이며 힘도 세어서 열 사람도 당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8세에 당나라로 유학하여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고승대덕을 찾아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는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가면서 선청(善聽)이란 삽살개와 황립도(黃粒稻; 벼씨), 금지차(金地茶)⁵⁴⁾라는 차 종자, 신라 송이라는 잣 열매와 조 씨앗 등 다섯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전한다.

김교각과 관련한 설화의 인물로는 낭랑이 등장한다. 낭랑은 평민계급인 2두품 집안의 여식으로 몇 백리 밖까지 소문 날 정도로 미모가 뛰어 나고 효심과 불심이 깊었다고 한다. 낭랑이 김교각에게 사랑의 징표로 준 개가 바로 흰 삽살개인 ‘선청’이다. 고승대덕을 만난 후 김교각과 삽살개인 선청은 수행의 길을 떠난다. 이후 10여년 만에 신비에 쌓인 구화산을 수행처로 삼게 된다.

구화산을 오르던 김교각은 동굴(지장고동)을 발견하고 수행에 들어가고 그 옆을 선청이가 지킨다. 수행 중에 미녀와 사악한 요괴 및 독사의 위협에도 김교각은 흐트러짐 없이 수행에 정진한다. 김교각의 신심에 감동한 산신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 마실 샘물을 만들어 주는데 이 샘물이 바로 용녀천(龍女泉)이다. 오용지(誤用之)가 유람을 왔다가 동굴에서 수도하는 김교각을 만난 후 감동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쌀을 바치고 산을 내려갔다는 일화도 전하고 있다.

어느 날 구화산의 소유주인 민양화(閔讓和)와 아들 도명(道明)이 김교각이 수행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 민양화가 김교각의 수도할 땅으로 구화산을 김교각에게 받친다. 후에 민공의 아들 도명도 불법에 귀의하여 지금까지도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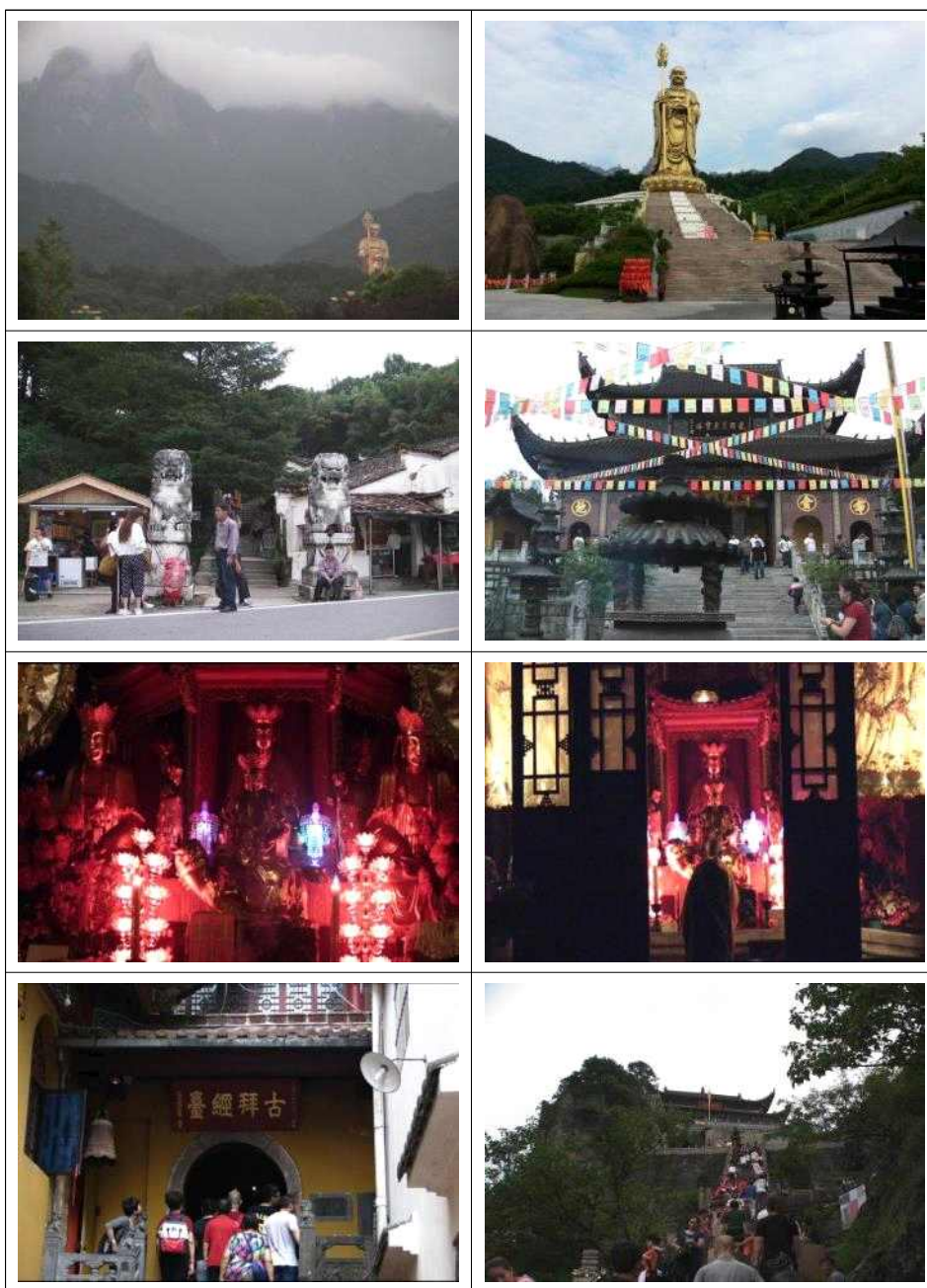
54) ‘줄기 속이 가는 대나무처럼 비어 있으며, 김지장이 신라에서 가져온 종자에서 싹튼 것이다(金地茶 梗空如篠 相傳金地藏攜來種), 이 차는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직접 가져간 차씨로 구화산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구화산지(九華山志), 제8권, 금지차(金地茶).

성사 구화전의 지장보살 좌우에는 민공과 도명이 시봉하고 있다. 당나라에서 안녹산의 난(755~763)이 일어나 전국이 황폐해지자 김교각은 제자들과 함께 개간한 논에 황립도를 심어 가난한 백성의 살길을 개척하고 금지차를 재배하도록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김교각의 모친은 그가 신라로 돌아오길 바라며 숙부인 소우(昭佑)와 소보(昭保)를 보냈으나 오히려 그에게 감응되어 출가하였다. 김교각은 두 삼촌을 위해 이성전(二聖殿)이라는 원찰을 세웠다. 김교각의 모친이 아들을 보고자 구화산을 찾아오고, 그는 노모의 아픈 눈을 지극정성으로 씻기어 낮게 되자, 그 우물을 명안천(明眼泉)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편 김교각을 사랑한 낭랑은 노파가 되어 구화산을 찾았으나 김교각은 이미 성인의 반열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대신하여 월아지에 방생하듯 몸을 던졌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김교각의 나이 99세, 7월 30일에 “내 육신은 썩지 않을 것이니 3년 후 등신불로 짓고, 누구든지 삼존불을 참배하고 지장왕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서원을 나의 서원으로 실천하는 이는 업장을 소멸하고 세상을 비추리라!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라는 유언법문을 남기고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고 한다. 김교각이 입적하자 산이 울고 돌이 떨어지고 천둥이 쳤으며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제자들은 육신에 금분을 입히고 3층 석탑을 세웠는데, 탑의 밑부분에서 광기가 뿜어져 이를 신광령(神光岑)이라 불렀다. 1925년에 탑의 내부를 열었을 때에도 그 모습은 여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김교각의 등신물은 지금 월신보전(月身寶全)내의 겹탑 안에 보전되어 있다. 이처럼 김교각과 관련한 일화 또는 설화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소개한 내용은 국내 보다 중국에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림 30> 중국 구화산 김지장왕보살 현지 탐방 1



<그림 31> 중국 구화산 김지장왕보살 현지 탐방 2

(2) 창극의 시창과 시조창

1) 시창

김교각의 국악 창극에 활용된 한시는 3수이고 시조시는 1수이며, 이중 김교각의 한시 2수이다. 국악 창극에 발표한 한시의 제목은 월야침향로, 수혜미, 소사미하산, 한시를 시조시로 번안한 황립도이다. 김교각의 창극화에 이용된 한시는 다음과 같다.

① 월야침향로

당시 신라에서 당나라로 유학간 승려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 중 김교각(696~794)과 동시대 인물로 혜초 스님(慧超; 704~787)을 꼽을 수 있다. 김교각이 24세 때인 서기 720년, 당나라로 수행의 길을 떠났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혜초 스님 또한 어린 나이인 16세 때 당나라를 거쳐 천축(인도)을 여행하고 돌아와 인도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겼다. 이 시는 혜초 스님이 힘든 여정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은 오언율시로써,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 전해진다. 김교각의 창극화에서는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향에서 온 신라의 승려를 만난 기쁨과 서로를 위로하며 잠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를 감상한다.

월야침향로(月夜瞻鄉路)

혜초

월야침향로(月夜瞻鄉路) 부운삽삽귀(浮雲颯颯歸)
함서참거편(緘書參去便) 풍급불청회(風急不聽廻)
아국천안북(我國天岸北) 타방지각서(他邦地角西)
일남무유안(日南無有雁) 수위향림비(誰爲向林飛)

[해석] 달밤에 고향 길을 보며
달 밝은 밤에 고향 길을 바라보니
뜬 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 가네

편지를 봉하여 구름 편에 보내려 하나
바람은 빨라 내 말을 들으려고 돌아보지도 않네.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 끝 서쪽에
해가 뜨거운 남쪽에는 기러기가 없으니
누가 내 고향 신라에 소식을 전해 주리

嶺制詩唱, 월야침향로(月夜瞻鄉路)

월야첨향로(月夜瞻鄉路)하니	부운삼삼귀(浮雲颯颯歸)하니
함서참거편(緘書參去便)하나	풍급불청회(風急不聽廻)하니
아국천안북(我國天岸北)하고	타방지각서(他邦地角西)라
일남무우안(日南無有雁)하니	수위향림비(誰爲向林飛)하니

[illegible]

<그림 32> 영제시창 중 ‘월야첨향로(月夜瞻鄉路)’

② 수혜미

다음으로 소개하는 수혜미는 오용지(吳用之)가 김교각의 용맹정진하는 모습에 감명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쌀을 보시한다. 이에 김교각은 고마운 은혜에 보답하는 시를 지어 전한다. 이 시에서 ‘원신자시서왕자(原身自是西王子)－이 몸은 원래 서쪽나라 왕의 아들’이라 밝힘으로써 김교각은 신라의 왕자였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긴 시이다.

수혜미(酬惠米)

김교각

기각금란납포의(棄却金鑾納布衣) 수신부해도화서(修身浮海到華西)
원신자시서왕자(原身自是西王子) 모도상봉오용지(慕道相逢吳用之)
미감고문구타어(未敢叩門求他語) 작도송미속신취(昨叨送米續晨炊)
이금식식황금반(而今殖食黃金飯) 복포망사전일기(腹飽忘思前日飢)

[해석] 은혜로운 쌀에 감사하면서

좋은 수레 버리고 배옷 걸친 뒤

수행하러 바다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네

이 몸은 원래 서쪽 나라 왕의 아들

도에 정진하다 오용지란 이를 만났네

가르침을 묻고 구하는 것만도 아직 황송한데

오늘 외람되이 새벽에 밥 짓는 쌀을 보내오시어

이제야 좋은 밥 지어 저녁으로 먹을 제

배부르다하여 지난날의 굶주림을 잊지 않으리

수혜미(酬惠米)

수신부해도화서(修身浮海到華西)

원신자시서왕자(原身自是西王子) 모도상봉오용지(慕道相逢吳用之)

미감고문구타어(未敢叩門求他語) 작도송미속신취(昨叨送米續晨炊)

이금식식황금반(而今殖食黃金飯) 복포망사전일기(腹飽忘思前日飢)

[illegible]

<그림 33> 영제시창 중 ‘수혜미(酬惠米)’

③ 송동자하산 (送童子下山)

일명 소사미하산(少沙彌下山) 이라고도 한다. 김교각은 시자 도명과 찻물 끓이는 일을 할 어린 동자승 사미를 데리고 화성사에서 남대 암자로 올라가 차발을 일구며 말년을 보낸다. 하지만 동자승 사미는 자신을 절에 맡기고 간 어머니를 매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픈 김교각은 동자승을 큰 수행자로 키워보고 싶었던 마음을 접고 동자승을 고향으로 내려 보낸다. 동자승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애틋한 심정을 담은 시이다. 이 시는 『당시집(唐詩集)』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연구자는 8구로 된 이 시를 둘로 나누어 창극화하였다. 첫째, 1구~4구는 동자승을 보내는 김교각의 애틋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 이를 극화를 통해 연출하였다.

송동자하산(送童子下山)

김교각

공문적막여사가(空門寂莫汝思家) 예별운방하구화(禮別雲房下九華)
애향죽란기죽마(愛向竹欄騎竹馬) 나어금지취금사(懶於金地聚金沙)

[해석] 동자를 보내며

절집이 적막하기만 하여 옛집을 그리더니

구름 머무는 곳 이별하고 구화산을 내려 가는가

난간에 기대어 죽마(竹馬)타던 어린 시절 그리워하더니

금(金) 같은 불도(佛道)의 땅도 너를 붙잡지 못하는 구나

둘째, 5구~8구는 최초의 차시(茶詩)라 할 수 있다. 김교각은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가면서 가지고 간 다섯 가지 중 금지차라는 차 종자를 구화산 자락에 재배하였다. 현재도 김교각의 등신불이 모셔진 중국 구화산 일대에는 김교각이 재배한 금지차 외에는 다른 차 종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연구자 또한 현지에서 직접 가지고 온 금지차를 창극화하면서 찻물을 우려내고 배우와 창자를 통해 현장감 있게 재현하였다.

- 노승은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벗 하리 -

김교각

첨병간저휴초월(添瓶澗底休招月) 팽명구중과농화(烹茗甌中罷弄花)
호거불수빈하루(好去不須頻下淚) 노승상반유연하(老僧相伴有煙霞)

[해석]

노승은 고요한 산수의 경치를 벗 하리
단지 속의 물엔 밝은 달 찾아올 일 없겠고
차 닳인 단지에는 꽃 필 일 없겠네
서운해 눈물 흘리지 말고 잘 가거라
노승은 안개와 노을을 벗 하리

嶺制詩唱， 송동자하산 (送童子下山)

공문적막여사가(空門寂莫汝思家) 예별운방하구화(禮別雲房下九華)

애향죽란기죽마(愛向竹欄騎竹馬) 나어금지취금사(懶於金地聚金沙)

첨병간지휴초월(添瓶澗底休招月) 팽명구중파농화(烹茗甌中罷弄花)

호거불수빈하루(好去不須頻下淚) 노승상반유연하(老僧相伴有煙霞)

[illegible]

<그림 34> 영제시창 중 ‘송동자하산 (送童子下山)’

2) 시조창

다음으로 소개하는 이지세가 지은 황립도는 안녹산의 난으로 인해 백성의 삶이 황폐해지자 중생구제에 대한 염원이 컸던 김교각이 친히 제자들을 이끌고 물길전답을 개간하고 신라에서 가져온 벼씨, 즉 황립도를 심어 백성에게 농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황립도(黃粒稻)

이지세

금률원래시불종(金栗原來是佛種)	승운이식자수방(僧云移植自殊方)
산금미감함유립(山禽未敢銜遺粒)	향발선경공법왕(香鉢先擎供法王)

[해석] 벼씨

금빛 낱알 불가의 식량이라네

중이 이르는 말, 이국(신라)에서 옮겨 왔다네

산새들도 떨어진 낱알 감히 못쫓으노니

바리때에 담아 법왕한테 올리네

[illegible]

<그림 35> 영제시조창 평시조 중 ‘황립도(黃粒稻)’

(3) 극본

김교각의 일대기 및 설화와 관련하여 그의 일대기를 극화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각본은 김교각의 탄생에서 입적까지에 대하여 문헌과 설화를 통해 구성하였다. 각본을 구성한 후 김교각의 국악 창극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김교각과 관련한 한시를 시창·시조창으로 각본에 삽입하였다.

제1막 제1장/중국 구화산 화성사를 찾는 관광객.

불교성지 사찰 안에 큰 탑, 스님 20여 명이 목탁소리에 맞춰 염불을 한다. 통달의 염원이 담긴 염불소리가 웅장하게 무대를 매우고 커다란 보리수나무에 오색천이 사방으로 뻗어 있다.

스님들; (장엄염불; 영인 스님)

경주에서 온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장보살을 친견하고자 중국 구화산 화성사에 당도했다.

관광객7; 와아~ 여가 바로 중국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구화산이까?

관광객2; 카아~ 산세도 웅장하고. 저기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장보살님 친견하러 온 사람들 아입니까.

관광객1; 그래. 하루에만도 수천명이 온다~ 안카나.

관광객3; 그 말로만 듣던 오체투지를 이곳에 와서 보니. 내 마음도 굉장히 경건해 지네.

관광객4; 있잖아요, 지금 동남아 한류스타 1위가 누군지 아는교?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 이라카네요. 김교각!

관광객5; 근데 김교각이 어느 나라 사람인데?

관광객6; 이런 무식한... 찌쭈...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 그것도 신라의 왕자란 말일세. 하긴 자네만 탓할 게 아니라 사실 나도 관광오기 전에 사

전 답사겸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어. 경주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일세.

관광객5; 아이고, 마 미안 합니데이~

관광객7; 그건 자네 말이 맞네. 저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김지장 보살님의 고향이 경주 아닌가. 중국에는 4대 불교성지가 있는데, 오대산의 문수보살, 보타산의 관음보살, 아미산의 보현보살, 구화산의 지장보살 바로 김교각 스님이라네. 더구나 그 4대 불교성지에 모신 4대 보살 중 유일하게 실존했던 승려이자 석가모니부처님과 유사한 행적을 보이신 실존인물이라는 거지.

관광객들; 와~~(박수)

관광객2; 제자들앞에서 홀연히 입적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몸이 썩지 않아 그대로 등신불로 만들어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육신보전 삼층석탑에 모셔져 있다 아입니까.

관광객8; 근데 막상 구화산에 와보니 유난히 습하고 온도도 높고 안개도 많은데 김교각 스님에 이어 1300년 동안 아홉 등신불이 출현했다니... 이거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어려울 만큼 너무 신비롭지 않은가.

관광객6; 구화산은 99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많다는 구만. 봉우리가 99봉이요 산길도 99굽이, 계단도 99계단이라네. 그런데 김지장 보살님은 다른 문에 사용하지 않고 월신보전 북쪽에 있는 99계단으로만 출입을 하셨다카네.

관광객7; 그것도 그럴 것이 구화산에서 바라보면 신라가 북쪽에 있기 때 문이라지 않턴가. 그만큼 김지장 보살님도 고향산천이 그리웠던게지. 자~ 우리 이렇게 입담만 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세.

관광객들; 가보자.

- 암 전 -

제1막 제2장 / 왕자의 탄생.

신라 (서기696년) 무대 조명 전환-과거.

고수해설/자막; 신라 왕족출신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으니, 아이의 이

름은 교각(喬覺)이라! 열쑤! 교각 스님의 학명은 수충(守忠)이라,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마음씨 또한 자애로웠으니! 학문을 즐겨 불교의 경전과 천문지리에 밝았으며, 청년시절에는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7척에다 힘도 세어서 열 사람도 당하지 못하였다.

신하들; 왕자 애기씨 탄생이요! 왕자 애기씨 탄생이요!

신하1; 폐하!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왕자 애기씨가 태어났사옵니다~

신하2; 폐하! 이 나라에 경사가 났습니다.

신하3; 예, 폐하 그리 하옵니다, 폐하~

상수 쪽을 바라보며,

신하4; 경하 드리옵니다. 폐하~

신하5; 경축 드리옵니다.

무대 상수에는 막 해산한 왕비와 왕이 사내아이의 탄생에 기뻐하며 서로를 다독인다.

왕; 하하하! 다들 고맙소. 이 나라 종묘사직이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요,

신하6;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왕; 여봐라~ 내 오늘은 세상을 가진 것이나 진배없으니 성대하게 잔치를 열 것
이야! 오늘 하루는 이 나라 어느 땅에도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도축장에
가축을 풀고! 신라의 백성들이 고기와 술 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고 연회
를 베풀도록 하시오,

신하들; 폐하~!

신하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부채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무희들, 음악이 끝나자.

- 암 전 -

제1막 제3장/왕권다툼에서 밀려난 왕자

서기 714년, 김교각 스님은 18세에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고승대덕을 찾아다니며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717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귀국하였다. 동생이 태자로 책봉되었다. 신라왕실에 싸움이 벌어져 어머니는 폐위되어 김교각 스님과 함께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당시 삼국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왕족세력과 외척세력간의 권력 암투가 횡행하였다,

무대 상수, 신라 - 권력의 암투로 벌어지는 고위대신들의 치열한 왕권다툼

대신1; 폐하! 삼국이 통일을 이루긴 하였으나 더욱이 신라의 왕권을 굳건히 하셔야 마땅하옵니다.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를 외세에 대비하여 성벽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불안한 정세를 친히 굽어 살피주시옵소서!

대신들; 굽어 살피소서 폐하!

대신2; 폐하! 외세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나, 더욱이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가에는 비단길을 통해 중국과의 밀매업이 성행한다 하옵니다. 폐하! 이에 서라벌의 진골귀족들에게 사치금지령을 내리시고! 세금징수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왕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신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 그대는 과인의 안의는 꾀이치 않소?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요?

대신3; 저희들은 전하의 안위와 이 나라의 국정안정을 위해,

왕; (격분) 국정 안정을 말하는 것이요!! 국정안정을 위해! 조정대신들이 한 목

소리를 내어 왕자를 쫓 밖으로 몰아내고! 정사를 이유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들; 폐하~!

왕; 그만! 그만 하시오! 나는 왕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지아비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오! 어찌 대신들은 국정을 농간하여 권세를 쥐려 하시오!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시오!

대신2; 폐하! 굳건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태자저하의 뜻이질 않으셨습니까!

대신들; 폐하! 굳건하시옵소서.

왕; 이 모든 것이... 태자의 뜻이라~ (허탈한 웃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대신들 앞으로 힘없이 걸어 나온다.

왕; 그 어린 것이, 이치열한 진흙탕에 발을 담지 않은 것이, 다행이오,

대신들; 폐하! 폐하!

조정대신들과 왕이 모인 궁궐 안, 조명 서서히 어두워지면... 무대 하수, 폐위된 어머니를 모시고 궁을 떠나는 김교각.

어머니; 왕자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왕자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교각; 아닙니다. 어머니! 소자 권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상하시지나 않을까 염려되었습니다.

어머니; 심려 마십시오, 오히려 이 어미를 염려해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교각; 어머니! 송구스럽사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권력의 암투에 밀려나 쫓 밖으로 쫓겨 난 이 어미가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각; 어머니! 아무런 염려마시고 쫓 밖의 하루하루도 편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권력을 손에 쥐는 것 보다 만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불법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왕자의 뜻이 그러하다면 마음 가는대로 정하십시오.

교각; 어머니.

승 무

- 암 전 -

제1막 제4장/낭랑과의 이별.

신라 황룡사(초파일 달밤_낭랑의 꿈)

무대, 연등아래 탑을 돌며 탑돌이 노래하는 무리가 보인다. 그 속에 아리따운 여인 낭랑이 보인다. 낭랑은 평민계급인 2두품 집안의 여식으로 몇 백리 밖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고 효심과 불심이 깊었다.

낭랑; 비나이다. 비나이다. 변방에 나가 축성일에 부역하는 아버지가 무사 귀환하시기를 비나이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쾌차하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낭랑에게 뛰어오는 김교각.

교각; 낭랑아, 너의 소원이 이뤄질 것이다.

낭랑; 왕자님이 그걸 어찌 장담하십니까?

교각; 너의 효심과 불심이 이리도 지극한데 어찌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느냐. 진심을 다해 이렇게 밤낮으로 불공드리는 너의 정성은 분명하늘이 응답할 것이다.

낭랑; 제가 왕자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교각; 선물이라니?

낭랑;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낭랑은 흰 삽살개 한 마리를 데려온다.

낭랑; 이 삽살개는 말을 잘 듣는다는 뜻으로 제가 선청(善聽)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왕자님의 좋은 벗이 될 것입니다.

교각; 그래, 나의 좋은 벗이 될 것 같구나.

사랑의 징표로 삽살개를 선물한 낭랑은 밝게 웃으며.

낭랑; 왕자님, 소녀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교각; 너의 소원은 무엇이나?

낭랑; 소녀의 꿈은. 소녀의 꿈은.

김교각은 낭랑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심중의 뜻을 낭랑에게 전하려 한다.

교각; 낭랑아, 나는 출가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큰스님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는데 인생을 바칠 것이니라.

낭랑; 소녀의 꿈은 꿈은...

집사가 나와 교각을 부른다.

집사; 왕자님, 이만 가셔야할 시간이 옵니다.

교각; 낭랑아, 내 너의 꿈도 꼭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기도하겠느니라.

집사와 함께 퇴장하는 교각,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낭랑은 말을 이어간다.

낭랑; 왕자님, 소녀의 꿈은. 지아비를 곁에서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가까이 모시지 못할 운명이라면 죽어서라도 님 가까이 남겠습니다. 부디 건강 하십시오.

제1막 제5장/수행의 길을 떠나는 김교각(서기 720년, 24세)

고수해설; 당나라 유학길에 접한 불교경전들과 사상들이 마음깊이 와닿았던 교각은 왕실의 정치적인 암투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수행의 길 즉 신라를 떠나 구도생활을 결심한다.

교각; 의상대사 법성계종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이라,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들어있다. 한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이다.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일체진 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하나의 먼지에 우주가 다 들어있고, 모든 먼지 하나하나 안이다 그러하다했지 않았던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넓은 해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으리라.

굳은 결심으로 짐을 싸고 있는 교각의 옆으로 고승대덕이 다가온다.

고승대덕; 떠날 차비는 다 하셨습니까?

교각; 네, 스승님.

고승대덕; 어디로 떠날 겁니까?

교각; 당나라로 갈 것 입니다.

고승대덕; (옆에 놓인 짐을 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각; 법씨와 금지차, 신라 송이라는 잣 열매와 조 씨앗입니다.

고승대덕; 씨앗이라니요?

교각; 네, 생물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척박한 곳에서는 푸른 싹이 돋지 않고 물이 융통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다섯 가지 생물자원은 생명의 근원이 담겨있으니 이것들을 지니고 간다면 씨앗의 의지를 깨닫고 제 아무리 험준한 고비가 맞닥처도 생사의 고비에서 버티려 하지 않겠습니까.

고승대덕; 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디서든 귀한 대접을 받는 법. 혹시 압니까?

범씨에서 보리수가 자랄지, 허허허허~
교각; 스님, 감사합니다. (합장)

흰 삽살개 선청이가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나와 교각에게 달려든다. 삽살개의 머리를 쓰다듬는 교각.

선청; 월월~~
교각; 이 녀석.
선청; 월월월~~
교각; 너도 따라 가고 싶어 이러는 것이냐?
선청; 아~우~~!
교각; 그래, 같이 가자꾸나. 그런데 힘든 수행의 길이 될 것이다.
선청; 월월월~~
교각; 선청아, 내 너를 뜻 맞는 좋은 친구이자 함께 도를 구하는 도반으로 여길 것이다. 앞으로 나의 수행을 돕는 신장이 되어다오.
선청; 월월월~~
동자승; 선청이를 데리고 가십니까? 선청이랑 정이 많이 들었는데.. 선청아, 지장스님 잘 모시거라.
선청; 월월~~
고승대덕; 보십시오. 선청이도 한 수 뜨지 않느냐. 이 녀석이 불도가 센 모양이야. 데리고 가서 더 큰 세계를 보여 주십시오. 먼 길에 벗이라도 동반하면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데리고 가서 불경이라도 가르치십시오. 하하하하.
선청; 월월월~~
고승대덕; 하하하하!

선청은 신이 나서 교각의 주위를 방방 뛰고 구른다.

고승대덕; 녀석, 신이 난 게지.

교각이 마음먹고 선청의 등에 자신의 붓짐을 메 주자,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오르는 선청이의 모습을 보고 교각과 고승대덕이 웃는다.

고승대덕; 당나라 어디에 가서도 불법의 깊은 뜻을 깨닫고 부디 큰스님 돼서 성불하십시오.

교각; 스승님.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고승대덕;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승대덕이 합장하고 교각을 배웅한다. 선청은 교각을 앞장서서 수 천만리 길의 여정을 이어간다.

- 암 전 -

제2막 제1장/구도의 길에서 만난 혜초 스님.

눈이 내리는 무대 중앙. 양자강 하구, 에 위치한 안휘성 무호시 남령현, 절강성 등을 돌며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구도의 길로 접어든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났다.

교각; 선청아,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선청; 월월월~

스님과 선청이 쉬고 있는 곳으로 옷은 남루하지만 아주 해맑은 미소를 띠며 젊은 스님(혜초; 704~787) 한 분이 다가온다.

혜초;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이 깊은 산중에서 이렇게 스님을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같이 쉬어도 되겠습니까

까?

교각; 허허. 그렇게 하십시오.

혜초; 스님 옆에 있는 흰삽살개는 굉장히 영리해 보입니다.

교각; 선청이라고 합니다. 나의 수행을 돕는 좋은 벗입니다. 허허. 근데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혜초; 신라에서 온 혜초라 하옵니다.

교각; 어허~~ 이럴 수가. 머나먼 타국에서 고향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허허. 저는 김교각이라 하옵니다.

혜초; 저 또한 더더욱 반갑습니다, 스님! (스님의 행색을 살피며) 깨달음을 얻고자 고국을 떠나 타국을 떠 돈지도 몇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수행이 부족하여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면 떠난 저의 고향신라가 그리워 시로써 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교각; 타국에서의 그리움이라. 어디 그 시 한 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긴다)

혜초; 그러면 고국에서 오신 스님의 마음까지도 담아 제가 지은시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교각; 어찌 이리도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고국은 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습니다. 스님의 고귀한 시 한 수를 잘 들었습니다. 스님의 해맑은 미소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 허허.

혜초; 네, 스님. 부디 성불하십시오.

교각; 스님 부디 넓은 해안을 가지시길.

제2막 제2장/구화산에 도착한 김교각 스님(서기 730년).

드디어 고국을 떠나 구도생활을 한 지 10년 만에 신비에 쌓인 구화산을 발견하는 교각과 선청이.

교각; 여기구나. 선청아. 우리가 고국을 떠나 온지 10년이나 되었구나,

선청; 월월월~

교각; 신비에 쌓인 구화산에 우리가 머물 곳이 여기구나.

한참을 산에 오르던 지장스님, 눈앞에 펼쳐진 동굴(지장고동(地藏古洞) 지장스님이 수도한 옛 동굴이란 뜻)에서 넋을 잃고 걸음을 멈춘다. 한 걸음씩 동굴로 걸어가는 교각스님.

교각; 선청아, 지금부터 이곳에서 터를 잡고 수행할 생각이다. 어떠하냐.

선청; 월월월~

교각; 너석, 반응이 참 격하구나.

선청; 월월월~

제2막 제3장/수행에만 전념한 김교각 스님.

안개 자욱한 새벽, 손발은 짐승처럼 주름 잡히고 거칠어졌으며, 머리는 삭발한지 오래되어 봉두난발이 되고 동굴 안 조명이 켜지면 참선하는 교각의 모습이 보인다. 연기와 함께 등장하는 미녀, 동굴 안에서 참선하는 교각을 확인하고는 시 한 구절을 읊조린다.

미녀;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가? 마음을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말아라 생각이 다하여 무념처에 이르게 되면 육문에서 항상 자금광이 빛났음을 알리라.

미녀의 목소리가 동굴 안까지 울리자 교각이 참선을 멈추고 소리에 이끌린다.

교각; 산집 고요한밤 말없이 앉았으니 고요하고 고요해서 본래 이러하구나. 무슨 일로 서풍은 잠든 숲 깨워 한 소리 찬 기러기 장천을 울며 가는고.

미녀; 꽃피는 옛 절문 오래 닫혔고 봄 따라온 나그네 돌아갈 줄 모른다. 바람은

등우리의 학 그림자 흔들고 구름은 앓은 중의 옷깃 적신다.
교각; 티끌 같은 이 마음 다샘 하고 큰 바다 저 물을 다 마시고 허공 끝 헤 아
리고 바람 묶는다 해도 부처님 공덕은 능히 다 말할 길 없네.

미녀가 고운 자태를 뽐내며 교각의 마음을 홀리려 한다. 교각은 여인의 몸
짓을 보고 지옥 불에서 온 요괴임을 짐작한다.

교각; 어찌 요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가.
미녀; 악행이라니요! 소녀는 오로지 이네 마음을 달래줄 쾌락을 즐길 뿐 이지
요.
교각; 미미한 그 쾌락이 인간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고통을 준다
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미녀;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호. 호. 호. 호.
교각; 어서 지옥불로 돌아가시오.

요괴들의 춤

미녀; 스님, 그 염불소리는 집어치우고 고된 수행의 길을 어서 멈추시고 그만
돌아가시지요.
교각;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공덕이니 한낱 미물인 요괴가 어찌
수행의 길을 막으려 하는게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요괴들의 춤

교각; 정녕 물러나지 못한단 말이요!
미녀; (웃음) 호. 호. 호. 호.

요괴들의 춤

교각;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로움으로 지옥불로 인도하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과 함께 염주를 날린다.

미녀; 아아 악~~~

- 암 전 -

제2막 제4장/오용지와 의 만남.

고수해설/자막; 독사에 물려도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수행에만 전념하니 지장의 신심에 산신이 감동하여 바위에 구멍을 뚫어 샘물이 솟구치게 하니 마실 물을 만들어 주었다. 바로 용녀천(龍女泉)이다. 구화산 천대봉에 오른 지장스님은 시간을 잊고 화엄경을 독송하였는데, 얼마나 열중해서 경을 읽었는지 바위위에는 지장스님의 큰 족적이 생겼다. 현재 보존되어 있으며 배경(경전을 바치는 정신)정신을 알리기 위해 이름을 고배경대(古拜經臺)라 하여 김교각 스님이 화엄경을 외면 관음보살이 감동했다고 한다.

구화산 산기슭에 살던 ‘오용지(吳用之)’가 구화산을 유람 왔다가 동굴 속에서 수도하는 스님을 보게 된다. 이 추운 날씨에 남루한 배장삼 차림에 추위를 달랠 그 무엇도 없는 가운데 스님의 발우에는 백토(하얀 흙)와 소량의 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본다. 오용지가 인사하자 합장하는 교각.

오용지; 스님, 저는 이 산기슭 아래에 살고 있는 오용지라 하옵니다. 스님의 수행소식을 접하고 찾아 헤메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용지; 스님, 어찌 이리도 열악한 장소에서 제대로 끼니도 드시지도 못하고 수

행하시는지요?

교각; 육신이 앓은 곳이 무엇이 중하여 진수성찬 같은 곡기를 뱃속에 들 무엇이
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용지; 그래도 이 추운 날씨에 삼베장삼에 백토로 끼니를 때우며 수행정진 하
시다니요?

교각; 일체유심조라 인간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오용지; 스님, 그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요?

교각;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법이요 선을 행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이지요.

오용지; 스님 스님의 법문 감사드립니다(본인의 짐을 풀며)스님 이것은 제가
가지고온 쌀입니다, 이렇게 스님께 받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교각; 성불하십시오, 불자님.

오용지; 제가 오래 머물면 수행에 방해되오니 이만 물리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 스님.

서로 인사를 나눈 김교각 스님은 사라져 가는 오용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직접 시를 지어 은혜에 답한다.

교각; 좋은 수레 버리고 배옷 걸친 뒤

수행하러 바다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네

이 몸은 원래 서쪽 나라 왕의 아들

도에 정진하다 오용지란 이를 만났네

가르침을 묻고 구하는 것만도 아직 황송한데

오늘 외람되이 새벽에 밥 짓는 쌀을 보내오시어

이제야 좋은 밥 지어 저녁으로 먹을 제

배부르다하여 지난날의 굶주림을 잊지 않으리

이어 음악과 함께 쌀자루를 든 여인들이 스님 앞에 공양을 올리며 시창이 이어진다.

은혜로운 쌀에 감사하면서(酬惠米)

창이 끝나고 서서히 무대가 어두워진다.

- 암 전 -

제2막 제5장/민양화와 도명과의 만남.

스님께 감동한 오용지는 마을에 내려와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다. 구화산은 민씨의 소유이다. 당시 그 집안의 가장은 민양화(閔讓和)인데 그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그런 그를 민공(閔公)이라 부르며 존경하였다. 그는 신실한 불자로서 많은 스님을 초청하여 재회(齋會)를 열곤 하였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소유인 구화산에서 김교각 스님의 수행 소식을 접하게 된다. 민양화는 아들 도명(道明)과 함께 구화산을 찾는다. 김교각 스님과 마주한 민양화 부자.

민양화; 스님 성불하십시오, 스님! 이구화산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크나큰 산입니
니다 이집은 산중에서 중생들을 구도해 주기위해 수행하시는 스님의 소
식을 접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각; 어서 오십시오, 불자님.

민양화; 스님, 제가 도와 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교각; 모든 이웃을 복되게 할 절을 짓고자 하니 수도할 땅을 주십시오.

민양화; 하하. 그 일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화산 아

흔아홉 봉우리가 다 제 소유이니 원대로 하십시오.

교각; 이 가사(袈裟)가 덮는 만큼의 땅을 원합니다.

민양화; 가사가 덮을 만큼의 땅이라.

김교각이 입고 있던 가사를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어디에서 네마리 봉황이 날아와서 가사를 물고 날아가서 구화산 99봉을 모두 덮어 버렸다. 민공은 보살현령을 깨닫고 구화산을 스님께 바쳤다. 후에 민공의 아들 도명(道明)과 민공 역시 삭발하여 불법에 귀의하여 지금까지도 구화전 지장보살상 좌우에서 시봉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용지를 비롯하여 청양현의 장자 제갈절, 주민들과 함께 돈과 힘을 시주해 구화산의 첫 사찰인 화성사를 짓게 되었다.

창작무용

제3막 제1장/안녹산의 난(서기 755~763년)

무대, 화성사 사찰 세트가 들어온다. 약탈과 방화, 살인 등 전국적으로 황폐화 되는 당나라 모습.

교각; 성불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 일터인

데. 이 황폐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마음 둘 곳이 없으니 근심입니다.

마을사람1; 스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을사람2;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방도가 생기지 않겠사옵니까,

교각;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법.

마을사람3;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마을사람4; 불경과 불력, 덕행이 높은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교각;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이니 어찌 뜻을 거스르겠는가. 허나 먹을 것이 부

족하여 수많은 고초와 고행을 겪어야 될것이요,

마을사람5; 도적들의 횡포가 이리도 심하니 그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교각이 무명천에 쌓인 씨앗을 제자들에게 내민다.

교각; 자~

마을사람6; 이것은 씨앗이질 않사옵니까?

교각; 별씨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마을사람7; 스님!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교각;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일 것입니다. 수행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십시오.

마을사람들; 예, 큰스님.

교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대 한편, 제자들을 이끌고 개간된 논에 화립도(黃粒稻)를 심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살 길을 몸소 개척하고 가르쳐 주는 김교각의 모습, 구화산 자락에는 금지차(茶)를 재배하는 제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지세; 황립도의 시

제3막 제2장/노모와의 만남.

이어 음악이 흘러나오고 시조창이 이어진다. 김교각 스님의 명성은 고국인 신라에까지 전해졌다. 스님의 모친은 아들이 신라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김교각 스님의 숙부인 소우(昭佑), 소보(昭保)를 보낸다. 하지만 오히려 지장스님의 존경심에 감흡되어 현지에서 바로 출가하였다. 후에 김지장 스님은 이 두 삼촌을 위해 이성전(二聖殿)이라는 원찰을 세웠다. 당나라로 보낸 두 숙부마저 돌아오지 않자, 김교각 스님의 모친은 죽기 전에 한번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자 노구를 이끌고 신라에서 배를 타고 구화산으로 오게 된다. 여정이 험난했던 만큼 노모는 기력 또한 거의 소진된 상태였다. 드디어 구화산 화성사에 도착한 노모, 아들 김교각 스님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간다.

노모; 스님.

교각; 어머니, 어찌 그 먼 길을 오셨습니까?

노모; 이 어미는 죽기 전에 꼭 우리 아들 스님의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길은 그리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어미와 함께 신라로 돌아갑시다.

교각; (어머니를 부축하며) 어머니, 나를 믿고 정진하는 수백수천의 수행자들과 신도들이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어찌 법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효는 무조건 부모의 뜻을 따르기보다 부모를 성불로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모; 우리아들, 스님! 그리하면 이 어미는 어찌하면 종단 말입니까? 이 어미는 속세와의 인연은 어찌 이리도 질긴지!

교각; 어머니,

부모은중경창곡

혜인⁵⁵⁾

이세상에 어떤사람 가장귀한 부자인가
이세상에 어떤사람 가장궁한 가난인가
부모님이 살아계심 가장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계심이 가장궁한 가난일세
부모님이 계실때는 마음든든 편안터니
부모님이 떠나시니 온세상이 텅비었네

부모은혜 중해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사랑 깊어도 떠나고야 마네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되면 뿔뿔이 흩어지누나

세월이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건만

55) 혜인(1943~2016), 경북 영천 은해사 조실로 세수 75세, 법랍 62세, 그의 부모은중경 법문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불자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사랑뿐이로다.
살아생전에 못 다한 효도를 참회하면서
이렇게 두 손 모아 왕생극락을 비읍니다.

- 암 전 -

노모는 김교각 스님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사흘 밤 낮으로 계속되어 눈물에 짓이겨 실명하고 만다. 김지장 스님은 화성사앞 우물에서 물을 길어 며칠간 노모의 눈을 씻기자 다시 눈에 광명을 되찾았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우물을 명안천(明眼泉)이라고 명명했다 한다. 노모는 스님이 성불하시길 바라며 다시 신라로 돌아갔다.

제3막 제3장/화성사에 온 낭랑.

신라의 여인 낭랑은 어쩔수 없는 이별에 필부의 삶을 지속했다. 온 인생 지나도록 낭랑은 왕자를 잊지 못하였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 거의 노파가 되어 중국 구화산을 찾아간다. 멀고도 험한 길을 묻고 또 묻으며 구화산에 도착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한 여인이 사랑하기엔 너무도 오르지 못할 산 위에 있었다. 낭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한번만이라도 시중을 들 수 있도록 간청하여 잠시 동안만 허락을 받았다.

동자승; 큰스님, 차드세요~

낭랑 차상에 다도를 들고 등장한다. 동자승은 제자들과 함께 눈에 땀씨를 뿌리고 금지차를 함께 마신다.

낭랑; 금지차입니다. 막 재배한 어린잎으로 끓였습니다.

교각; 보살님은 처음 뵙습니다. 화성사에 온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낭랑; 큰스님. 저, 낭랑이옵니다. 기억하시겠는지요.

교각; 낭랑, 그대가 어찌.

낭랑; 신라에서 애까지 수만, 수 천리를 찾아왔습니다.

낭랑 눈시울을 붉히자 교각이 낭랑의 양손을 받들어 얼굴을 본다.

교각; 당신이 그 낭랑이란 말이요? 왜 여태 말씀이 없으셨소.

낭랑; 줄곧 기다렸습니다. 알아봐 주시기를요.

교각; 이 답답한 사람.

낭랑; 어머니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교각이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는다.

교각;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내 잠시 마음이 동했나보요. 출가한 몸이 어찌 속세에 정을 두겠습니까.

낭랑; 큰스님. 어머니께서는.

교각; (돌아서며) 이렇게 얼굴이라도 뵈었으니 마음이 흡족하오, 허나 부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선 나또한 보살님을 대할 수 없소,

낭랑; 사람이잖아요. 부처님의 제자이기 전에 사람이시라고요.

교각; 그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소.

낭랑; 큰스님!

교각; 속세에서 우리의 인연은 차 한 잔, 나눈 정으로 충분하오.

낭랑 교각에게 손수 짠 삼베옷을 내밀고 절을 한다. 김교각은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낭랑;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셨습니까, 그 긴 시간, 큰스님을 만나기 위해 수천리 길을 걸어. 예까지 왔습니다. 다리가 붓고 가슴

에는 그리움으로 피멍이 들었습니다. 불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이승에서 못 다한 정이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교각; ……

낭랑; 부디 건강하십시오.

낭랑 느린 걸음으로 절을 나서며 퇴장한다. 낭랑의 원은 먼발치에서나마 사랑하는 임을 바라보는 그 생활도 호강이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 나로 인해 고매한 스님께 누가 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고 신라로 향하는 발걸음은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 달이 가득 찬 어느 날 밤,

낭랑; 소녀의 꿈은. 지아비를 곁에서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가까이 모시지 못할 운명이라면 죽어서라도 님 가까이 남겠습니다. 큰스님, 부디 성불하십시오.

낭랑은 화성사 앞에 있는 연못, 월아지(방생지)에 스스로를 방생하듯 몸을 던진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교각 스님.

교각;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파놓은 그 연못이 너의 무덤이 되었구나. 낭랑아~ 낭랑아~ 너의 소박한 원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제3막 제4장/송동자하산(送童子下山); 동자를 보내며.

지장은 시자 도명과 코흘리개 동자승만 데리고 화성사에서 남대 암자로 올라갔다. 큰 절이 돼버린 화성사는 큰 상좌 승유가 관리케 하고 자신은 늙은 수행자로 물러나 남대 암자에서 말년을 보냈다. 도명마저 출타해버리면 지장은 청양 출신의 한 동자승을 데리고 암자 주변의 차밭을 일구며 유유자적했다. 동자승은 공부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으므로 지장 옆에서 찻물 끓이는 일을 했다. 그러나 동자승은 자신을 절에 맡기고 간 어머니생각하며 그리워

눈물 흘린다.

교각; 왜 그리 앉아 울고 있느냐?

동자승; 큰스님, 어머니 보살이 보고 싶어요, 흐흑. 집에 가고 싶어요.

교각; 내 너를 큰 수행자로 키워보고 싶었건만.

그러던 동자승이 기어이 청양 집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소동을 벌였다. 김교각 스님은 암자에서 내려 보내기로 마음먹고 도명을 불러 말한다.

교각; 요즘 들어 동자승이 더욱 우는구나

도명; 외로워서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화성사로 보낼까요?

교각; 아니다, 그래도 아이는 울 것이다.

도명; 그럼 어찌할까요?

교각; 아이 부모는 청양에 사느니라. 절밥을 먹으면 단명을 면한다. 해서 나에게 맡겨졌느니라. 허나 아이가 부모를 저리도 잊지 못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도명; 큰스님, 아이를 데리고 청양을 다녀오겠습니다.

교각; 그리 하여라, 지금 아이에게 부처가 있다면 바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김지장 스님은 코흘리개 동자승을 내려 보내니 마름이 허허로웠다. 석양 질 무렵, 자신의 애뜻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교각; 송동자하산

이어 음악이 흐르고 시창이 이어진다. 김지장 스님은 암자에서도 쉬지않고 도명과 함께 차밭을 가꾸며 직접 차잎을 따 제다(製茶)하였다. 매년 봄이 되

면 암자에 방과 마당엔 온통 차향기로 가득했다. 김지장 스님은 극락이 따로 없듯 미묘한 차향기로 삼매에 들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김지장 스님은 도명과 함께 제다한 차를 마신다. 도명은 김지장 스님이 드실 차물을 올린다.

교각; 차향이 그윽하구나.

도명; 네, 스승님! 올해도 차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교각; 그래. 고국에서 가지고 온 찻씨가 자라 어느덧 이렇게 구화산에 향내로 가득 넘치니.

도명; 스승님, 신라를 생각하십니까?

교각; 고국에서 담아온 향기에 취해 이곳에 앉아 있느니라. 이 차 한잔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차를 한 모금 마시던 김교각 스님은 잠시 명상에 잠기다 시를 읊조린다.

교각; 단지 속의 물엔 밝은 달 찾아올 일 없겠고
차 달인 단지에는 향긋한 꽃 필 일 없겠네
서운해 눈물 흘리지 말고 잘 가거라
노승은 노을의 벗 노을은 노승을 벗하리라

음악이 흘러나오고 시창이 이어진다. 도명은 김교각 스님의 찻잔에 다시 차를 한잔 올린다.

교각; 도명아, 이제 나의 육신과의 인연도 다 되어 가는구나. 하지만 나의 육신이 법신이 되어 만 중생들에게 불법을 설파할 것이니라. 그땐 고국의 사람들도 나를 부르러 올 것이니라.

도명; 스승님, 그때가 언제이옵니까?

교각; 지금으로부터 1300년 후가 될 것이다.

도명; 1300년 후라 하셨습니다.

도명은 김교각 스님의 예언에 숨이 막혔다. 도명은,

도명; 스승님, 인과에 따르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교각;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을 닦고 10가지 착한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십선업도(十善業道)

김교각

이의어(離倚語), 이망어(離妄語), 이양설(離兩舌)

이살생(離殺生), 이악구(離惡口), 이사음(離邪淫)

이사행(離邪行), 이투도(離偷盜), 이탐욕(離貪欲)

이진에(離嗔恚)

[해석]

신뢰 있는 말만 한다.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간질 하지 않는다. 살생하지 않는다

악랄한 말을 하지 않는다. 방종과 사악함을 멀리 한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탐욕을 버린다. 화내지 않는다

제3막 제5장 / 육신과의 이별.

작법; 바라춤

당 정원 10년인 신라 원성왕 10년(794), 김지장 스님의 나이 99세가 되는
여름 7월 30일, 갑자기 어디서 종소리가 울린다.

종소리; 땡땡~~~~~

이 종소리를 듣고 민양화, 도명, 정장, 승유, 유탕 등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인다. 통달의 시간, 육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은 교각. 무대 중앙에 앉아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고 제자들이 교각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도명; 스승님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각; 이제 내 육신은 명을 다하였다. 혼과 백이 나누워져 육신이 죽더라도 정신은 영생하리라. 내육신은 썩지 않을 것이니 3년 후 등신불로 짓고 그 대들도 부처님의 뜻에 정진하여 모두 성불하시게.

제자들; 스승님 극락왕생하시옵소서.

교각; 누구든지 삼존불을 참배하고 지장왕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서원을 나의 서원으로 실천하는 이는 업장을 소멸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도명은 김지장 스님께 마지막 공양한 차를 올린다. 잠시 후 김지장 스님은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는 입술을 닫고 침묵했다.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지장의 임종계(臨終偈)였다. 서기 794년 스님의 나이 99세 되던 해인 음력 7월 30일, 김지장 스님은 자신이 태어난 날 열반에 들어 제자들에게 생사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구화산에서 단 한순간도 쉼 없이 75년간을 수련한 스님은 모든 승려들과 대중들에게 고별인사를 하고 유언 법문을 남기고 가부좌 한 채 입적하였다.

제자들; 스승님.

스님이 입적하자 산이 울고 돌이 떨어지고 하늘에서는 천둥소리가 나고 종을 아무리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지장보살찬(地藏菩薩贊)

이백

본심야허공 청정무일물(本心若虛空 清淨无一物)
분탕음노치 원적료견불(焚蕩淫怒痴 圓寂了見佛)
오채도골상 오진비망전(五彩圖聖像 悟真非妄傳)
찬차공덕해 영위광대선(贊此功德海 永為曠代宣)

[해석]

본심이 반야(般若)와 같이 텅 비어 깨끗함에 티끌 하나 없고
욕심, 분노, 어리석음 모두 불태워 없애고 입적하여 부처를 보시었네
온갖 색채로 그린 성스런 모습, 깨달음은 정말 허망함이 아님을 전하고
눈을 쓸 듯 만병을 없애 주시어 시원하고도 청량한 하늘과 같게 하시네
바다와 같은 그 공덕 찬송하니 영원히 대대로 빛나리로다.

작법; 나비춤

제3막 제6장 / 등신불; 김지장왕보살.

김교각 스님이 입적하신지 3년이 되던 날, 석함이 놓여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둘러 있다. 김지장 스님의 유언대로 석함을 안치하고 3년이 지난 후인 797년 (덕종 13년), 석함을 열어 김지장 스님의 시신을 들어낸다.

제자들; (모두가 놀라며) 아니, 이럴 수가.

도명; 웃은 부패하였지만 얼굴색이 변하지 않았고 모습이 불경에 있는 지장보살의 모습과도 같구나. 나무아미타불.

정장; 모두들 보시게. 스승님의 육신에서 신비한 빛이 감돌고 있네.

도명; 스승님이 예언하신대로 육신이 다시 세상에 화현하여 지장보살의 화신이 되었구나.

제자들은 모두 한발자국씩 뒤로 물러나 큰 절을 올린다.

제자들; 나무아미타불...

제자들은 지장보살이 전세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장왕보살의 화신으로 받들어 육신에 금분을 입히고 3층 석탑을 세웠는데, 그 탑의 밑부분에서 광기가 뿜어 나왔으므로 후세의 사람들이 이곳을 신광령(神光嶺)이라 이름 지었다.

지장보살대원(地藏大願)

중생도진(衆生度盡) 반중보제(方證菩提)
지옥미공(地獄未空) 서불성불(誓不成佛)

[해석]

중생을 제도한 뒤에야 보살과를 이루고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으리

즉, 육신(등신불)의 존재와 서원의 존재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김교각 스님이 바로 지장보살의 환생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1128년 만인 1925년에 탑내부를 열었을 때도 그 모습이 여전했다고 전해진다.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은 지금도 육신보전(肉身寶殿)내의 겹탑 안에 보전되어 있다. 지난 2007년,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여 김교각 스님의 입상을 제작해 서울 봉은사, 고향인 경주 불국사 등에서 한·중 봉안법회가 개최된 바 있다.

(4) 김교각 창극공연의 실제

영제시창·시조창을 활용한 김교각 소리극은 ‘등신불이 된 신라왕자 김교각’이란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에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고 공연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경주예술의 전당은 총 1,100석의 관람석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이다. 주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이고 주관은 (사)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창·영제시조 보존회이다. 무료 초대권 총 3,500매를 배포하여 총 1,100석 규모의 객석에 약 90%의 관객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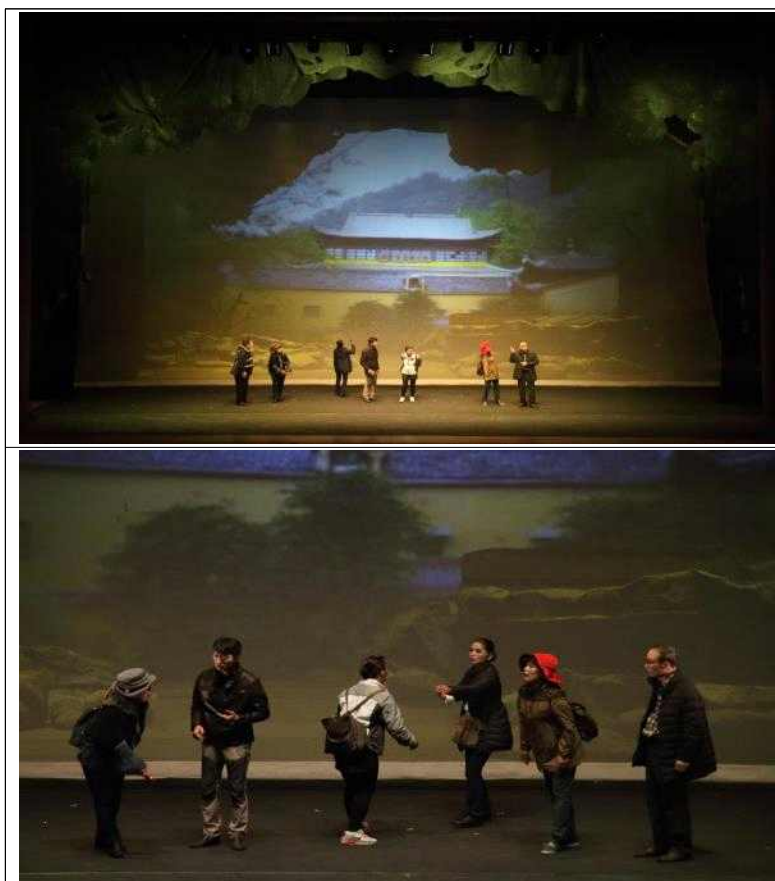
관객 연령은 대략 40~80세 정도로서 대한불교 조계종·대한불교 천태종·한국불교 태고종단 등 각 불교종단의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장보살 화신이 되신 김교각 스님을 재현하고자 실제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의 협조와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전통 의식교육원 작법 스님들이 공연에 동참하였다.

<표 16> 김교각 창극공연의 내용

막	장	내 용
제1막	1장	중국 구화산 화성사를 찾은 관광객
	2장	왕자의 탄생
	3장	왕권다툼에서 밀려난 왕자
	4장	낭랑과의 이별
	5장	수행의 길을 떠나는 김교각(서기 720년, 24세)
제2막	1장	구도의 길에서 만난 혜초 스님
	2장	구화산에 도착한 김교각 스님(서기 730년)
	3장	수행에만 전념한 김교각스님
	4장	오용지와의 만남
	5장	민양화와 도명과의 만남
제3막	1장	안녹산의 난(서기 755~763년)
	2장	노모와의 만남
	3장	화성사에 온 낭랑
	4장	소사미하산(小沙彌下山) - 동자를 보내며
	5장	육신과의 이별
	6장	등신불 - 김지장왕보살



<그림 36> 2017년 11월 9일, 김교각 국악 창극



<그림 37> 1막 1장/중국 구화산 화성사 찾은 경주 관광객



<그림 38> 1막 2장/왕자(김교각)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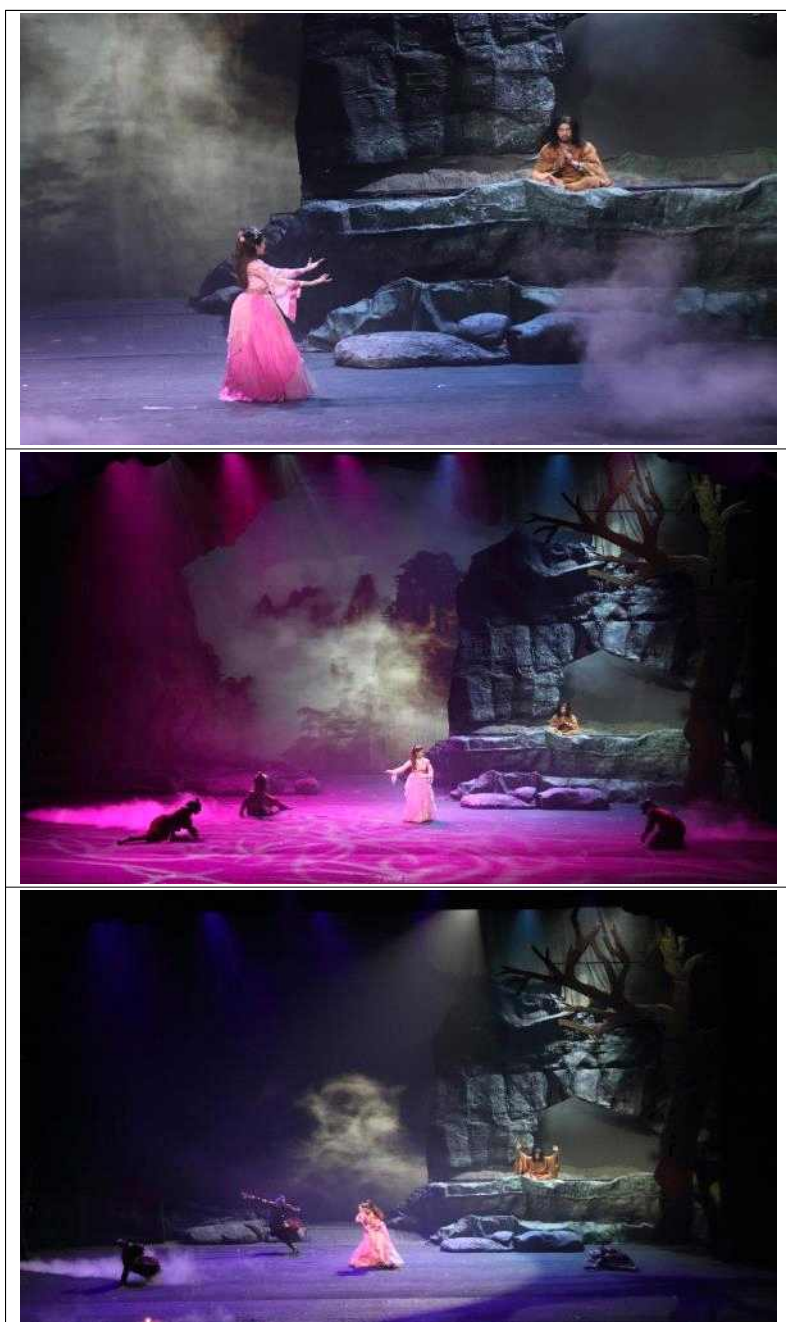
<그림 39> 1막 3장/왕권다툼에 밀려난 왕자



<그림 40> 1막 4장/낭랑과의 이별, 5장/수행의 길을 떠나는 김교각



<그림 41> 2막 1장/구도의 길에서 만난 혜초 스님, 2장/구화산에 도착한 김교각 스님



<그림 42> 2막 3장/수행에만 전념한 김교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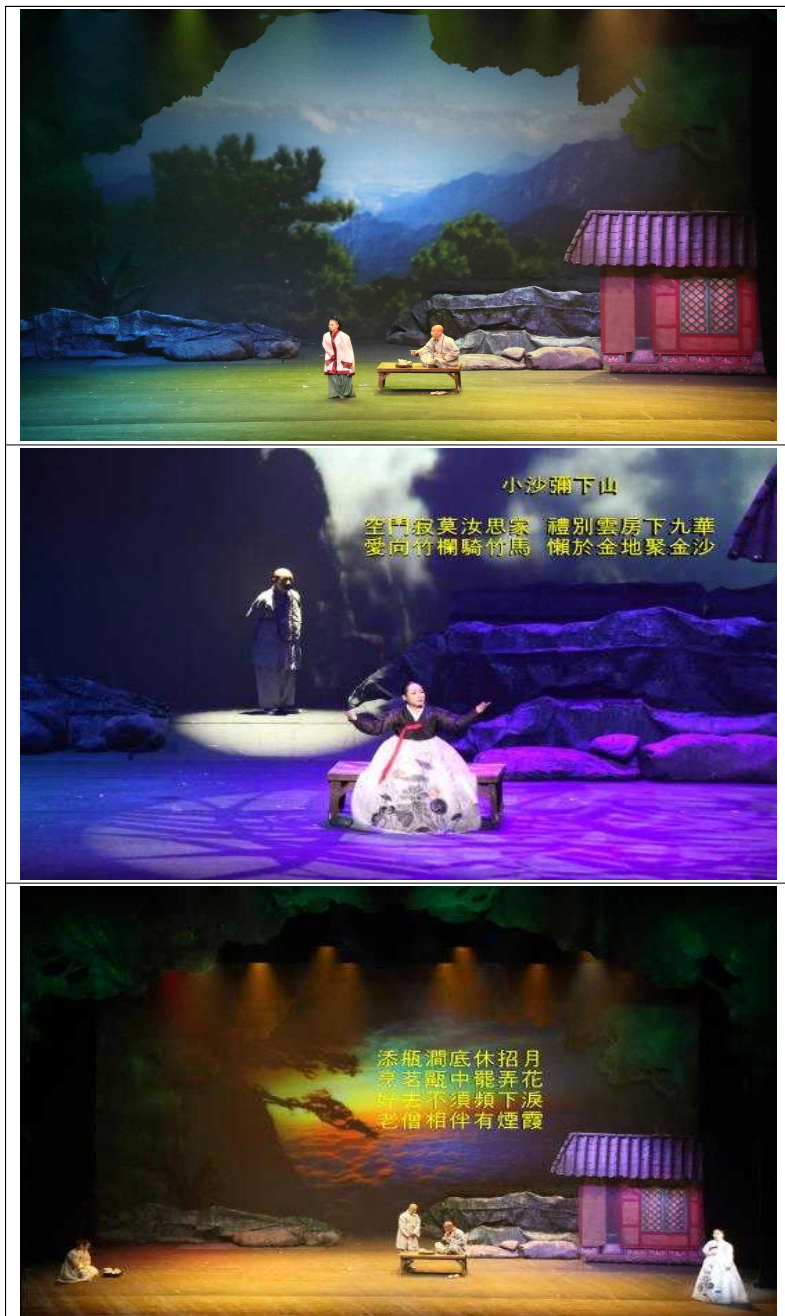
<그림 43> 2막 4장/오용지와의 만남, 5장/민양화와 도명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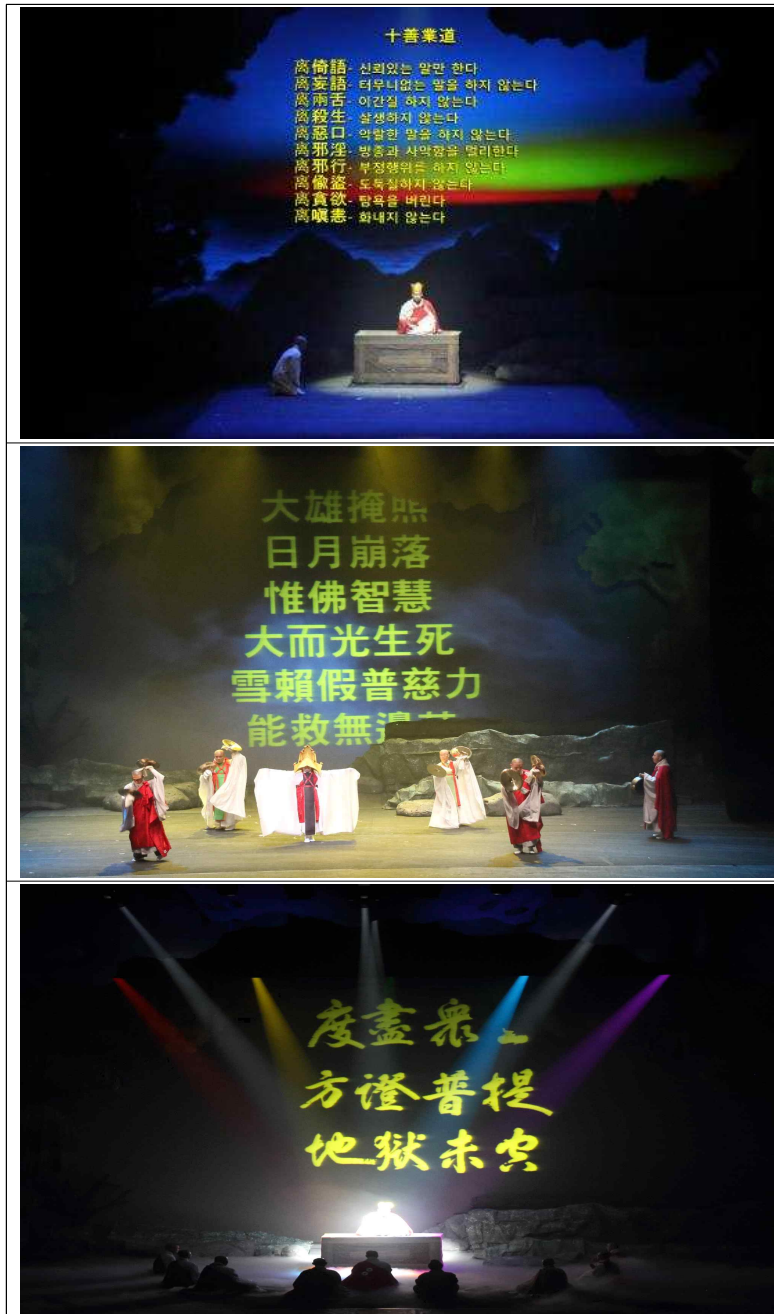
<그림 44> 3막 1장/안녹산의 난



<그림 45> 3막 2장/노모와의 만남



<그림 46> 3막 3장/화성사에 온 낭랑, 4장/소사미하산(小沙彌下山); 동자를 보내며



<그림 47> 3막 5장/육신과의 이별



<그림 48> 3막 6장/등신불; 김지장왕보살



<그림 49> 포토타임/관객과의 만남

2. 최치원 창극

(1) 최치원의 일화⁵⁶⁾

신라의 대문장가이자 유·불·선을 통합한 세계적 인물 최치원은 중국에서는 ‘장군’이라 불려진다. 최치원(崔致遠)은 헌안왕(憲安王) 1년(857) 신라(新羅)의 서울 경주(慶州)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해운(海雲), 호는 고운(孤雲)이며 6두품인 사랑부(沙梁部) 출신이다. 그는 4세에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여 10세 때 사서삼경을 독과하였다.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왕족인 진골(眞骨) 다음가는 육두품(六頭品)은 주도 세력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신분적 한계가 있었다. 최치원의 천재성과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최치원의 아버지는 12세인 그를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보낸다.

『삼국유사』 경문왕(景文王) 8년(868)에 아버지 최견일(崔扁逸)은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 또한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라(十年不第進士則勿謂吾兒 吾亦不謂有兒 往矣勤哉 無隳乃力))”라는 격려를 깊이 새긴 최치원은 14세 때 국자감에 입학하고 18세 때인 경문왕 14년(874)에 당나라의 과거시험에서 장원급제하였다. 2년 후인 876년인 20세 때 전주(지금의 중국 양주) 율수(溇水) 현위(縣尉)가 되어 지방 치안을 맡았다. 이곳에서 최치원의 명문으로 널리 알려진 전기(傳記小說) 『쌍녀분기(雙女墳記)』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중국 고순현 고성진 장사촌에 실질적으로 쌍녀분이 있어 중국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이전일문(殊異傳逸文)』 13편 “신라수이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많은 사서(史書)와 『육조사적편류(六朝事蹟編類)』 “쌍녀분기담(雙女墳奇談)”으로 기록되어 당(唐)·송(宋)·원(元)나라에 이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쌍녀분전기』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최

56) 서진모, 『고운 최치원 선생 그리고 그 후손들』, 호산당, 2014.

치원전(崔致遠傳)”의 원문(原文)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치원의 자는 고운(孤雲)이요 12세 때 당나라에 유학했다. 건부 갑오년에 학사 배찬이 관장하는 괴과(魁科)에 합격하여 율수현위(溲水縣尉)를 제수 받았다. 어느 날 남쪽 경계에 있는 초현관(招賢館)에서 노닐다 언덕에 오래된 무덤인 쌍녀분(雙女墳)을 발견하였다. 여기는 고금(古今) 명현(名賢)들이 유람하던 곳으로 최치원은 무덤 앞 석문(石門)에 시를 짓는다.⁵⁷⁾

시를 지어 써놓고 관에 돌아와 밝은 달밤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거니는데, 홀연히 취금(翠襟)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붉은 두 주머니를 건넨다. 그 주머니에는 아침에 걸음하여 석문에 좋은 글을 써준대 대한 보답으로 무덤 주인인 팔낭자(八娘子)와 구낭자(九娘子) 두 낭자의 화답시가 담겨져 있었다. 첫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니 팔낭자가 최치원에게 화답한 시였다.⁵⁸⁾ 이어서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보니 바로 구낭자의 것이었다.⁵⁹⁾ 또 뒤편에도 글이 쓰여 있었다.⁶⁰⁾ 최치원은 아름다운 시를 읽으며 감동하였고, 심부름 온 취금에게 답시를 보낸다.

취금은 답시를 가지고 돌아가고 최치원은 홀로 구슬피 시를 읊조리며 한참을 기다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수를 더 읊조리고 마치려는데 갑자기 은은한 향기가 풍기더니 잠시 후 두 여인이 나란히 다가오는데 분명 한 쌍의 밝은 구슬이요 두 송이 상서로운 연꽃이었다. 최치원은 마치 꿈을 꾸듯 놀라고 기뻐한다. 두 낭자와 마주한 최치원은 낭자들의 사연을 듣게

57) 한국고전번역원, 최치원, 자고운 년십이서학어당 건부갑오 학사배찬장시 일거등괴과 조수률수현위 상유현남계초현관 관전강유고충 호쌍여분 고금명현유람지소 치원제시석문알(字孤雲 年十二西學於唐 乾符甲午, 學士裴瓊掌試 一舉登魁科 調授溲水縣尉 嘗遊縣南界招賢館 館前岡有古塚 號雙女墳 古今名賢遊覽之所 致遠題詩石門曰).

58) 한국고전번역원DB, 제파도관 시시 월백풍청 장려서보 홀도일녀 자용작약 수조흥대 취전알 “팔낭자·구낭자, 전어수재 조래특로옥지 검사경장 각유수답 근령봉정” 공회고경항 재문: “하성 낭자?” 녀알: “조간불석제시처, 즉이낭소거야” 공내오 견제일대 시팔낭자봉수수재 기사알(題罷到館 是時 月白風清 杖藜徐步 忽覩一女, 姿容綽約, 手操紅袋, 就前曰, “八娘子·九娘子, 傳語秀才 朝來特勞玉趾 兼賜瓊章 各有酬答 謹令奉呈” 公回顧驚惶 再問: “何姓娘子?” 女曰: “朝間拂石題詩處, 卽二娘所居也” 公乃悟 見第一袋 是八娘子奉酬秀才 其詞曰).

59) 한국고전번역원, 차견제이대 시구낭자 기사알(次見第二袋 是九娘子 其詞曰).

60) 한국고전번역원, 우서어후폭알(又書於後幅曰).

된다.

울수현(溇水縣) 초성향(楚城鄉) 장씨(張氏) 집안의 두 딸로 태어난 팔낭자와 구낭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고을의 관리노릇도 하지 않으시고 유독 고을의 부호(富豪)되기만을 힘썼으므로 넉넉하기가 동산(銅山)처럼 부를 누렸고 호화롭기가 금곡(金谷)처럼 사치를 부렸다. 그때 팔낭자는 나이 18세였고 동생 구낭자의 나이 16세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는 혼처를 의논하여 팔낭자는 소금장수와 정혼하고 구낭자는 차(茶)장수에게 혼인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낭자는 남편감이 마음에 차지 않아 여러 번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여 울적한 마음이 맺혀 요절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치원이 술을 갖다놓고 두 여인에게 서로 술을 권해 마시며 각각 시를 지었는데 모두가 맑고 빼어나 세상에 없는 절세(絶世)의 시구였다. 이때 달의 밝기가 대낮같고 맑은 바람은 가을날 같이 시원하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시작(詩作)을 지으며 즐겼다. 최치원은 노충(盧充)과 완조(阮肇)가 배필을 만난 이야기를 하며 두 낭자와 좋은 연분을 매기를 청한다. 두 낭자는 이에 허락을 하고 세 사람은 운우의 정을 나눈다. 잠시 후에 달이 지고 닭이 울자 두 여인 모두 놀라며 최치원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다른 날 이곳을 지나게 되면 황폐한 무덤을 돌봐 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다음날 아침 최치원은 무덤을 다시 찾아 쓸쓸히 거닐면서 읊조렸다. 깊이 탄식하면서 긴 시를 지어 자신을 위로했다.

1년 후, 대과인 박학굉사과(博學宏詞科)에 응시하고자 울수(溇水) 현위(縣尉)를 사임한다. 하지만 생활고에 의해 중도에 포기하고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변(高駢)의 추천으로 표(表)·장(狀)·서계(書啓)·격문(檄文)등을 제작하는 관역(館驛)순관(巡官)이 되었다. 이 당시 황소(黃巢)가 난을 일으키자 종사관(從事官)인 최치원은 「격황소서(檄黃巢書)」⁶¹⁾를 짓는다. “부유천하지인 개사현록 억역지지귀 이의음주(不唯天下之人 皆思顯戮 抑亦地之鬼 已議陰誅); 천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여서 시체를 전시하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

61) 이상현 역, 『계원필경집』, 제11권, 격서(檄書), 한국고전번역원(www.itkc.or.kr/).

요, 땅속의 귀신들도 남몰래 죽일 의논을 이미 마쳤을 것이다.”⁶²⁾ 격서를 받아든 황소는 상(床)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는다. 이 격문으로 ‘황소의 난’을 진압하고 문명(文名)을 떨친 최치원은 공을 인정받아 당 황제에게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타국 땅에서 문명을 떨치며 고위직벼슬길에도 올랐지만, 부모님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떨칠 수가 없었다. 가을비 내리는 어느 날 밤, 떠나면 타향에서의 외로움과 고국을 향한 절실한 그리움에 사무친 시를 짓는다. 최치원은 17년간의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한다. 서기 885년(헌강왕 11), 당나라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국 신라로 돌아오면서 향해 도중 시를 읊조린다.

당 희종의 조서를 받들고 사신이 되어 신라로 돌아오는 최치원은 또 한 수의 시를 지어 전송한다. 이 시는 『전당시』에는 빠져 있지만, 『삼국사기』 권 46 최치원 열전에 실려 전한다. 그가 당에 머물며 지은 시와 저술들은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금체시(今體詩)』 5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五言七言今體詩)』 100수 1권, 『잡시부(雜詩賦)』 30수 1권, 『중산복궐집(中山覆簣集)』 1부 5권, 『사육집(四六集)』 등이 있지만, 저술로 전해지는 건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뿐이다.

최치원은 고국에서 펼칠 정치적 이상과 희망찬 포부를 가득안고 헌강왕의 환대를 받으며 귀국했다. 헌강왕은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에 임명했다. 이듬해 최치원은 왕명에 따라 <대승복사비문(汰崇福寺碑文)> 같은 명문을 지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던 헌강왕에 이어 887년 7월 정강왕마저 서거하자 신라는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지방의 호족이 득세하면서 왕권이 약해졌다. 최치원은 자신을 견제하고 배척하려는 귀족들이 많아지고 외직(外職)을 전전하게 된 그는 포부가 점차 좌절로 바뀌게 된다.

887년 7월, 진성여왕이 즉위하고 889년(진성여왕3)에는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최치원은 태산군(太山郡 태인(泰人), 천령군(天嶺郡 함양(咸陽))과

62) 이상현 역, 『계원필경집』, 제11권, 한국고전번역원(www.itkc.or.kr/).

부성군(富城郡 서산(瑞山)) 등지의 태수(太守)를 역임하였다. 893년 하정사(賀正使)에 임명되었지만 매해 기근이 들고 이로 인해 도적들이 횡행하여 마침내 가지 못하였다. 그 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신의 명령을 받들어 당나라에 간 적이 있다.

894년(진성여왕8), 결국 최치원은 문란한 국정을 바로 잡고자 시무책 10조를 지어 진성여왕에게 상소했다. 시무책이 진성여왕에게 받아 들여져 최치원은 최고의 관직인 6두품 아찬(阿餐)에 올랐지만, 당시 사회 모순을 외면하던 진골 귀족들은 그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성여왕 또한 개혁의지가 너무도 약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기대감과 달리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에서 빗어지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 최치원은 귀국하여 수많은 명문을 남겼는데 현재까지 국내에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산비명(四山碑銘)이다. 사산비명(四山碑銘)이란 네 군데의 산사에 세워진 네 개의 비를 말한다.

통일신라 고승 진감선사 혜소(774~850)의 주요 행적을 담은 지리산 쌍계사⁶³⁾의 진감선사대공탑비(851년 이후)⁶⁴⁾, 신라왕실의 사찰이었던 대승복사의 유래를 담은 경주 초월산 숭복사의 대승복사비(886년 이후)⁶⁵⁾, 무염(無染, 801~888)의 행적과 공덕을 기린 보령 숭엄사 성주사의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890년), 지증대사 도헌(道憲, 824~882)의 공덕을 기린 문경 희양산 봉암사의 지증대사 적조탑비(893년)이다. 이중 숭복사비를 제외한 세 곳의

63) 원래는 '옥천사(玉泉寺)'였지만 정강왕 때 사찰 양 옆으로 두 개의 계곡이 만나는 자리라 하여 '쌍계사(雙溪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교음악인 범패를 가르치고 이끌어 온 사찰이다.

64)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 신라 정강왕이 진감선사의 높은 도덕과 법력을 앙모하여 대사가 도를 닦은 옥천사를 쌍계사로 고친 뒤 정강왕 2년(887년)에 건립한 것으로 고운 최치원이 비문을 짓고 썼으며 환영스님이 새겼다. 비의 높이는 3.63m, 탑신의 높이는 2.02m, 혹은 1m, 귀부와 이수는 화강암이고 비신은 흑색대리석이다. 비문의 자경은 2.3cm, 자수는 2,423자이다.

65) 대승복사비(886), 헌강왕으로부터 비명을 지으라는 명을 받음. 비명이 완성된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숭복사비의 건립 시기는 진성여왕 2년(888), 진성여왕 10년(896) 또는 진성왕대(887~897)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본다. 비문의 내용은 신라 하대 왕실과 불교와의 관계, 귀족들의 불교신앙,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사원의 땅에 원성왕릉을 만든 관행을 알려주고 있다.

비석은 세 고승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고 승복사비는 왕의 원찰이 된 이 사찰의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승복사비는 완전히 파손되어 몇 조각의 비편만이 남아있는 반면, 나머지 세 비석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진성여왕은 즉위 11년 만에 정치 문란의 책임을 지고 효공왕(孝恭王)에게 선양(禪讓)한다. 신라 왕실에 대한 실망과 새 왕조 건설에 참여하고 싶지않은 최치원은 효공왕 4년(900)에 관직에서 물러난다. 최치원은 경주의 남산·의상의 빙산(氷山), 합천의 청량사(淸涼寺), 지리산의 쌍계사(雙溪寺), 강주·마산의 별서(別墅), 동래의 해운대 등 전국 산천을 유람하던 그는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갔다.

이때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표시로 남겨놓은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 일명 「입산시(入山詩)」이다. 세상의 온갖 시비(是非)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심정이 담긴 시가 지금도 해인사(海印寺) 입구 독서당(讀書堂)의 유적과 함께 길 옆 오른편 암벽에 초서(草書)로 음각(陰刻)되어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는 최치원의 현존 시는 120 여수이다. 위의 두 수 외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 잘 드러난 둔세시가 7수가 전해진다. 말년에는 형인 승려 현준, 정현사와 더불어 도우(道友)를 맺고 가야산 해인사에 머물며 열정적으로 저술활동에 몰두하였는데 주로 승려들의 전기를 지었다.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尚傳)』,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권2 안함전(安含傳), 『삼국유사』 권4 의상전교(義湘傳敎), 『의상전(義湘傳)』,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석이정전(釋利貞傳)』,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석순응전(釋順應傳)』, 『보덕전(普德傳)』 등이다. 해인사에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남긴 마지막 글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에 따르면 908년까지 생존했던 듯하다. 왕은 그에게 벼슬을 주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어 등천하였다고 전한다.

(2) 창극의 시창과 시조창

1) 시창

최치원 일화를 창극화하면서 최치원이 지은 추야우중, 범해, 제가야산독서당의 노랫말 한시(漢詩)를 원문 그대로 시창(詩唱)하였다. 이외에도 최치원의 일화와 관련한 한시를 번안한 사설의 시조창과 일화와 어울리는 국악가요를 삽입하여 새로운 국악 창극을 시도하였다. 먼저 최치원의 창극화에 이용된 한시는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 일화에 관련된 문헌설화인 쌍녀분(雙女墳)에 관련된 한시이다.

전설로만 받아 들였던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 무덤이 발굴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치원이 묘사한 쌍녀분 위치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당나라 고분이 발견되었으며 무덤 아래에는 두 개의 묘실과 묘도가 나란히 놓여 있어 두 여성의 묘를 합장했다는 설과 맞아 떨어진다. 고증에 따르면 이 무덤은 지금부터 1250년 전 것으로 당나라 천보시대와도 맞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치원이 말한 쌍녀분이라고 판단했다⁶⁶⁾

① 쌍녀분(雙女墳) - 최치원

서기 874년(경문왕 14년) 나이 18세 과거시험 합격하여 876년 20세 전주(宣州; 지금의 중국 양주) 율수(溇水)의 현위(縣尉) 벼슬을 수행하기 길을 떠난다. 현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쪽 경계에 있는 초현관(招賢館)에 머물렀다. 관(館) 앞의 언덕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어 쌍녀분(雙女墳)이라 일컬었는데, 어느 날 최치원은 무덤 앞의 석문(石門)에다 시를 썼다.

쌍녀분(雙女墳)

최치원

66) 위센룽, 인민화보, <월간중국>, 제3호, '사랑과 영혼', '최치원과 쌍녀분이야기', 201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ouchchina&logNo=220340532251>)

수가이어차유분(誰家二女此遺墳) 적적천경기원춘(寂寂泉扃幾怨春)
 형영공유계반월(形影空留溪畔月) 성명난문총두진(姓名難問塚頭塵)
 방정당허통유몽(芳情儻許通幽夢) 영야하방위여인(永夜何妨慰旅人)
 고관약봉운우회(孤館若逢雲雨會) 여군계부낙천신(與君繼賦洛川神)

[해석]

어느 집 두 처자 이 버려진 무덤에 갇들어
 쓸쓸한 지하에서 몇 번이나 봄을 원망했나.
 그 모습 시냇가 달에 부질없이 남아있으나
 이름을 무덤 앞 먼지에게 묻기 어려워라.
 고운 그대들 그윽한 꿈에서 만날 수 있다면
 긴긴 밤 나그네 위로함이 무슨 허물이 되리오.
 고관(孤館)에서 운우(雲雨)를 즐긴다면
 함께 낙천신(洛川神)을 이어 부르리.

誰家二女此遺墳(수가이여차유분)	寂寂泉扃幾怨春(적적천경기원춘)
形影空留溪畔月(형영공유계반월)	姓名難問塚頭塵(성명난문총두진)
芳情儻許通幽夢(방정당허통유몽)	永夜何妨慰旅人(영야하방위여인)
孤館若逢雲雨會(고관약봉운우회)	與君繼賦洛川神(여군계부락천신)

8구		7구		6구		5구		4구		3구		2구		1구	
·漢漢	여구	손	고과	漢漢	영야	仲林	방지	·漢漢	성머	손	형여	·漢漢	적지	仲仲	수가
-		-		-		林		-		-		-		-	
·漢		黃		·漢		南		·漢		黃		·漢		-	
△漢		仲	야	·漢		仲		·漢		仲	고	·漢		-	
·漢		仲林		·漢		仲	당	·漢		仲林	고	-		·漢	
·漢		仲	보	·漢		仲		·漢		仲	유	-		·漢	
-		-		-		-		-		-		-		-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이
·漢		仲		·漢		仲		·漢		仲		-		仲	여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부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仲	
·漢		黃		·漢		黃		·漢		黃		黃		黃	
·漢		仲		·漢		仲		·漢		仲		仲		仲	
·漢		南		·漢		南		·漢		南		·漢		仲	
·漢		仲													

- 150 -

② 쌍녀분(雙女墳)－ 팔낭자

죽은 두 여인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시 쓰기를 마치고 최치원은 관(館)으로 돌아왔다. 달이 밝고 바람이 맑은 저녁 무렵, 탁자에 앉아 글공부를 하는 최치원에게 갑자기 팔낭자와 구낭자의 시녀인 취금이 나타나 붉은 두 개의 주머니를 전해준다. 최치원은 전해받은 주머니에는 팔낭자와 구낭자의 시 및 뒷면에도 글이 있었다.

팔낭자

최치원

유혼이한기고분(幽魂離恨寄孤墳) 도검유미유대춘(桃臉柳眉猶帶春)
 학가난심삼도로(鶴駕難尋三島路) 봉채공타구천진(鳳釵空墮九泉塵)
 당시제세장수객(堂時在世長差客) 금일함교미식인(今日含嬌未識人)
 심괴시사지첩의(深愧詩詞知妾意) 일회연수일상신(一回延首一傷神)

[해석]

저승의 혼령이 이별의 원한을 외로운 무덤에 의탁하고 있으나
 복사꽃 같은 얼굴, 버들잎 같은 눈썹엔 아직도 봄빛을 띄었나이다.
 학의 수레는 삼신산(三神山)가는 길 찾기가 어렵고
 봉황무늬 새긴 비녀 부질없이 구천의 먼지 속에 떨어져 있나이다.
 살아있을 당시에는 나그네 대하기를 몹시 부끄러워하였는데
 오늘은 알지 못하는 이에게 교태를 품나이다.
 시로써 저의 뜻을 알림을 깊이 부끄럽게 여기며
 한번 고개 떨구어 기다리고 한편 마음 아파하나이다.

嶺制詩唱，雙女墳(쌍녀분)- 팔낭자

유혼이한기고분(幽魂離恨寄孤墳) 도검유미유대춘(桃臉柳眉猶帶春)

학가난심삼도로(鶴駕難尋三島路) 봉채공타구천진(鳳釵空墮九泉塵)

당시재세장수객(堂時在世長羞客) 금일함교미식인(今日含嬌未識人)

심괴시사지첩의(深愧詩詞知妾意) 일회연수일상신(一回延首一傷神)

[illegible]

<그림 51> 영제시창 ‘쌍녀분(雙女墳)- 팔낭자’

③ 쌍녀분(雙女墳)－ 구낭자

쌍녀분(雙女墳)－ 구낭자

최치원

왕래수고노방분(往來誰顧路傍墳) 난경원가진야진(鸞鏡鴛衾盡惹塵)
일사일생천상명(一死一生天上命) 화개화락세간춘(花開花落世間春)
매희진여능포속(每希秦女能拋俗) 불학임희애미인(不學任姬愛媚人)
욕천양왕운우몽(欲薦襄王雲雨夢) 천사만억손정신(千思萬憶損精神)

[해석]

왕래하는 그 누가 길가의 무덤 돌아보겠나이까
난세 새긴 경대와 원앙 수놓은 이불엔 먼지만 일고 있나이다.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은 세간의 봄이로 소이다
매양 진녀(秦女)가 속세를 벗어날 수 있음만 바랐고
임희(任姬)처럼 아양 뽀글 배우지 못했 나이다
양왕(襄王)을 모시고 운우의 꿈을 꾸고자 하나
천만가지 생각이 정신을 어지럽히나이다.

嶺制詩唱，雙女墳(쌍녀분)- 구낭자

왕래수고노방분(往來誰顧路傍墳) 난경원가진야진(鸞鏡駕衾盡惹塵)

일사일생천상명(一死一生天上命) 화개화락세간춘(花開花落世間春)

매희진여능포속(每希秦女能拋俗) 불학임희애미인(不學任姬愛媚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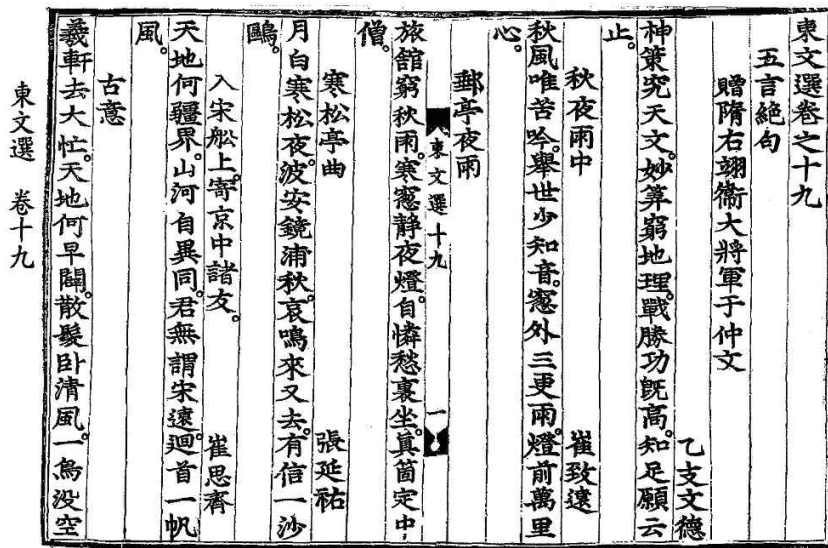
목천양왕운우몽(欲薦襄王雲雨夢) 천사만억손정신(千思萬憶損精神)

8구		7구		6구		5구		4구		3구		2구		1구	
·漢漢	천사	·太太	육처	·漢漢	불하	·仲林	매희	·漢漢	화개	·太太	있사	·漢漢	난거	·仲仲	왕래
-		-		-		·林		-		-		-		-	
·達		·黃		·達		·南		·林		·黃		·達		-	
-		-		-		仲		-		-		-		-	
△漢		仲	아	△漢		仲		△漢		仲林	이르	林漢		△	
·漢		△仲	와	·漢		仲仲	진여	·漢		仲	새	-		△	
-		-		-		南		-		南		·漢		仲	수
·達		·漢		·漢		·林		·達		·漢		-		仲	고
-		·仲		·達		·黃		-		仲		·黃		-	
·南		仲		·南		仲		·南		仲		-		仲	
林仲		·黃	○	·南		·黃		·林		·黃	○	-	○	·仲	
·△		△		·仲		△		·林		△		△		-△	
林南	만어	南南	운우	·漢南	임희	南南	능포	漢南	화라	南南	천사	·南南	원가	·林	노바
-		-		-		-		-		-		-		仲	
·漢		·漢		·漢		·漢		·漢		·漢		·漢		-	
·林		·林		·林		·林		·林		·林	치	·林		·林	○
仲		仲		仲		仲		仲		仲		仲		仲	
-		-		-		-		-		-		-		-	
黃		-	몽	黃		-	숙	黃		·仲	○명	黃		仲	부
·黃		仲		·黃		仲		-		仲		-		-	
△黃		△		△黃		△		△黃		△		△黃		△	
仲	소	仲		仲	애	仲		仲	세			仲	지		
-		-		-		-		-				-		-	
黃	저	黃		黃	미	黃		·太黃	가			黃	야		
·仲	○	·仲		·仲		·仲		·仲				·仲		·仲	
·林	시	·林		·林	이	·林		·仲	추			仲	지		
仲		-		-		-		-				-		-	
-		-		-		-		-				-		-	
·黃		黃		黃		黃		黃				黃		黃	
黃△		△		△		△		△				△		△	

<그림 52> 영제시창 ‘쌍녀분(雙女墳)- 구낭자’

④ 추야우중(秋夜雨中)

가을비 내리는 밤, 최치원은 글공부에 전념하다 문득 먼 타국 땅에서 고국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추야우중이라는 한시를 남기게 된다. 동문선(東文選) 권지십구(卷之十九)에 원문이 전해진다.



<그림 53> 동문선 권지19의 추야우중

시창; 추야우중(秋夜雨中)

최치원

추풍유고음(秋風唯苦吟)하니 세로소지음(世路少知音)이라
창외삼경우(窓外三更雨)요 등전만리심(燈前萬里心)이라

[해석] 가을 비 내리는 밤
가을바람에 처량한 이 읊조림만
온 세상에 지음 적네
창 밖에는 삼경의 비가 오는데
등불 앞에 아물아물 만리의 마음이어67)

4구		3구		2구		1구	
·潢潢 - -	등저	송송 - 黃	창외	·潢潢 - -	세로	·仲仲 - -	추푸
·林潢 - △潢		·仲仲 - 仲林	사口	·林潢 - -		·仲仲 - - △	
·潢潢 - -		·仲仲 - -	겨	·潢潢 - ·林仲		黃- -仲 仲△	○ 유
·潢潢 - -		·南- -潢潢 仲		·潢潢 - 仲		仲- -潢潢	
·南 ·林仲 △		黃- 仲- △	○	·潢潢 - △		仲 - △	
潢潢 - -潢潢	만리	·南 -潢潢	우	·南潢潢 - -潢潢	소지	·林 ·仲 -潢潢	음허
·林仲 仲 -		·林仲 仲 -		·林仲 - -		·林仲 - -潢潢	
黃- - △潢		·潢潢 仲 △	요	黃- - △潢		·仲 - △	니
·仲	시			·仲 - -	으		
黃- - 仲	이			黃- - 仲	이		
·仲 - -	라			·林仲 仲 -	라		
·潢潢 潢 △				·潢潢 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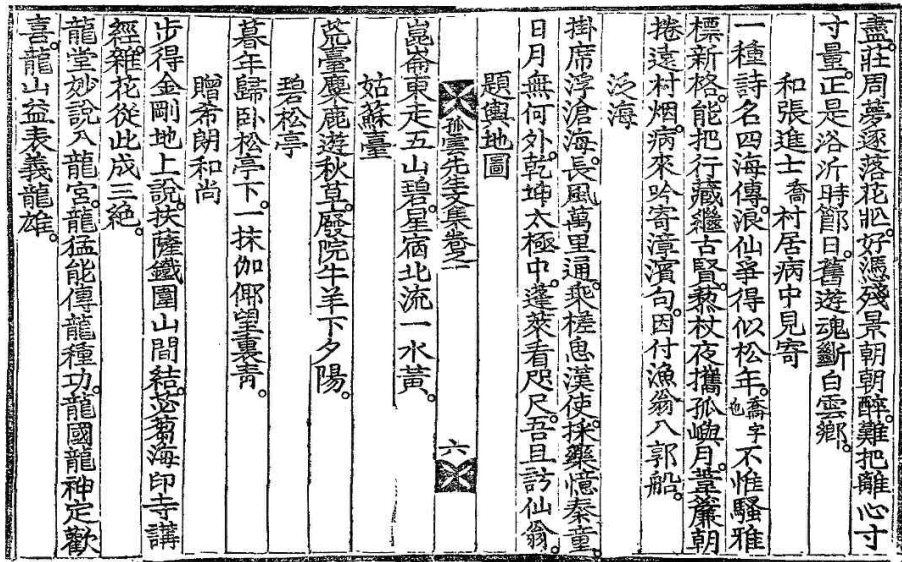
嶺制詩唱 · 秋夜雨中 추야우중
 秋風惟苦吟 추풍유고음하니 가을바람에 처량한 이 을조림만
 世路少知音 세로소지음이라 온 세상에 지음 적네
 窓外三更雨 창외삼경우요 창 밖에는 삼경의 비가 오는대
 燈前萬里心 등전만리심이라 등불앞에 아물아물 만리의 마음이며

<그림 54> 영제시창 ‘추야우중(秋夜雨中)’

67)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역), 2013.

⑤ 범해(泛海)

최치원은 타향 땅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떨쳐 버리고 고국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17년간의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28세인 서기 885년 봄에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국 신라로 돌아온다.



<그림 55> 고전원문 『고운집(孤雲集)』 권1

시창; 범해(泛海)

최치원

괘석부창해(掛席浮滄海)하니	장풍만리통(長風萬里通)이라
승사사한사(乘槎思漢使)하고	채약억진동(採藥憶秦童)하네
일월무하외(日月無何外)하고	건곤태극중(乾坤太極中)이라
봉래간지척(蓬萊看咫尺)이니	오차방선옹(吾且訪仙翁)이라

[해석] 바다에 배 띄우니

돛 걸고 푸른 바다 배를 띄우니

장풍 만리의 기분과 통한다 할까
뗏목을 탄 한나라 사신도 생각이 나고
약 캐러 간 진나라 아동들도 떠오르네
허공 밖에 걸려 있는 해와 달이요
태극 속에서 나온 하늘과 땅이로세
봉래가 지척의 거리에 보이니
나는 잠깐 선웅을 찾아볼거나⁶⁸⁾

68)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역), 2013.

嶺制詩唱·泛海

패석부창해(掛席浮滄海)하니	장풍만리통(長風萬里通)이라
승사사한사(乘槎思漢使)하고	채약억진동(採藥憶秦童)하네
일월무하외(日月無何外)하고	건곤태극중(乾坤太極中)이라
봉래간지척(蓬萊看咫尺)하고	오차방선옹(吾且訪仙翁)이라

8구		7구		6구		5구		4구		3구		2구		1구	
·漢漢	오차	太太	봉래	漢漢	건고	·仲樹	일위	·漢漢	채야	太太	승사	·漢漢	장푸	·仲仲	패사
-		黃		-		林		-		黃		-		-	
·漢		仲		·漢		南漢		·林漢		仲		·林漢		-	
△漢		仲林	가	漢		仲		△漢		仲林	사	-		太	
·漢		仲	지	·漢		仲仲	무하	·漢		仲	하	-		黃	
-		南		·漢		南		-		南		·林仲		-	부
·漢		仲		·漢		·林仲		·漢		仲		-		仲	자
-		黃		·漢		黃		·漢		黃		仲		黃	
·南		仲		·南		仲		·南		仲		-		仲	
林仲		南		·南		南		·林仲		南		-	○	仲	
△		△		仲		△		△		△		△		-△	○
林南	망서	南	차	·漢南	태그	南	외	·漢南	억지	南南	사하	南南	만리	·林	해
-		-		·漢		-		-		-		-		仲	하
·漢		-		·漢		·漢		·漢		·漢		·漢		-	
·林仲		·仲	하	·林仲		·林仲	하	·林仲		·林仲		·林仲		·林仲	
仲		-		仲		-		仲		-		-		林仲	
-		-		-		-		-		-		-		-	
黃		仲	고	黃		仲	고	黃		仲	고	黃		仲	니
-		-		-		-		-		-		-		-	
△黃		△		△黃		△		△黃		△		△黃		△	
仲	오			仲	주			仲	도			仲	토		
-	○			-	○			-	○			-	○		
黃	이			黃	이			黃	하			黃	이		
·仲				·仲				·仲				·仲			
·仲	라			·仲	라			·仲	네			·仲	라		
-				-				-				-			
-				-				-				-			
·漢				·漢				·漢				·漢			
黃△				黃△				黃△				黃△			

〈그림 56〉 영제시창 ‘범해(泛海)’

㉔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의 나이 40세에 중앙정계에서 물러나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간다. 최치원의 심정이 담긴 마지막 시가 제가야산독서당이다.



<그림 57> 고전원문 『고운집(孤雲集)』 권1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최치원

광분칩석후중만(狂噴疊石吼重巒)하니 인어난분지척간(人語難分咫尺間)이라
상공시비성도이(常恐是非聲到耳)하야 고교유수진농산(故敎流水盡籠山)이라

[해석] 가야산 독서당에서

미친 듯 바위에 부딪치며 산을 보고 포효하니
지척 간의 사람의 소리도 알아듣기 어려워라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저어해서
일부러 물을 흘러보내 산을 감싸게 하였다네 69)

69) 한국고전번역원, 조순희(역), 2013.

4구		3구		2구		1구	
潢潢 - } - }	고교	太太 - } 黃	상고	·汰潢 - } - }	인어	仲仲 - } - }	광부
林潢 - } △潢		仲 - } 仲林	○ 시-	△潢 - } △		△潢 - } △	
泚泚 - } - }		仲 - } 南	비	潢泚 - } 泚		黃- } - 仲 仲泚	처비
·汰 - } 泚		潢泚 - } 仲泚		泚泚 - } ·汰		仲 - } 黃	서
·南 ·林仲 △		黃 - } 仲 △		泚泚 - } ·南 仲		仲 - } △	가
潢南 - } 潢	유수	南南 - } 潢	성도	潢南 - } 潢	난부	·林仲 - } - }	후주
·林仲 仲 - }		·林仲 - } - }		·林仲 仲 - }		林仲 - } △	○
黃 - } △潢		黃 - } 仲 △	이	黃 - } △潢	△潢	△潢 - } △	△潢
仲 - } - }	지			仲 - } - }	지		
黃 - } 仲	노			黃 - } 仲	처		
△潢 - } - }	○ 사			△潢 - } △	△潢		
黃 - } △	△潢			黃 - } △潢	△潢		

狂噴疊石吼重巒 巒分咫尺間 人語難分咫尺間
 人語難分咫尺間 人語難分咫尺間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常恐是非聲到耳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故教流水盡籠山 故教流水盡籠山

<그림 58> 영제시창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2) 시조창

최치원이 지은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인 한시를 변안한 사설을 시조창으로 부르기 위해 개사(改詞)하였다. 최치원은 신라 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전국 산천을 유람하다 은둔의 길을 택한다. 최치원은 가야산 홍류동에 들어가면서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의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를 지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최치원의 운명을 암시하는 의미로 제 1막 1장. 유학길에 오른 최치원에 창극화하였다.

시조창;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

최치원

승호막도청산호(僧呼莫道靑山好)이면 산호하사갱출산(山好何事更出山)이라
시간타일오종적(試看他日吾蹤跡)하여 일입청산갱불환(一入靑山更不還)이라

[해석] 한 번 청산에 들면 다시 나오지 않으리
스님이여, 청산 좋다 말마오
산 좋다면 무슨 일로 산 밖을 나오는가
시험 삼아 일후에 내 종적을 보시오
한 번 청산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다

종장 . 한 번 청산 들면 다시는 나오지 않으리라

[illegible]

<그림 59> 영제시조창 평시조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

(3) 극본

최치원의 일대기와 그가 남긴 한시로 전승된 영제시창·시조창을 국악극으로 각본을 각색하면서 그의 일대기와 관련한 한시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의 일대기 중에서 쌍녀분과 토황소격문은 일반적으로 최치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화를 중시하였다.

각본을 각색하면서 최치원과 관련되지 않은 인물로는 괴짜도인, 동승, 등이다. 가상인물의 각본은 대부분 최치원의 일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물이다. 또한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와 백성들로부터 환영 받는 장면을 마당놀이 형식으로 국악극으로서 재미를 부여하려 하였다. 한편 서막에는 영제시창·시조창의 전승자였던 아당 채숙자의 추모영상을 제작하였다. 각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 막/아당 채숙자 선생 20주기 추모영상

제 1 막 제1장/유학길 오른 최치원.

유학준비를 마친 최치원과 그를 배웅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최치원: 소자, 유학 준비를 마치고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먼 길 가는 사람이 행색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최치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무슨 짐이 필요하겠습니까? 뜻만 있다면 어디를 가도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어디로 간다 하였느냐?

최치원: 당나라로 건너갈 것입니다.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야지.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거라. 나 역시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최치원: 예, 아버님. 그리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살에 글을 쓰고 열 살에 사서삼경을 독파한 네가, 아무리 충기가 뛰어나도 신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유학을 떠나야 하니 이 어미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집안의 못다 이룬 대업을 이루거라.

최치원: 예, 아버님. 인불학불지도라 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나라에 가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학문에 전념하도록 하여라.

최치원이 굳은 의지를 다진다.

최치원: 예,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최치원이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린다. 어머니는 저고리고름을 접어 눈물을 닦는다.

어머니; 부디 몸 건강히 무탈 하거라.

무대 어두워지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퇴장하고 최치원이 굽이굽이 첩첩산중을 넘어 여행길에 오른다.

이별가

노래가 끝나면 도인과 동승이 등장하며,

괴짜도인; 만급의 세월 흐르고 흘러도 우리네 강산은 푸르기만 하구나.

동승; 아이구, 스님! 푸르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요.

괴짜도인; 이놈아, 무념무상이라 했느니라.

동승; 아이고,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배나 채웠으면 좋겠습니다요.

짜도인; 어허, 이놈이.
동승; 빨리 가십시오.

도인을 만난 최치원, 합장하며,

괴짜도인; 어디 먼 길 떠나십니까?
최치원; 예, 스님.
괴짜도인; 이 좋은 청산을 두고 어딜 그리 바빠 가십니까. 가야산 좋은 경치에
마음 편이 두고 잠시 쉬어 가십시오.
최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괴짜도인; (정색을 하며) 범상한 기운을 가진 사내로 구만.
동승; 빨리 가십시오.
괴짜도인; 알았다 이놈아. 하하하!

합장을 마친 스님이 산기슭을 넘어 퇴장하는 사이. 최치원이 가야산 바위에
앉아 식은땀을 닦으며 경치를 감상한다.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무대 후반 영
상이 흐른다. 최치원은 미리 본인의 운명을 알았을까?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
는 표시로 남겨 놓은 유명한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 일명 「입산시(入山
詩)」를 읊조린다.

영상

청산맹약시(靑山盟約詩)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유학길에 오르는 최치원을 바라보며, 한 여인이
나와 시조창을 부른다.

스님이여, 청산 좋다 말하지 마오.

제1막 2장/괴짜도인과의 만남.

영상

최치원, 서기 874년(경문왕 14년) 나이 18세 과거시험 합격. 876년 20세 선주(宣州:지금의 중국 양주) 율수(溇水)의 현위(縣尉) 벼슬. 중국 역사서 1100년동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최치원과 쌍녀분의 이야기. 현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쪽 경계에 있는 초현관(招賢館)에 머물던 중. 관(館) 앞의 언덕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어 쌍녀분(雙女墳)이라 일컬었는데, 어느 날 최치원은 무덤 앞 석문(石門)에다 시를 써 내려간다.

수가이여차유분(誰家二女此遺墳)

죽은 두 여인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시 쓰기를 마치고 최치원은 관(館)으로 돌아왔다. 달이 밝고 바람이 맑은 저녁 무렵, 탁자에 앉아 글공부를 하는 최치원. 갑자기 음산한 음악이 흐르며 홀연히 나타난 취금.

최치원; 그대는 사람인가? 혼령인가?

취금; 저는 팔낭자와 구낭자의 시녀이옵니다.

최치원; 현대 무슨일로.

취금은 붉은 두 주머니를 들고 다가와 말을 전한다.

취금; 팔낭자와 구낭자가 수재께 말씀을 전하합니다. 아침에 귀한 걸음하시어 좋은 글을 써주신데 대한 두낭자의 화답시를 담아 올립니다.

당황하는 최치원

최치원; 팔낭자와 구낭자라.

취금; 덩불을 헤치고 돌을 끌어내어 시를 쓰신 곳이 바로 두 낭자가사는 곳입니다.

최치원은 화답시중 팔낭자의 시를 읊조린다.

유혼이한기고분(幽魂離恨寄孤墳)

이어 두 번째 구낭자의 화답시를 읊조린다.

왕래수고노방분(往來誰顧路傍墳)

이어 최치원은 뒷쪽의 글도 읊조린다.

막괴장성명(莫怪藏姓名)

제2막 제3장/팔낭자와 구낭자의 등장.

바람에 흔들리는 중, 풍경소리, 신비스러운 음악이 흐르며 등장하는 팔낭자와 구낭자.

팔낭자; 팔낭이와

구낭자; 구낭이라 합니다.

팔낭자; 무덤앞 석문에 좋은 글을 적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구낭자; 수제께서 지은 답신을 전해 받고 곁을 하였으나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였음에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정녕 그 모습은 한 쌍의 투명한 구슬 같았고 두 송이 단아한 연꽃같이 아름다웠다. 최치원은 마치 꿈인 듯 놀라며 말을 건넨다.

최치원; 어허, 마치 꿈속 같기만 하구만.

팔낭자; 꿈속은 아니지만 이승과 저승의 연이라 생각하십시오.

최치원; 속세의 말단 관리가 어찌 외람되게 선녀들이 범부(凡夫)를 돌아볼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스쳐지나가는 글귀를 쓴것 뿐인데 어찌.

구낭자;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팔,구낭자; 그저 소녀들은 고마울 따름이옵니다.

최치원; 현대, 낭자들은 어디에 사셨고, 친족은 누구인지요?

팔낭자와 구낭자가 눈물을 흘리며,

팔낭자; 저와 동생은 율수현의 초성향(楚城鄉) 장씨(張氏)의 두 딸입니다.저의 나이 18세, 아우의 나이 16세가 되자 부모님은 혼처를 의논하여 소금장사와 차(茶)장사에게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낭자; 그러나, 남편감이 마음에 차지 않아 울적한 마음이 맺혀 풀기 어렵게 되고 급기야 요절하게 되었습니다.

최치원; 두 여인의 신세가 안타깝기 그지없구려.

구낭자; 송구스럽사옵니다.

최치원; 무덤에 깃든 지 오래되었고 초현관에서 멀지 않으니, 영웅과 만나신 일

이 있을 터인데 어떤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는지요?

구낭자가 옷깃을 휘날리며.

구낭자; 왕래하는 자들이 모두 비루한 사람들뿐이었는데, 어찌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다행히 훌륭한 수재를 만났습니다.

최치원; 세속의 모든 것과 맛을 세상 밖의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지요?

팔낭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구낭자; 다행히 훌륭한 분을 만나 좋은 말씀과 아름다운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최치원; 저 또한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팔낭자; 어진 이를 만나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구낭자; 이러한 때 풍과 악이 없다면 좋은 일을 다 누렸다 할 수 없겠지요.

팔낭자; 악기가 사람 소리만 못하지만 현의 아름다움 또한 영롱하고 신비롭지요.

구낭자; 나으리, 정든 고향땅 멀리하고 떠나면 이국땅을 찾아오셨는데 고향의 그리움이 얼마나 가득하시겠습니까?

팔낭자; 소녀들이 그리움을 달래줄 고향의 소리를 전해드리지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한다.

제2막 제4장/화답시를 주고받는 최치원과 두 낭자.

가야금 산조 연주

구낭자; 나으리, 누가 아니된다면 달 밝은 가을밤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화답시를 나누어 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최치원; 화답시라. 좋습니다.

팔낭자; 그러하오면 달로 제목을 정하고 풍(風)으로 운(韻)을 삼지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흐르며.

영상

금파만목범장공(金波滿目泛長空) 천리수심처처동(千里愁心處處同)

최치원; 금빛 물결 눈에 가득 먼 하늘에 떠있고 천리 떠나온 근심은 곳곳마다 한 걸 같구나.

영상

윤영동무미구로(輪影動無迷舊路) 계화개부득춘풍(桂花開不得春風)

팔낭자; 수레바퀴 옛길 잃지 않고 움직이며 계수나무꽃 봄바람 기다리지 않고 피었네.

영상

원휘점교삼경외(圓輝漸皎三更外) 리사편상일망중(離思偏傷一望中)

구낭자; 둥근 빛 삼경(三更) 너머 점점 밝아오는데 한번 바라보니 이별 근심에 가슴만 상하는구나.

영상

연색서시분금장(練色舒時分錦帳) 규모영처투주(珪模映處透珠)

최치원; 하얀 빛깔 펼쳐질 때 비단 장막 열리고 밝은 빛 비추는 곳 구슬 창 통과 하네.

영상

인간원 별장감단(人間遠別腸堪) 천하고면한막궁(泉下孤眠恨莫窮)

팔낭자; 인간세상 멀리 떨어져 애가 끊어질 듯 황천에서 외로운 잠에 한은 끝도 없어라.

영상

매선향아다계교(每羨嫦娥多計校) 능포향각도선궁(能拋香閣到仙宮)

구낭자; 늘 부러워했네. 상아가 계교 많아 향각(香閣) 버리고 선궁에 이르렀네.

(한바탕 웃으며)

오백년래시우현(五百年來始遇賢) 차환금야득쌍면(且歡今夜得雙眠)

방심막괴친광객(芳心莫怪親狂客) 증향춘풍점적선(曾向春風占謫仙)

최치원; 오백년 만에 비로소 어진 이 만나 오늘 밤 함께 시를 나누고 그대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내 마음 둘 곳 찾을 길 없소이다.

잠시 후 달이 지고 아침이 밝아오며 멀리서 닭의 울음이 들려온다.

최치원; 떠나셔야 합니까?

팔낭자; 혹시라도 다른 날 이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신다면 황폐한 무덤을 다듬

어 주십시오.

최치원; 네. 꼭 그리하리다.

두 여인이 아름다운 자태를 뒤로 한 채 홀연히 사라지고 어디선가 신명나는 장단이 울려 퍼지며 여인들이 등장한다.

장기타령

- 암 전 -

제2막 제1장/황소의 난을 제압한 최치원(토황소격문).

영상

2년 후, 최치원 현위직 사임.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변(高駢)의 추천으로 관역순관(館驛巡官) 임명. 서기 881년 당나라 반적의 우두머리 황소(黃巢)의 반란. 고변(高駢)이 이를 토벌할 때 최치원에게 격황소문(檄黃巢文)을 짓게 하다.

어슴푸레 어둠이 서리는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면 무용수들이 등장해 무대를 휘젓는다. 휘몰이장단에 맞춰 두려움, 혼란스러움을 묘사하는 무용두려움을 엄습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최치원이 토황소격문을 펼치며,

최치원; 몸의 영화는 티끌에 더러워지기 쉽고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도 어렵거늘 바라건대, 이익의 문에는 빗장을 치고 몸에 끼치는 손해는 부리지 마시게.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함을 행하는 것을 도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해서 변통하는 것을 권이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순응해 성공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치를 거슬러 패하는 법. 온 천하 사람들이

너를 드러내놓고 죽이려하고, 지하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으려 이미 의논했을 것이다. 나는 한 장의 글을 남겨서 너를 거꾸로 매달린 위급함을 풀어주려는 것이니, 너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일찍 기회를 보아 좋은 방안을 세워 잘못을 고치도록 하여라!

글을 읽은 황소가 최치원의 위엄에 놀라 침상에 떨어진단다. 무용수들은 황소와 함께 두려움에 휩싸여 이리저리 흩어진단다.

- 암 전 -

제2막 제2장/자금어대를 하사받는 최치원.

무대가 어두워지면 당나라 황실로 무대가 전환된다.

최치원; 황제폐하 왕명을 받들어 당도하였나이다.

황제; 어서 오시오. 내 그대를 기다렸소.

하하하, 공들은 들으시오!

대신들; 예 이~

황제; 당나라 반적의 우두머리 황소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여 장안을 점령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허나 격황소문(檄黃巢文)을 지어 글로써 황소의 난을 진압한 최치원의 공을 높이 치하하고 짐이 최치원에게 자금어대를 하사하겠노라.

최치원; 황제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황제; (최치원에게 다가오며) 그대의 공을 헤아릴 수 없도다.

최치원; 과찬이시옵니다. 학문을 깨친 자가 응당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옵니다.

황제가 친히 최치원에게 다가간다. 대신이 자금어대를 담은 목상쟁반을 들

고 황제를 따른다. 황제는 최치원에게 자금어대(紫金魚袋; 금으로 장식되어 허리에 차던 장신)를 하사한다.

황제; 하하하하, 공들은 들으시오!

대신들; 예 이~

황제; 황소의 난을 진압한 최치원에게 정5품 이상에 추대하고 자금어대를 하사하였
노라 오늘 같이 뜻 깊은 날,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 연회를 즐기도록 하여라!

무용수들 춤이 이어진다.

- 암 전 -

제2막 제3장/고국에 대한 그리움.

가을비 내리는 밤, 최치원은 글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문득 먼 타국 땅에서
고국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잠시 수심에 잠긴다.

최치원; 타국에 온지도 벌써 십 수 년이 흘렀구나. 부모님은 무탈하신지. 가야
산천은 아직도 푸르른지. 망망대해 같은 그리움만 쌓이니. 값비싼 신선노
릇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베를 짜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나 소외
된 가련한 인생임은 마찬가지로구나.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시를 읊조린다.

추풍유고음(秋風唯苦吟)하니

음악이 흘러나오고 시창으로 이어진다.

추야우중(秋夜雨中); 시창

최치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때가 되었구나. 부모님은 무탈하신지.

(긴 한숨을 내쉬며)

- 암 전 -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듯 어디선가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며 굽이굽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긴아리랑

- 암 전 -

제2막 제4장/최치원의 금의환향.

무대가 전환되면 최치원은 타향 땅에서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떨쳐 버리고 고국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17년간의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28세인 서기 885년 봄 당나라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국 신라로 돌아오면서 항해 도중 시를 읊조린다.

영상

범해(泛海); 바다에 배 띄우니

음악이 흘러나오고 시창이 이어진다.

시 창

- 암 전 -

무대가 어두워지면 멀리서 태평소 소리와 풍악이 울려 퍼진다.

풍물, 설장구, 북 등 마을사람들이 나와 함께 풍물 한마당- 난장

제3막 제1장 / 시독을 겸한 한림학사 임명과 왕의 죽음.

영상

최치원 금의환향.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과 함께 신라의 상서장이 등장하고, 신라의 헌강왕은 최치원에게 교지를 내리고 신라의 관료가 교지를 전달. 하사한다. 멀리서 달려오는 말소리.

영상

상서장

소리; 최치원은 왕의 교지를 받드시오.

관료; 최치원의 한문적 기량을 독려하여 이에 헌강왕께서 그에게 시독을 겸한 한림학사에 임명하셨노라.

최치원이 관료에게 왕의 교지를 받는다.

최치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관료; 당나라에서 배운 학문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라오.

갑자기 긴박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대신; 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관료; 뭐라!

대신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곡소리를 낸다.

대신들; 전하!

최치원; 전~ 하

- 암 전 -

제3막 제2장 / 진성여왕께 받치는 시무책십여조.

왕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전하는 춤; 승무

진성여왕과 대화를 나누는 최치원

소리; 전하, 최치원이 알현을 청하옵니다.

진성여왕; 들라하시오.

최치원; 전하, 지금 도성 밖에는 국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나붙고, 지방에서는 조세가 걷히지 않으며, 각지에 도적이 봉기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진성여왕; 어찌하면 좋겠소. 그대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최치원; 이것은 신라의 개혁안을 구체화시킨 시무책 10조이옵니다.

진성여왕; 그대의 뜻은 잘 알겠소.

최치원; 허나, 이대로 나라의 위급을 방치해 둔다면 장차 세력을 굳혀가는 견훤과 궁예로 하여금 큰일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진성여왕; 그대는 바다의 달빛을 탐하는 게요?

최치원; 소인은 단지, 신라의 개혁을 대원할 뿐이옵니다.

진성여왕; 단지 그뿐이요?

최치원; 소인, 당나라로 건너가 명성을 떨치며 황제께도 인정받아 문명을 떨쳤으나 제 뿌리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나 눈앞에 보이는 신라의 위기에 도 타고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 그저 답답하고 원통할 따름이옵니다.

진성여왕; 그대의 진심이 가슴에 와 닿구려. 그 뜻을 받들어 그대를 6두품 최고 관직, 아찬에 제수하겠노라.

최치원;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대신들은 바닥에 엎드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대신1; 전하, 신분 개혁이라니요. 아니 될 말씀이옵니다. 이는 귀족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왕족 붕괴의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진성여왕; 그대들은 어찌 이리도 아둔하단 말이요.

대신2; 최치원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부디 왕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신들; 부디 왕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신들; 전하, 아니되옵니다.

최치원이 고개를 숙이고 실의에 빠진다.

- 암 전 -

제3막 제3장/정계를 떠나 가야산으로 간 최치원.

영상

최치원, 40세의 나이로 중앙정계에서 물러나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 혜인사에 들어감. 유불선을 통합한 최치원의 심정이 담긴 마지막 시.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시창

시창이 끝나면 계곡의 물소리와 새소리가 흘러나오며 최치원의 부인이 등장한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최치원.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고 계십니까?

최치원; 부인!

부인; 혹,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

최치원; 무서운 꿈을 꾸었소.

부인; 깨고 나면 꿈이지 않습니까?

최치원; 부인, 때가 온 것 같소.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치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학업이 고국에서조차 펼칠 수가 없으니 이내 마음 안타깝기 그지없소.

부인; (슬퍼하며) 저 또한 안타깝고 애가 탈뿐이옵니다. 나으리! 나으리 마음이 가는대로 하세요.

최치원; (무거운 마음으로) 부인!

제3막 제4장/가야산 신선이 된 최치원.

최치원의 심정을 헤아리듯 고운 선녀들이 마중을 나르고, 온 산천을 뒤덮는 메아리 같은 음악이 울려 퍼진다.

선녀춤

최치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두고 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등천하고 무대는 서서히 막이 내려온다.

- 암 전 -

(4) 최치원 창극공연의 실제

영제시창·시조창을 활용한 최치원 소리극은 ‘최치원 선생의 혼담은 김영리의 소리’란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었고 공연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었다. 경주예술의 전당은 총 1,100석의 관람석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이다. 주최는 경주시이고 주관은 (사)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창영제시조 보존회와 (재)경주문화재단이다. 무료 초대권 총 3,500매를 배포하여 총 1,100석 규모의 관람장에 약 80%의 관람객이 모였다.

관람객 연령은 대략 50~80세 정도로서 전통문화에 관심이 높은 특징인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최치원과 관련한 문종과 유림의 관심이 높았다. 성황리에 마쳐진 공연은 이후 4개월만인 2016년 4월 23일에 동일한 장소에서 앙코르 공연으로 이어졌다. 앙코르 공연에서도 초연과 같은 관람객이 모여 성황리에 공연이 막을 내렸다. 이 공연과 관련하여 영남일보, 경주신문, 경북연합일보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최치원이 남긴 한시를 골라 전통성악이라 할 수 있는 시창시조창으로 부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최치원의 삶과 정신을 극으로 엮어낸 창작 소리극인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창 활용을 시도한 소리극이다.⁷⁰⁾

대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주옥같은 한시가 김영리의 영제시창과 시조창으로 완벽하게 재현됐으며 공연이 끝난 뒤 기립박수를 받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전통시창과 시조창 공연은 ‘모험’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관심을 끌었다는 것은 공연사의 획기적인 기록으로 기업을 토했던 것,..아당의 영제시조를 그대로 전수받은 김영리선생이 전통 우리의 소리인 창극으로 표현해 뮤지컬화 했으며 시창과 시조창은 물론, 아당 선생이 전수한 가무악도 극 속에 녹아든다는 것이 특징이다.⁷¹⁾

지난해 말 초연 이후 양코르공연이다. 최치원 선생의 위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과제가 경주에 남아있다 할 것이다. 바쁜 현대인들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입체적인 공연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치원 선생의 혼담은 김영리의 소리’ 공연은 뜻깊다. 최치원 선생에 대한 공연이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선생을 높이 현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영제시창 변창의 길도 열릴 것으로 믿는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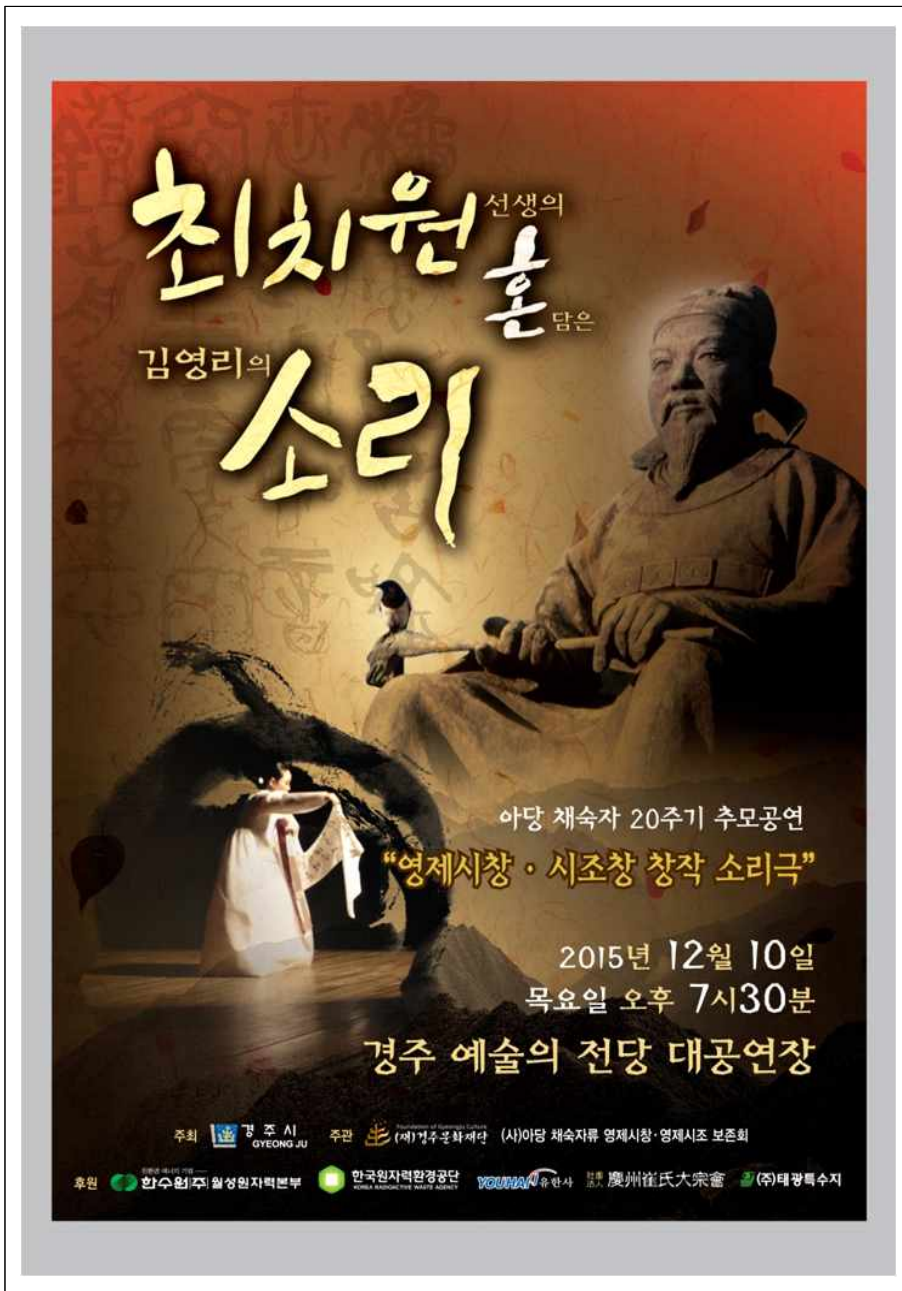
70) 영남일보, “다시 찾아온 국내 최초의 ‘시창시조창 소리극’”, 2016. 4. 22.

71) 경주신문, “양코르공연. 최치원 선생의 혼담은 김영리의 소리” 2016. 4. 15.

72) 경북연합일보, “최치원 선생 혼담은 영제시창·시조창”, 2016. 4. 20.

<표 17> 최치원 창극공연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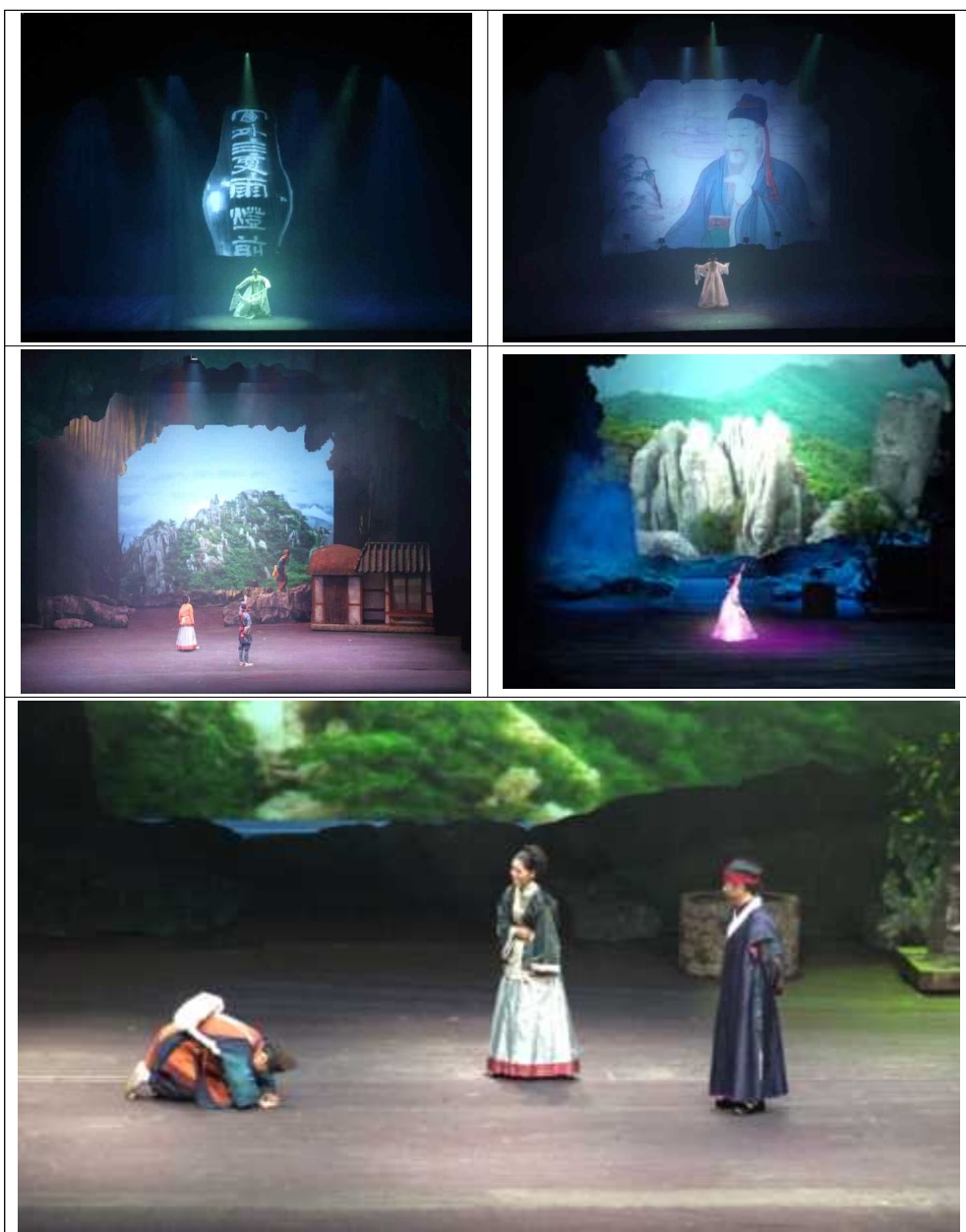
막	장	내 용
제1막	1장	유학길 오른 최치원
	2장	쌍녀분이야기
	3장	팔낭자와 구낭자의 등장
	4장	화답시를 주고받는 최치원과 두낭자
제2막	1장	황소의 난을 제압한 최치원(토황소격문)
	2장	당황제의 자금어대를 하사 받는 최치원
	3장	고국에 대한 그리움
	4장	최치원의 금의환향
제3막	1장	시독을 겸한 한림학사 임명과 왕의 죽음
	2장	진성여왕께 받치는 시무책십여조
	3장	정계를 떠나 가야산으로 간 최치원
	4장	가야산 신선이 된 최치원



<그림 60> 2015년 12월 10일, 최치원 국악 창극



<그림 61> 2016년 4월 23일, 최치원 국악 창극 앙코르



<그림 62> 1막 1장/유학길에 오른 최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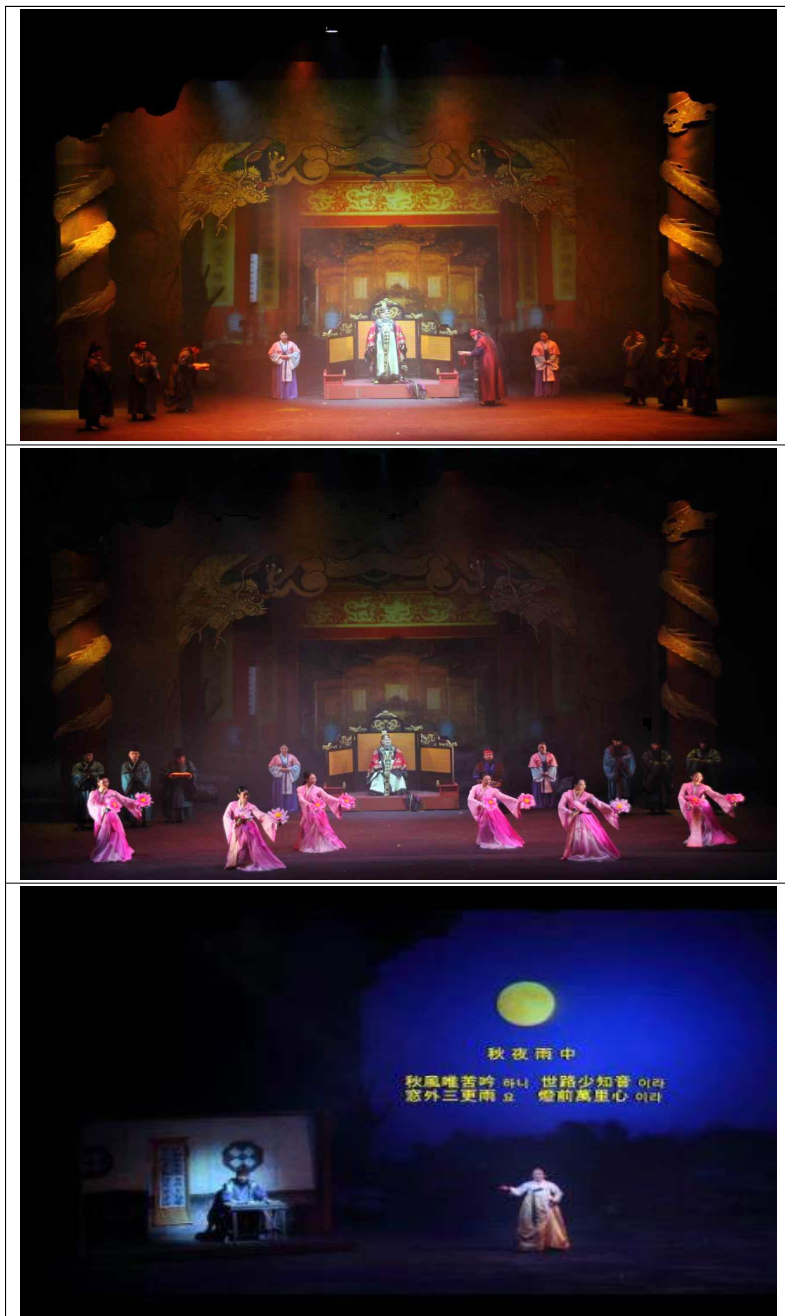
<그림 63> 피짜도인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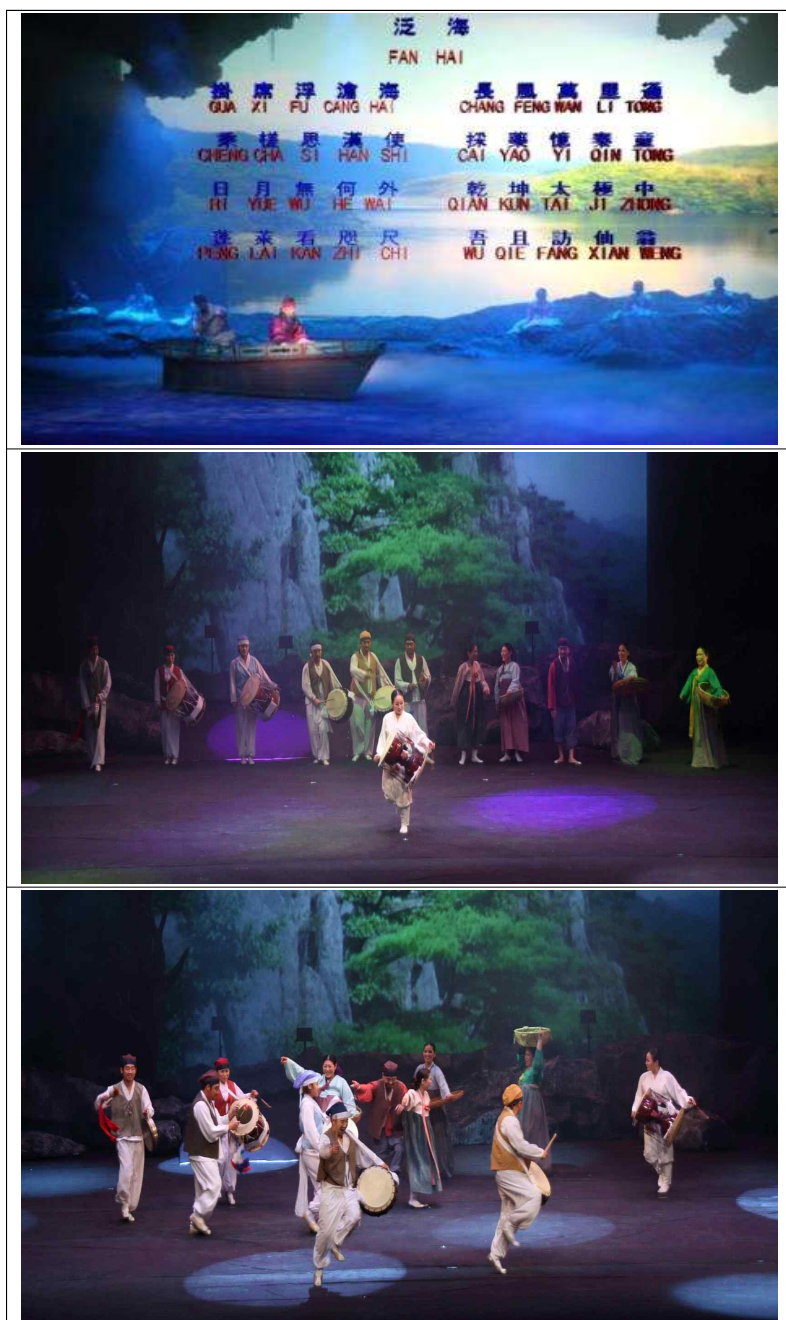
<그림 64> 1막 2장/쌍녀분 이야기, 1막 3장/팔·구 남자의 등장, 1막 4장/화답시를 주고받는 최치원과 팔·구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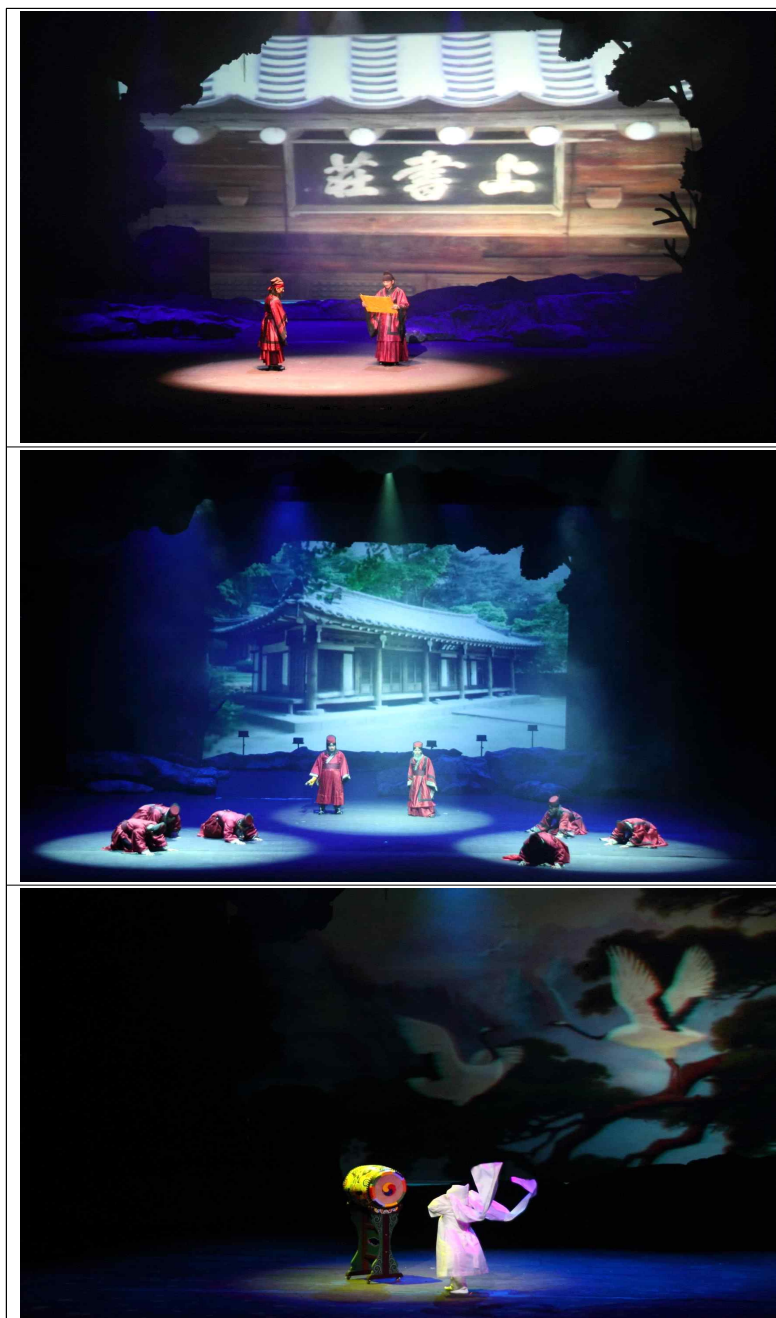
<그림 65> 2막 1장/황소의 난을 제압한 최치원(토황소격문)



<그림 66> 2막 2장/당황제께 자금어대 하사받는 최치원, 2막 3장/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림 67> 2막 4장/최치원의 금의환향



<그림 68> 3막 1장/시독을 겸한 한림학사 임명과 왕의 죽음



<그림 69> 3막 2장/진성여왕께 받치는 시무책십여조



<그림 70> 3막 3장/정계를 떠나 가야산으로 간 최치원



<그림 71> 포토타임/관객과의 만남

3. 이언적 창극

(1) 이언적의 일화⁷³⁾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여주이다. 자는 복고(復古)이고,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이며,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처음 이름은 적(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 (彦)자를 더하여 언적이라고 하였다. 호는 주희의 호인 회암(晦菴)을 따서 스스로 '회재'라고 하였다. 성리학을 정립한 조선조 최고의 사상가 가운데 한사람으로,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언적은 외가인 양동마을 서백당(書百堂)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 이번⁷⁴⁾을 여원 소년 이언적을 외삼촌인 우재 손중돈⁷⁵⁾이 부임지마다 데리고 다니며 학문을 가르칠 정도로 아꼈다. 남달리 영특하였고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웠던 이언적은 손중돈을 따라 다니며 힘써 공부한 결과, 14세에 벌써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어린 나이에 스스로 유교의 성리(性理)를 구명할 만큼 손중돈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508년(중종3) 이언적의 나이 18세 때 박숭부(朴崇阜)의 딸 함양박씨와 결혼하였으나 오래토록 아들이 없어 사촌 동생 이통(李通)의 아들이자 5촌 조카인 이응인(李應仁)을 양자로 삼았다. 하지만 이언적은 당시의 풍습대로 25세 때(1515년) 소실을 들인다. 그녀는 양주 석씨로 감포군 만호 석귀동의 3녀가 시집오면서 1516년(중종11년) 양동마을에서 20리쯤 떨어진 독락당에 살았다. 독락당에서 아들 이전인(李全仁; 1516~1568)을 낳았다.

73) 이언적 지음, 조순희 옮김, 『회재집 1, 2』, 한국고전번역원, 2016.

74) 이번(李蕃, 1463~1500); 조선의 문신이며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숙한(叔翰), 1495년(연산군 1)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생원이 되고 성균관 유생으로 수학하다가 3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 사후 좌찬성에 추증.

75) 손중돈(孫仲墩, 1463~1529); 조선의 문신, 본관은 경주, 자는 태발(太發), 호는 우재(愚齋), 계천군(鷄川君)의 아들.

이언적은 24세에 별시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가 요직을 거친다. 27세에 ‘오잠(五箴)’을 지은 그가 학자적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27~8세에 망기당(忘機堂) 조한보와 4차례에 걸쳐 무극태극(無極太極)논변이다. 회재는 냉철한 논리를 바탕으로 조한보의 학설을 비판하여, 이황을 포함한 후대 학자들로부터 "이단의 사설을 물리치고 성리학의 본원을 바로 세웠다"는 극찬을 받는다. 30세에는 또 ‘입잠(立箴)’을 지었다.

1530년(중종16) 당시 실력자인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끝내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의 나이 41세에 낙향하여 독락당에서 7년간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몰두한다. ‘홀로 즐겁다’는 뜻의 ‘독락’이라는 이름에서 세상을 거부했던 이언적은 송죽과 갖가지 화초를 심으며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에서 느끼는 섭리를 시(詩)로 남겼는데 바로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이다. 청년기 망기당 조한보와 치열한 논쟁이 회재사상의 틀을 완성시켰다면 중년의 소요자적(逍遙自適)생활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인격과 학문의 폭과 깊이를 더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독락당은 이언적의 부친인 이번이 가끔 사용한 3칸짜리 초옥이 있던 자리로 이언적의 두 번째 부인인 석씨 부인이 시집오면서 안채와 사랑채를 지었다. 이언적은 사랑채를 신축하면서 독락당이라 했고 부친의 초옥을 고쳐 계정(溪亭)이라 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작은 초가삼간을 지어놓고 자연을 즐기던 독락당 역시 이언적에게 아마 특별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자옥산(紫玉山) 기슭에 위치한 초가삼간 독락당을 지어 놓고 자연을 벗 삼아 지은 시조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의 나이 30세에 입잠(入箴)을 짓기를, "하늘의 덕을 본 받아 바른 법을 따름에 있어 구습(舊習)을 버리고 성법(聖法)만을 한결 따라서 경망함을 바로 잡고 태만함을 일깨워, 남이 하나로서 되거든 나는 백(百)을 해서라도 진실을 쌓고 노력을 계속하여 성인(聖人)의 지경에 들어 가련다"고 다짐하였다. 무위(無爲) 그리고 관심(觀心)詩를 보면 독락당은 그가 30세에 지은 입잠(入箴)을 몸소 실천한 곳이기도 하다.

옥산서원에서 독락당으로 건너가는 계곡인 자계천 위에는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다. 이곳에 외나무다리를 놓은데는 뜻이 있으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외나무다리를 건너기가 무섭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건너기 쉬울 것이니 학문을 배우기 전에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건너오라” 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한다. 이언적은 이 주변의 자연에 이름을 붙이기를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는 화개산(華蓋山)이라 불렀고, 서쪽 봉우리는 자옥산(紫玉山), 북쪽 봉우리는 도덕산(道德山)이라 하였으며, 멀리 남쪽으로 보이는 산은 무학산(舞鶴山)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또한 맑은 자계천이 흐르는 계곡의 바위들에도 이름을 붙였다. 독락당의 계정을 받치고 있는 시냇가의 반석은 물고기 노는 것을 보며 즐기는 곳이라 하여 관어대(觀魚臺)라 불렀으며, 옥산서원 앞에 있는 널다란 바위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곳이라 하여 세심대(洗心臺)라 하였다. 「매제집(晦齋集) 권 2」, 1535년에 지은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중 무위(無爲)이다.

이렇게 7년을 보낸 후 김안로 일파의 몰락과 함께 이언적은 정계로 복귀했다. 1543년, 회재 이언적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다. 고향인 양동마을에 동생 농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었다. 1547년 이언적은 을사사화 후 윤원형 일파가 조작한 양재역벽서(良才驛壁書)사건에 연루되어 평안북도 강계(江界)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아들 이전인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우 농재⁷⁶⁾, 조카 등이 달천(獺川)까지 동행한다. 이언적이 유배지를 떠나는 해인 1547년에 지은 한시가 전한다.

형인 회재와 아우 농재의 우애는 각별했다. 농재는 달천까지 동행하며 안타까운 이별을 눈물로 지은 와 이에 화답한 회재의 시이다. 작별인사를 나눈 후, 회재의 아들 잠계 이전인(李全仁, 1516~1568)은 강계까지 아버지를 모시며 유배생활을 함께 했다. 압록강을 끼고 있는 첩첩산중의 강계는 사방이 산뿐인 해발 2000미터의 산속을 한 번 들어오면 살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형세를

76) 이언괄(李彦适, 1494~1553)의 자는 자용(子容), 호는 농재(農齋), 본관은 여주, 경주 출신이다. 언적(彦迪)의 동생이다. 형으로부터 글을 배운 그는 귀먹은 듯 살아가라는 현인의 가르침을 따라 호를 농재라 하였다. 저서에 《농재일고(農齋逸稿)》가 있다.

이루고 있다. 산에는 맹수들이 있고 또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고, 야인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국방상의 취약지이다.

정미년 가을, 이언적은 귀양 가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 걱정을 했던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모습은 「서경(書鏡)」이라는 시에서 엿볼 수 있다. 이언적은 책과 거울로 해석되는 이 시를 짓고 정갈한 마음을 더욱 채찍질했다. “책 읽으면서 내 마음 바로 잡고, 거울 보면서 내 모습 바로 잡는다. 책과 거울이 항상 앞에 있으니 잠시도 바른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 없다네”

그의 이 같은 자세는 평생 동안 계속됐다. 강계 유배 시절에도 책상에 경계의 글을 써놓고 행동을 바르게 했다. “나는 하루 세 번 내 몸을 반성한다. 하늘을 향해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생각한다. 임금과 아버이를 위하여 정성이 모자라지 않는가를 고민한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본다. 이언적은 마음을 더 채근하기 위해 지표로 삼은 다섯 가지 글을 적는다. 하늘의 진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을 크게 키우고, 몸을 반듯하게 다루고,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하고, 진실된 뜻을 더욱 돈독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형인 이언적을 대신하여 아우 이언괄은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위로하고 봉양함에 극진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형이 유배를 당하던 해에 주어진 송라도찰방의 자리를 제수 받았으나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벼슬에 뜻이 없었다. 날마다 어머니의 슬하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평화롭고 편안하게 해 드리는 한편 멀리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언적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밤마다 향을 피워 놓고 형의 사면을 하늘에 빌었다.

이언괄은 또 소를 올려 형의 원통함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회재는 이를 극력 만류하였다. 무신년 6월 18일 대부인(大夫人)이 별세하셨다. 이언적이 유배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6여년 동안 부자(父子)의 정뿐 아니라 사제(師弟)로서 수많은 학문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전인이 쓴 「관서문답록(關西問答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정미년 1547(명종2년) 가을 서요(西遼)변방 강계(江界)를 일컬음에서 귀양살이를 하시게 되었는데 다음해 무신년 6월 18일 대부인(大夫人)할머님이 별세하셨다. 아버님께서 수천리 밖에서 부음을 들으시고 유의복(遺衣服)으로 신위(神位)를 차려 놓고 조석과 삭망으로 전(奠)에 극진히 정성을 행하며 피눈물로 곡읍(哭泣)을 하기를 해를 넘기시니 몸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전인이 비록 곁에서 모시고는 있으나 오히려 위안되시도록 받들지 못하고 다만 민망하여 울 뿐이다”

이때 이언괄의 나이는 오십을 넘었으며 또한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언괄은 병을 무릅쓰고 몸소 염빈과 장례등절에 성력을 다하여 유감없이 봉행하고 삼년간을 시묘하면서 조석 봉전에도 심혈을 다하였다. 삼년의 상례를 마치니 이언괄은 슬픔에 지친 나머지 허약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으나 형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동쪽 끝 경주에서 북쪽 끝 강계까지 멀고 험한 수천리 길을 달려가 형제간에 눈물로 상봉하였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몇 달을 같이 있다가 가을이 오니 변방에는 추위가 일찍 들었다. 이언적은 아우 이언괄이 병첩하고 늙고 허약한 몸으로는 추운지방에서 더 머물 수 없으며 또한 추위를 무릅쓰고 천리 길의 원행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고 곧 돌아가게 하였다. 이언괄은 할 수 없이 형제간에 하직하고 돌아올 새 이별에 임하여 이언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우 자용과 작별한다. 강계에서 돌아 올 때 가형의 증별시를 울면서 차운(次韻)한다.

이언괄은 고향에 돌아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병이 날로 더하여 얼마 살지 못할 것이며, 이언적이 적소에서 풀려날 기약마저 없으니 슬프고 절박한 감회가 간절하였다. 이에 사생을 생각 하지 아니하고 형의 원통함을 조정에 호소코자 하는 한편 선생에게 편지를 올려 이르기 “옛 사람 중 형제간에 죽기를 서로 다투는 자가 있었다고 하니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조정에 호소하면 한 가닥의 희망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언적이 이 편지를 보고 또 다시 중지 시켰다. 이언괄은 이로 인하여 마음이 울울하고 병이 날로 더하여 마침내 이듬해 계축년 정월 초하룻날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육십 이었다. 노모의 별세이후 근친하게 여기며 의지하던 사람은 아우 이언괄뿐이었다. 이런 이언괄도 노모가 가신지 5년 후 역시 눈을 감는다. 세상을 떠난 것은 1월인데 이언괄의 부음을 들은 것은 3월이다. 그 슬픔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언적이 슬퍼하면서 이르기를,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상을 당하지 아니하며 형제간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나와 같은 사람은 고금에 없는 바라 칠 년 동안 슬퍼하였으며 네가 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한 나머지 목숨까지 잃게 되었으니 고금에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토록 지극한 너의 효우에 마땅히 신명과 하늘이 감응하였을 것인데도 하늘이 막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어찌 이와 같이 불인한고. 너의 숫장과 상언의 초본에 있는 말들이 매우 격절하였다. 내가 매양 펴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이 차마 다시 읽어 보겠는가 살아서는 형제가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였고 상고를 당하여서도 염빈양례를 함께 받들지 못하였다. 평생토록 멀리 가려 있어 같이 있었던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제 너를 선영 아래에 장사하고 나도 죽으면 그 곁에 묻혀 지하에서 서로 만나 세세로 형제가 되어 이생에서 못다한 인연을 내생에서 다시 맺어 이별 없이 살아가기 소원이다 ”

맹자가 이르되, “인(仁)의 실체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며 의(義)의 실체는 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언괄은 어버이에게나 형에게 있어서 어찌 섬기고 따르는데 그쳤다고 말 하겠는가. 인이 지극하고 의를 다 하였으니 비록 신명에 통하였다고 일러도 가할 것이다. 1553년 11월 23일 이언적이 사망하자, 아들 이전인은 이언적의 적소에서 지은(저술한) 책들을 시신과 함께 갖고 올수가 없어 그곳에 있는 주인에게 잘 간수해 달라고 부탁한다. 아들 전인은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운구하니 12월 12일 강계를 출

발하여 이듬해 2월 경주에 이른다. 이때 유배된 자의 시신이라 아무도 도움을 줄려고 하지 않았다.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태백-봉화-안동-신령을 지나 그 먼 길을 3개월여에 걸쳐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 올 때 사용된 대나무 운구죽(運柩竹)이 전해지고 있다. 운구기간이 길었던 것은 이언적을 포함한 윤원형이 살고 있는 한양을 피해 함경도와 강원도 해안길로 둘러서 와야 했던 탓이다. 「충의(忠義) 효열록(孝烈錄)」 내용에 이언적의 초상이 자세히 전한다.

귀양간지 7년만인 1553년 음력 11월 23일 향년 63세로 종세(終世)하였다. 잠계 이전인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운구할 준비를 하며 주야로 통곡하자 지나는 나무꾼들도 함께 울어 주었다고 한다. 귀양살이 시신을 돕다가 혹시라도 화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던 시절이었다. 음력 12월 12일 운구를 시작하였으나, 천지가 온통 꿈꿈 얼어 길이 빙판이라 제대로 운구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니 보는 사람 모두가 흠을 날라다 빙판길을 덮어주고 강물에 다리를 놓아 운구를 도와 주어 마침내 이듬해 안동 도산에 당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퇴계 이황은 제자 조목 외 2명을 보내어 대신 조상케 했다. 그런데 그들이 갔을때 상주인 잠계가 피로 물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보신탕을 먹고 있었다. 조문을 하지 않고 돌아가 스승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퇴계는 꾸지람을 하면서 다시 가서 상문하라고 하였다. 퇴계의 제자들이 다시 와서 자세한 내막을 살핀 즉, 허리에 두른 수건은 엄동설한에 석 달이 넘도록 수천리 길을 혼자서 운구해 오면서 너무나 애통하여 피눈물을 닦은 수건이었다. 그런 탓으로 앞이 보이지가 않았다 한다. 더구나 온 몸에 동상과 탈진으로 상주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부모상에 자식이 그 예(禮)를 다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불효가 있으랴’ 싶어 도산 주민들이 몸을 가누라고 끓여준 보신탕을 먹지 않으면 경주까지 갈 수가 없게 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이 사실을 알고 상주의 지극한 효심에 감탄하며 정중하게 조문하였다는 것이다. 이듬해 2월 전에 묘를 입장(入葬)하고 잠계 이전인은 3년 동안 묘소에서 여막 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삼년상 후, 5년 만에 이언적의 책들을 강계로부터 인수받아 퇴계 질정을 받아낸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그 이듬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소문을 작성하여 회재 선생이 유배지에서 성군이 되기 위한 8가지 치국요점을 적은 「진수팔규(進修八規)」와 함께 명종에게 올리니 이를 본 명종은 자신의 처벌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언적의 관직을 복명한다. 1568년 이전인은 이언적의 유문(遺文)과 퇴계 이황이 쓴 행장을 갖추어 올리니 선조 즉위년에 이언적은 의정부 영의정에 증직(贈職)된다.

옥산서원(玉山書院)은 이언적이 별세한지 20년 뒤인 1572년(선조5), 경주 부윤 이제민이 사림의 뜻에 따라 이언적이 은둔했던 곳을 서원 자리로 정하고, 그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세웠다. 2년 후인 1574년 경상도 관찰사 김계휘의 제청에 의해 선조로부터 ‘옥산서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사액서원이 되었다.

(2) 창극의 시창과 시조창

1) 시창

① 영남루차점필재김선생운(嶺南樓次佔畢齋金先生韻)

우재 손중돈은 이언적의 외삼촌으로 어린 이언적을 데리고 다니며 학문을 열중하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당시 1495년 손중돈이 경상도사가 되었을 때 영남루에 올라 점필재 김종직의 시 「망호당화세번(望湖堂和世 蕃)」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영남루차점필재김선생운(嶺南樓次佔畢齋金先生韻)

손중돈

청산단처벽강두(靑山斷處碧江頭)이네
누압화당당압류(樓壓華堂堂壓流)하네
소취미성풍경모(小醉未醒風景暮)하여
월명호상진감류(月明湖上儘堪留)이라

[해석] 영남루에서 점필재 김 선생 시에 차운하다
푸른 산 달려오다 강물을 만나는 곳
누각은 정자를, 정자는 강물을 굽어 보네
술기운 훈훈하고 풍경도 저물어
강물에 달이 밝아오니 떠나기 싫구나

4구		3구		2구		1구	
漢漢 - -	월며	太太 - 黃	소취	·汰漢 - 漢	누아	·仲仲 - -	청사
林漢 - △漢		仲仲 仲林	미	林漢 -		太	
泚泚 - -		仲 - -	서	- -泚泚 ·林仲		黃- -仲 仲泚	다
△汰 - 泚泚		南- -漢泚 仲		- 黃 仲		仲 - 黃	처
林南 ·林仲 △	○	黃 仲 △	○	- - △	△	仲 - △	
漢南 - -漢	호사	南南 - -漢	풍겨	△南南 - -泚	화다	·林仲 - -	벽가
·林仲 仲 -△		·林仲 - -		·林仲 - -		林仲 泚	○
黃 - △黃	○	·仲 仲 △	모	黃 - △黃	○	△仲 - △	두
仲	지			仲	다		
黃	가			黃	아		
仲	류			仲	류		
△仲 - -				·林仲 仲 -			
泚泚 黃 △				- - △			

<그림 72> 영제시창 ‘영남루차점필재김선생운(嶺南樓次佔畢齋金先生韻)’

②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중 관심(觀心)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은 이언적이 숲 속의 거처를 열다섯 수로 노래함을 말한다. 그중 관심은 초야에 기거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수양하는 고뇌가 담겨 있다.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중 관심(觀心)

이언적

공산중야정관금(空山中夜整冠襟)하니
일점청등일편심(一點靑燈一片心)이라
본체이중명처험(本體已從明處驗)하여
진원경향정중심(眞源更向靜中尋)하리

[해석] 마음을 보다

빈 산에서 한 밤중에 정좌하고 있노라니
한 점의 푸른 등불 한 마음을 비추누나
본체를 밝은 데서 이미 징험하였기에
진원을 고요한 가운데서 다시 찾네⁷⁷⁾

77) 조순희 역, 임거십오영, 한국고전번역원, 2013.

4구		3구		2구		1구	
漢黃 — —	진위	太太 — 黃	본체	汰漢 — —	일저	仲仲 — —	공사
林漢 — △漢		仲仲 仲林	< 이-	林漢 —		太	
漣 — —		仲 — —	조	— — ·林仲		黃 } —仲 仲	主○
△汰 — 漣		南— —漢 仲		— 黃 仲		仲 — 黃	야
林南 ·林仲 △	L	黃 仲 △	o	— — △	□	仲 — △	
漢南 — —漢	경하	南南 — —漢	명처	△南南 — —漢	청드	·林仲 — —	정과
·林仲 仲 —L		·林仲 — —		·林仲 — —		林仲 — —	L
黃 — △黃 }		仲 仲 △	험	黃 — △黃 }		△仲 — △	그
仲 }	저			仲 — —	이		
黃 — 仲	주			黃 — 仲	퍼		
△仲 — —	← 시			·林仲 仲 —	← 시		
林黃 黃 △				— — △	□		

〈그림 73〉 영제시창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 중 관심(觀心)’

③ 가형 부 강계적소시추지 달천 읍정(家兄 赴 江界謫所時追至 獺川 泣呈)

이언적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발견된 익명의 벽서에 연류되어 함경도 강계로 귀향을 가게 된다. 동생인 이언괄은 현재의 충북 충주시와 세정사이에 있는 달천까지 따라가 형제간의 애틋한 마음을 시로서 주로 받은 내용이다.

가형 부 강계적소시추지 달천 읍정(家兄 赴 江界謫所時追至 獺川 泣呈)

이언괄

백일청신상령지(白日清晨上嶺遲)더니
고충자신유수지(孤忠自信有誰知)인고
삼천거로유유한(三千去路悠悠恨)함을
지위고당학발비(只爲高堂鶴髮悲)하라

[해석] 가형이 강계 적소로 갈 때 달천까지 따라가 이별을 눈물로 읊은 시

한낮에도 새벽에도 고갯마루 올라
임금 향한 외로운 충성 그 누가 알아주랴
삼천리 귀양 가는 길의 하염없는 한은
집에 계신 백발 노모의 슬픔 때문이네

[illegible]

④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우 자용과 작별하다(別舍弟子容還鄉 辛亥仲秋)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생 이언괄과 작별하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언적은 시로 남겼다.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가보지 못한 한스러움이 시에 담겨 있다.

신해년(1551, 명종 6)8월, 이언적 61세때 지은 시이다. 1551년, 모친의 상을 치른 뒤 아우 이언괄은 형인 이언적을 만나러 와서 몇 달을 머물다가 8월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언괄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로부터 1년 4개월 남짓 지난 1553년 1월 1일에 이언괄은 세상을 떠났다.⁷⁸⁾



<그림 75> 『회재집』 권4 <서천록(西遷錄)>

78) 이언적, 『회재집』, 권6, 제망제자용문과 이언괄, 『농재일고』, 권2, 부록, 행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우 자용과 작별하다(別舍弟子容還鄉 辛亥仲秋)

이언적

참격 흰 위도 오추(慘闊萱闥度五秋)이나
촌심 쇠털갈시휴(寸心摧裂曷時休)하라
삼상채무금난재(三觴彩舞今難再)하고
일곡 황구역미유(一哭荒丘亦靡由)로다
세만경 침상로감(歲晚更添霜露感)하니
혼치불각도도수(魂馳不覺道途脩)하도다
빙군요기천애루(憑君遙寄天涯淚)노니
쇄향공산천주수(灑向空山薦酒羞)하옵기

[해석]

흰당에 슬픈 정적 감돈 지가 오 년인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언제 다하려나
채무 추며 술 석 잔을 올릴 기약 이제 없고
무덤에서 한 번 곡도 할 수 없는 처지로세
늘그막에 상로의 감회 다시 더해지니
혼이 달려가느라고 길이 먼 줄 모르도다
그대에게 하늘가의 눈물 멀리 부치노니
빈산에 뿌려 주고 술과 제수 올려주게⁷⁹⁾

79) 조순희 역, 『회재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빙군요기천애루(憑君遙寄天涯淚) 쇠향공산천주수(灑向空山薦酒羞)

8구		7구		6구		5구		4구		3구		2구		1구	
·漢漢	새하	太太	빙구	漢漢	흔치	·仲林	세마	·漢漢	일고	太太	삼사	·汰漢	흔시	·仲仲	참겨
-		-		-		-		-		-		-		-	
-		黃-		-		-		-		黃-		-		-	
汰		仲		·汰		南漢		·林漢		-		·漢		-	
-		仲林		-		仲		-		仲		·林漢		-	
△漢		△漢		-		△漢		△漢		仲林		-		太	
·仲		△仲		漢漢		仲仲		·仲		仲		-		黃-	
-		南-		漢		南		-		南		·林仲		·仲	
-		·南		漢		·南		-		-		-		·仲	
△漢		·漢		·漢		·漢		·汰		·漢		-		仲	
-		·仲		·漢		·林仲		-		仲		黃		-	
-		·黃		-		·黃		·漢		·黃		仲		黃	
·南		仲		·漢		仲		·南		仲		-		仲	
林仲		·		·南		·		·林仲		·		-		-	
△		△		仲		△		△		△		△		-△	
林南	공사	南	치	·漢南	불가	南	사	漢南	황구	南南	금나	南南	취러	·林	도
漢		·漢		·漢		·		·漢		·漢		·漢		·	오
·林仲		·仲	에	·林仲		·林仲	로	·林仲		·林仲		·林仲		·林仲	
仲		-		仲		-		仲		-		-		林仲	
-		-		-		-		-		-		-		-	
黃		-	루	黃		-	갑	黃		·	제	黃		仲	추
·		仲		-		仲		-		仲		-		-	
△黃		△		△黃		△		△黃		△		△黃		△	
仲	치			仲	도			仲	여			仲	가		
-				-				-				-			
黃	주			黃	도			黃	미			黃	시		
·仲				·仲				·仲				·仲			
△仲	수			△仲	수			△仲	유			△仲	휴		
-				-				-				-			
-				-				-				-			
黃△				△				△				△			

<그림 76> 영제시창 ‘별사제자용환향 신헤중추(別舍弟子容還鄉 辛亥仲秋)’

⑤ 서색환향시읍차가형증별운(西塞還鄉時泣次家兄贈別韻)

이 시는 동생 이언괄이 형인 이언적의 귀향 살던 강계에 갔다 돌아오면서 지은 시로 이언적과 나눈 시중 이언적의 원운에 차운한 시이다.

서색환향시읍차가형증별운(西塞還鄉時泣次家兄贈別韻)

이언괄

임분정서경망연(臨分情緒更茫然)하여
묵묵상간막막천(默默相看漠漠天)하네
우주고안쌍병골(宇宙枯顏雙病骨)하고
건곤백발양쇠연(乾坤白髮兩衰年)이네
신명우후형해재(神明佑厚形骸在)하고
성주은심성명전(聖主恩深性命全)하네
혈누강환천리원(血淚強還千里遠)에
추산일로암운연(秋山一路暗雲煙)이로다

[해석]

헤어지자니 정회가 다시 망연하여
말없이 서로 앉아 먼 하늘만 쳐다보네
우주 간에 여위고 병든 우리 형제여
천지간에 머리 흰 두 늙은이 이네
신명의 큰 도움으로 육체 남아있고
임금의 은혜 깊어서 생명 온전하네
피 눈물 머금고 천리 머나먼 길 돌아오는데
쭉 뻗은 가을 산길 구름 안개에 잠겼네

임분정서경양연(臨分情緒更茫然)	묵묵상간막막천(默默相看漠漠天)
우주고안쌍병골(宇宙枯顏雙病骨)	건곤백발양시연(乾坤白髮兩衰年)
신명우후형해재(神明佑厚形骸在)	성주은심성명전(聖主恩深性命全)
혈누강환천리원(血淚強還千里遠)	추산일로암운연(秋山一路暗雲煙)

[illegible]

<그림 77> 영제시창 ‘서색환향시읍차가형증별운’

⑥ 무위(無爲)

무위(無爲)

이언적

만물변천무정태(萬物變遷無定態)

일신한적자수시(一身閒適自隨時)

년래점성경영력(年來漸省經營力)

장대청산부부시(長對靑山不賦詩)

[해석] 무위

만물은 변천하여 일정한 자태없고

한 몸은 한적하게 절로 때를 따르노라

연래로 경영하는 힘을 점차 줄인지라

산을 오래 바라보며 시조차도 짓지 않네⁸⁰⁾

80) 조순희 역, 『회재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2) 시조창

이언적과 낙향 후에 고향인 독락당에서 아우인 이언팔과 형제애를 쌓으며 지낸다. 독락당에서 자연을 벗 삼으며 독락당 주변 계곡에 물고기가 노니는 것을 보고 ‘관어대(觀魚臺)’라 하고 널따란 바위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의 ‘세심대(洗心臺)’라 하였다. 안빈낙도하는 이언적의 마음을 청산곡에 비유하였다.

청산곡(靑山曲)

이언적

자옥산(紫玉山) 깊은 곳에 초려(草廬) 한 칸 지어두고
반 칸은 청풍(靑風) 주고 반 칸은 명월(明月) 주니
청산(靑山)은 들일 데 없어 둘러두고 보리라

채숙자 平時調中 이연적의 청산곡(靑山曲)

초장 . 자옥산(紫玉山) 깊은 곳에 초려(草廬) 한 칸 지어두고
 중장 . 반 칸은 청풍(靑風) 주고 반 칸은 명월(明月) 주니
 종장 . 청산(靑山)은 돌일 데 없어 둘러두고 보리라

종 장		중 장		초 장	
潢 - 潢 - △ 潢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潢 - 潢 - △	처 - - - - - - - - - - △	潢 - 潢 - 潢 - 潢 - 	

(3) 극본

프롤로그

1500(연산군 8)년 2월, 회재 이언적이 10세 때 성균관 유생이었던 아버지 이번(李蕃)이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에 부친상을 당한 어린 회재 이언적은 상복을 입고 마지막 3년 상을 보내고 있다.

어린회재; 아버지. 아버지를 곁에 모시고 지낸 낮과 밤들이 이리도 야속하고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밤도 참 곱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지낼 날들을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살아생전 부자간의 따뜻한 정을 이리 일찍 나누지 못하고 가셨음이 너무 아쉽고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 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모실 마지막 밤이 되어가니 이 밤이 어찌 이리도 야속하고 원망스러운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옵니다. 흐흐흑.

회재가 술을 따른다.

어린회재;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께 극락왕생의 잔 두 손 모아 올리 옵니다. 더 오래 아버님을 모시지 못한 이 불효자를 용서치 마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회재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 린채 일어나지 않는다. 잠시 후 어머니가 어린 회재를 안타까워하며 다가온다.

어머니; 복고야! 그만 일어 나거라.

어린회재; 어머니! 이제 진정 아버지와 이별을 할 때 입니다.

어머니; 복고야! 아버지도 너의 효심을 저 멀리서 지켜보며 웃고 계 실게다. 그러니 이제 그만 편히 보내드려라.

어린회재; (잠시 머뭇거린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구 너두 아버지께 누를 끼치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린회재; 네 꼭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 하여 너를 외삼촌께 보내어 글공부에 매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어린회재; 어머니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몸을 좀 추스르고 길 떠날 재미를 하도록 하여라.

이언적; 네 어머니.

3년 상을 마친 이언적의 나이 12세 되던 해, 어머니 손씨 부인은 아들의 글공부를 위해 경세가인 오빠 우재 손중돈에게 보낸다. 어린 회재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어머니; 복고야! 어린 너를 긴 세월 동안 불철주야 아버지 무덤 앞에서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만 시키고 에미 품에 잠시나마 두지도 못하고 보내야하는 이 에미를 원망 말아다오.

어머니는 어린 회재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다.

- 암 전 -

서막

아름다운 산새 지저귀고 계곡의 물소리 정겹게 들리며 자연의 경관들에 둘러싸인 영남루에 관리와 우재가 앉아 술을 한잔 씹 나누고 있다.

관리; 이렇게 우재 선생님을 이 마을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재; 저 또한 이리 좋은 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병풍처럼 둘러싸인 경치들을 보고 있노라니 글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관리; 그러하십니까. 어떤 글권지 궁금합니다.

우재; 그림 들어 보시겠습니까?

관리; 들어 보다마다요. 하하하~

우재 선생이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며 시한수를 읊기 시작한다.

영제시창 - 영남루차점필재김선생운

관리; (박수를 치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이 곳 영남루의 경치에 딱 어울리는 시한수입니다.

우재; 참으로 좋은 곳이지요, 하하하. (술잔을 나누고) 우리 복고가 학문을 닦기에 그만이겠습니다.

관리; 복고라면. 부임지 마다 데리고 다닌다는 외조카 말씀이십니까?

우재; 이곳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하하하

관리; 당연하지요. 외조카에 대한 애착도 대단하거니와 그 조카라는 아이가 그 리도 영특하다면서요?

우재; 영특하지요! 예! 14살에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스스로 유교의 성리를 구명할 만큼 영특한 아입니다. 그런 아이를 어찌 아끼지 않겠습니까?

관리; 허나, 주제넘은 이야기 오나.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학문에만 열중하니 걱정입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우재;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제가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지요. 저 또한 부모에 대한 효심이 걱정되었는데. 글썄 매일 같이 제 어머니가 있는 집을 향해 아침, 점심 저녁 문안인사를 올리지 뵈니까?

관리; 이거 원,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답니까? 남다른입니다! 하하하.

우재; 그 아이는 필시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하하.

우재와 관리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린다. 이언적은 24세에 별시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가 요직을 거친다. 27세에 ‘오잠(五箴)’을 지은 그가 학자적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27~8세에 망기당(忘機堂) 조한보와의 4차례에 걸친 무극태극(無極太極)논변이다. 회재는 냉철한 논리를 바탕으로 조한보의 학설을 비판하여, 이황을 포함한 후대 학자들로 부터 "이단의 사설을 물리치고 성리학의 본원을 바로 세웠다"는 극찬을 받는다. 30세에는 또 ‘입잠(立箴)’을 지었다.

- 암 전 -

이언적이 홀로 서있고 신하들이 반대쪽에 서있다. 무대 뒤, 왕의 그림자가 아스라이 비친다.

회재; 신 이언적 아뢰옵니다! 김안로의 등용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자의 횡포는 이미 저작거리까지 파다하옵니다! 김안로의 등용을 윤택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신하;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요! 충신의 등용을 윤택하지 말라고 하시다니요!
전하! 이자가 바로 간신입니다! 이언적을 파직하셔야 합니다! 전하!

회재; 제 관직은 파직하셔도 좋으나 전하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김안로의 등용을 윤택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신하; 간언을 드리는 이언적을 파직하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언적이 관복과 머리에 쓴 관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난다.

제1막 제1장 / 낙향한 회재

고향으로 돌아온 회재는 동락당 ‘계정’에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긴다.

회재: 아버지! 아버지께서 살아 생 전 이곳의 경치를 참 많이도 좋아하시며 즐기셨지요. 이젠 세월이 지나 아버님이 보시던 이곳의 경치를 제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초옥 앞에 흐르는 저 자계천에 이내 근심 모두 흘리고 싶습니다.

농재가 분에 차 뛰어 들어온다.

농재: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형님, 저 왔습니다.

회재: 자용이 왔느냐?

농재가 들어서자마자 안타까움에 탄식한다.

농재: 형님, 이리 저를 반기실 때 입니까?

회재: 내 아우가 왔으니 반겨야지 화를 낼까?

농재: 형님! 학자로 명성을 떨치시던 형님께서 김안로의 등용으로 인해 관직을 박탈당하시고 이렇게 낙향하시다니요!

회재: 어찌하겠나? 나보다 그 자가 나라에 더 필요한 가 보지.

농재: 외척을 등에 업고 탐욕스런 정치를 서슴치 않고 하는 자입니다!

회재: 그런 자라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게나.

농재: 어찌 이리 편한 소리만 하십니까. 저는 그저 형님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회재: 안타깝다니! 내 얼마나 좋은데!

농재: 형님! 아예 이곳에 눌러 앉을 생각이십니까?

회재; 그리 되면 더 좋고! 아! 저 시냇가의 반석은 내가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보는 곳이라 관어대라 하고, 저기 저 아래 넓다란 바위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로 세심대라 하였다. 어떠하냐? 하하하.

농재; (형님의 맑은 모습에 같이 웃으며) 예. 형님! 잘 지으셨습니다.

회재; 그리하냐? 허허..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천경계를 벗 삼아 이렇게 앉고 보니 시흥이 절로 나는 구나. ‘청산곡’ 을 읊조린다.

영제시조창; 청산곡

이때, 아들 이전인이 들어온다.

전인; 숙부님 오셨습니까?

농재; 오냐. 많이 컸구나.

회재; 그래 할머니는 어찌하고 계시냐?

전인; 안채에서 쉬고 계십니다.

회재; 자식 된 도리로 밖으론 뜻을 펼치고 안으론 집안의 기세를 다져야 하거늘, 어머님 뵈면 면목이 없구나.

전인; 걱정 마십시오. 근심이 서리시지 않게 항상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서는 부디 저희 같은 유생들이 올바른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강경하십시오.

농재; 전인이가 형님을 닮아 효심이 남다른구나.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회재; 그리 하거라.

서산의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아버지 생각과 나랏일 걱정애 마음은 뒤숭숭 해 지기만하고 홀로 남은 회재는 먼 산을 바라본다.

영제시창 - 관심(觀心)

소리; 권력을 남용하며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죽음을 자처한 김안로의 관직을 폐하고 유배를 보낸다. 또한 충심으로 그의 행적을 고하다 억울하게 파직된 이언적을 복직하고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다.

1537년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복직되었다. 1539년 전주 부윤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고, 당시의 재변(災變)에 대한 대책문인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를 올려 중종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 1543년 7월, 회재 이언적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다.

- 암 전 -

제1막 제2장 / 회재의 복직.

잔치 한마당 - 마을사람들.

회재의 벗들이 모여 이언적의 복직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신명나는 춤과 소리 한마당이 펼쳐진다.

유지1: 이리 다시 복직하시니 나라의 덕이요 저희 학자들의 기쁨입니다!

유지2: 낙향하신 동안 엮으신 학문에 감탄하여 유생들이 대감을 뵈기를 밤낮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회재: 유생들과의 만남이라면 내 언제든 반기겠습니다. 하하하~

모두들 즐겁게 한바탕 호탕하게 웃는다.

유지3: 헌데 이 곳의 경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회재: 좋다마다요. 이곳은 나의 심신을 다스리기 위해 즐겨 찾아 시를 읊조리는 곳입니다.

유지4: 그러하오면 대감의 시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이까?

회재; 그리하면, 이 술값을 요량으로 시 한수 지어보겠습니다.

회재와 선비들 웃으며 술 한 잔을 기울이고 회재는 시상에 젖어든다.

회재; 정정명(定靜銘) 낭송.

유지4; 허허허허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농재; 허나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김안로가 죽자 이제는 윤원형이 설치니.

회재; 인종께서 승하하시고 어린 전하를 대신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으니. 윤원형의 기세가 김안로 보다 더 하는구려. 아마. 곧 피바람이 불 듯 하오.

유지2; 대감께서 의금부를 겸하고 계시니 사림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재; 내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겠으나. 나랏일이 결백한 충심만으론 되지 않아 그것이 걱정일 뿐이요.

1545년(인종1)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수렴(垂簾)의 의론을 정하였고, <정부서계십조(政府書啓十條)>를 올려 정국의 안정을 꾀하는 등의 공로로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녹공되고 여성군(驪城君)에 봉해졌으나 극구 사양하였다. 회재와 선비들이 근심 걱정을 하는 동안 반대쪽에선 윤원형 일파들이 들어오고 장면은 반대편의 안채로 전환된다.

제1막 제3장/윤원형의 계략.

윤원형; 누가 내 앞에 소자를 붙여! 내가 대! 대! 대세 아니던가!

간신; (간사하게) 그럼요 대감~

윤원형; 우리 누이가 누구신가! 바로 전하의 어머니이시다 이 말이야! 하하하하! 문정왕후의 아들인 우리 세자께서 왕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거다! 하하하하. 대운과 일행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탄핵상소를 올리고 내 목을 조으려 했겠다! 내가 그냥 넘어가면 윤원형이가 아니지! 암! (정색을 하

며) 내가 말한 벽서는 다 준비 되었느냐?

간신; 그럼요!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윤원형이는 간사하고 파렴~ 치한에! 목을 확!

윤원형; 뭐라구!

간신; 저 그게 아니고. (헤헤헤) 누가 봐도 윤원형 대감을 모함한 것처럼 쓰라고 하셔서 말입니다. (헤헤헤) 원래는 인자하시고 끝은 성품이시지요.

윤원형; 암! 그렇지 그렇고말고. 어힘 모함하는 글이니. 흠. 그래도 너무 길어! 간사한 것 정도만 넣게. 으흠.

간신; 예예. 헌데 대감! 의금부 담당이 바로 대운파의 이언적이란 자입니다. 혹여나.

윤원형; 이언적이라~

간신; 워낙 끝은 성품에 학자들의 존경을 받는 자라.

윤원형; 내가 언제 그런 거 겁내며 살았더냐! 존경! 내가 다 가져가야지! 썩다! 없애 버릴 것이야. 하하하~

- 암 전 -

제1막 제4장/양재역 벽서(良才驛壁書) 사건.

조선 명종 때의 정치적 옥사(獄事)로,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尹元衡)세력이 반대파 인물들을 숙청한 사건이며, 정미사화(丁未士禍)라고도 불린다. 정미년(1547, 명종2) 9월, 부제학 정언각(鄭彦鰲)과 선전관이로(李櫓)가 경기도 과천(果川)의 양재역에서 익명의 벽서를 발견한다. 그 내용은,

여주집정우상 간신리기등롱권어하 국지장망 가립이대 기불한심재
(女主執政于上 奸臣李芑等弄權於下 國之將亡 可立而待 豈不寒心哉)

위로는 여주(女主)가 정권을 잡고 아래로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구나.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샤막 뒤에 어린 명종의 그림자와 그 뒤 문정왕후가 앉아 있고 윤원형이 으스대며 서있고 정언각이 옆드려서 고한다.

정언각; 전하~, 신의 딸이 남편을 따라 전라도로 시집을 가는데 부모 자식 간의 정리에 멀리 전송하고자하여 한강을 건너 양재역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붉은 글씨가 있기에 보았더니, 이에 신들이 가져와서 봉하여 아뢰웁니다. 이는 곧 익명서이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관계된 중대한 내용이고 인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아뢰웁니다.

윤원형; (홍분하여) 전하! 이것은 역모이웁니다! 화근이 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웁니다.

문정왕후;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내가 섭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상의 보령이 어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섭정대비를 비방하는 것은 주상과 조정을 비방하는 것이요. 아무리 익명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게지요. 필시 윤임의 무리가 범인일 것입니다. (윤원형에게) 지금 당장 남김없이 잡아들여 중형으로 다스리세요.

윤원형; 네 왕후마마 그리하겠사웁니다. (신하들을 향해) 대운과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 암 전 -

봉성군 완, 참관 송인수(宋麟壽), 이조좌랑 이약빙(李若氷)은 사사하고, 이언적(李彦迪), 정자(鄭磁)는 극변안치 9월 18일 3명의 사형과 29명의 유배를 원하는 상소는 그대로 가납되었다.

제1막 제5장/벽서사건의 고문.

무대는 윤원형의 잔악하고 혹독한 고문이 이루어지는 형장의 틀들이 나열되어있다. 고문 틀에는 윤원형의 계략에 넘어간 인물들이 앉아있고 형틀에는 망나니가 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고문은 시작된다.

윤원형; 이언적은 듣거라, 니 놈이 사주한 벽서사건에 가담한 역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능지처참 할 것이야. 하하하하, 내가 누구더냐?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말쑤이야~ 하하하하.

회재; 어린 왕이시여 누구를 원망하오리까? 앞을 볼 수 있으나 보면 안되시고 말을 할 수 있으나 하면 안되시니 신이 불충하여 생긴 벌이라 여기옵니다. 전하 부디 강경하시옵소서. (외침) 전하~

북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지고 어린 명종의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명종의 소리; 송인수와 이약빙을 사형에 처하고 이언적, 정자, 노수신 외 역모에 가담한 자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보낸다.

북소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신음소리도 극에 달 한다.

- 암 전 -

제2막 제1장/유배 떠나는 불효자

초라한 행색의 회재와 아들 이전인 그리고 노모와 농재가 서있다.

노모; 아들아, 이것이 어찌 된 일이더냐?

회재; (회재 울먹이며)어머니. 얼굴이 많이 여의셨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건

아니신지요?

노모; 아들아, 그 먼 길을 어찌 떠나는 게야?!

회재;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잠시 바람 좀 쐬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 걱정일랑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노모; 너를 보내고 내 어찌 편히 자고 먹는단 말이냐. 어디보자! 내 아들(회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회재; 어머니!!!

노모; 내 아들! 이리 떠나면 어찌하누. 이리 몸도 마음도 산산히 부서지고 찢겨서 어찌하누. 이 에미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어찌할꼬. 살을 찢는 찬바람과 산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을 어찌 보낸단 말이냐. (눈물을 흘리며) 아들아. 이 에미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들아 못 간다. 이 에미는 못 보낸다!

노모의 손을 잡는다.

회재; 어머니 손이 왜 이리도 차갑습니까.

회재가 어머니의 손에 입김을 분다.

회재; 어머니!! 소자는 나라의 역적이 되어 유배를 떠나는 것은 하나도 겁나지 않으나 어머니께 근심을 안기고 떠나 혹여 병이라도 나실까 그것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찢어진 살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어머니께 근심을 안겨드린 이 상처는 어찌 아물겠습니까? 첩첩산중의 땡수의 소리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홀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불효자의 마음에 비하겠습니까?

노모; 아니다. 니가 어찌 불효자더란 말이냐.

농재; 형님! 제가 형님의 누명을 벗겨 드릴 것입니다!

회재; 그러지 말거라. 윤원형이 살아있는 한 너 또한 위험해진다. 너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너만은 무탈해야한다.

농재; 형님!

전인; 할머니, 숙부! 제가 아버님을 잘 모실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소리/죄인은 어서 나오시오!

노모; 죄인이라니 이놈들아 내 아들이 어찌 죄인이란 말이나~

회재; 어머니! (부축하고 절을 올리며) 어머니 부디 강경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회재와 전인이 길을 나선다. 농재가 노모를 부축하고 먼발치서 회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농재; 가형 부 강계적소시추지 달천 읍정 낭송

영제시조창

회재와 전인이 무대 뒤에서 쓸쓸히 걸어간다. 잠시 멈춰 서서 쉴 자리를 살피며,

회재; 황천이 재상하니 불구당환 하리라. (하늘에 상재(임금)이 계시니 오래되지 않아 곧 돌아올 것이다)

회재; 사모곡 독백

회재; 춥지 않느냐?

전인;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 바람이 거세니 제 뒤로 오십시오.

회재; 전인아! 압록강을 끼고 첩첩산중 속에 사방은 무심한 산들 뿐이로구나. 한 번 발을 딛는 저 산속은 두 번 다시 나올 수가 없겠구나.

전인; 아버님!!

회재; 귀를 찢는 저 맹수의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찢고 온 나를 꾸짖는구나. (물끄러미 아들을 쳐다보며) 불쌍한 내 아들이! 니 효심을 어찌 내가 잊을까? 얼어붙는 차가운 바람을 아비를 위해 막아주는구나.

민요; 한오백년

- 암 전 -

제2막 제2장/유배지에서 인연.

필석이가 몰래 들어와 집 주변을 살핀다. 회재의 글 읽는 소리가 밖으로 들려온다. 필석이가 글 읽는 소리를 듣는다. 이때 정인 나와 칠석이 옆에 몰래 선다.

전인; 무엇하냐?

필석이가 놀라 자빠진다.

필석; 그. 그것이.

회재가 인기척을 느끼고 나온다.

회재; 누구냐?

전인; 예! 또 그 아이 이옵니다. 아버님

회재; (인자하게) 왜 또 온것이나?

필석; 그제. 저. (사냥감을 내밀며) 이거 드시라우요!! 제가 잡은 겁메다!

전인; 여기에 함부로 오면 안된다 했지! 위험하단 말이다!

필석;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오는데 뭘가 위험다는 겁메까?

회재; 애야. 나는 죄를 지은 죄인다. 그러니 이곳은 위험한 곳이란단.

필석이 회재를 쳐다본다.

필석; (웃으며) 참! 사람 눈은 못 속입메다! 나쁜 사람은 눈만 봐도 잘 압메다!

기리고, 죄인이 왜 서책을 뵈메까? 밤마다 공자네 장자네!

회재; 니가 어찌 아느냐?

필석; 저. 그게.

회재; 혹여. 글을 알고 싶어 여기 오는 것이냐?

필석; (머뭇거리며) 그게. 천것들은 글 배우면 안되잖습메까.

그래서. 대 놓고 배울 수는 없고.

전인; 뭐?

회재; 글은 왜?

필석; 무식한 놈이라고 사람들이 무시 하잖습메까. 글을 배우면 무시도 못하끼구. 기리구 저희 부모님! 사람들에게 무시안당하고 살게 해드리고 싶습메다!

전인; 그래도 안된다.

필석; 그리니까니 이 곳에서 사냥질하며 살아소 안 들킬 자신 있습메다! 그리니까니. 글 좀 가르쳐 주시라우요.

전인; 안된다. 어서 가!

필석; ...

필석이 풀이 죽어나간다.

회재; 요즘 풀만 먹었더니, 눈이 침침하구나.. 전인아! 오늘도 풀반찬이냐?

전인; 예? 그것이.

필석; 이거 드시라우요!

회재; 마침 음식이 있으니. 그래도 공짜로 먹을 순 없고 대신 글을 가르쳐주마. 어떠하냐?

전인; 아버님!

필석; 감사합메다!

필석이 좋아서 뛰어나간다.

희재; 저 놈이 글을 배워 나쁜짓을 하겠다는게 아니지 않느냐. 지 부모공양하려고 배우고 싶다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해?

전인; 예. 아버님.

희재; 밥 먹자꾸나.

- 암 전 -

제2막 제3장/농재의 기도.

농재가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가온다.

농재; 부디 제 형님을 보살펴 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노모; 오늘도 나와 있었더냐.

농재; 어머니 어찌하여 나오셨습니까?

노모; 한 아들은 저 먼 곳에서 고생을 하고 또 한 아들은 내 곁에서 나를 챙기느라 고생을 하는데 어찌 잠이 들겠느냐. 자용아. 어찌해서 벼슬을 마다한 게야.

농재; 어머니. 그것은.

노모; 혹여, 나 때문인 것이냐? 그러지 말거라. 두 아들 모두가 뜻을 펼치지 못한다면 내 어찌 조상님을 뵈 수 있겠느냐?

농재; 어머니. 저는 벼슬에 뜻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러니 괜한 심려 마십시오. 어머니.

노모; 내 너희들 같은 자식을 둔 것은 하늘의 돌도 없는 은덕이구나. 내 덕이다 하지 않았다면 하늘이 너희 둘을 도와주시겠지. 천지신명이시여, 제 살과 피로 놓은 자식을 차디찬 저 산중에 두고 어찌 눈을 감으리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밤낮을 토해내듯 울어재끼는데 어찌 사람됨에 피

눈물이 흐르지 않으리까. 천지신명이시여! 병들고 나약한 이 한 몸 하루
바빠 거두시고 나라위해 충성 바치고 부모위해 효를 다하는 제 자식은
부디 살피고 살피 주소서.

농재와 노모가 두손 모아 기도를 올리고 있다. 갑자기 어머니가 스르르 쓰러진다.

농재; (놀라며)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국악가요 - 가야지 (사설 개사)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가시는 구료
속절없는 세상살이 소리 없이 지고마는
꽃잎처럼 휘이 휘이 가시누나
한 많은 세상살이 고이 접어 두고
떠나시는 우리 어머니 극락왕생 하소서

멀리서 회재가 나와 부모님과 농재가 있는 먼 하늘을 바라본다. 전인이 들어온다.

전인; 아버님!

회재; 오냐, 어서오너라 할머니께 문안인사 올려야지.

전인; 예 아버님!

회재; 어머니 전인이 덕분에 저는 무탈하게 잘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학문에 매진하며 매일 밤 어머니를 그리답니다. 어머니 품속이 그립고 고운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슬퍼지는 것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밤 꿈속에 흰 적삼을 입으시고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도 반가웠습니다. 어

머니!

노래가 끝나면 멀리 회재의 어머니가 쓰러지고 농재가 오열을 한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리며 무대는 어두워진다.

- 암 전 -

제2막 제4장/어머니의 죽음.

의식요 - 상여소리

상의(상여) 행렬이 들어온다. 농재가 상복을 입고 힘없이 걷고 있다.
회재는 어머니 죽음에 놀라서 어찌 할 줄을 몰라하며 통곡을 한다.

회재; (어둡속 울부짖음) 어머니~(흑흑흑흑) 한밤에 바람이 세차게 불자 산새
들이 울음치고 혹여나 내 새끼 날아갈까 구슬피 울 때 문 열어 밖을 보
니 지에미 애타게 날개 짓하는 것이 길 떠날 적 한없이 흔드시던 어머니
의 손짓이었구나~

회재의 통곡은 지속되고 상여행렬 또한 먼발치로 서서히 사라진다.

회재;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자식 돌아 올 날 손꼽아 기다리시
며 빌고 또 빌던 어머니를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뵈지를 못하는 이 자식
어찌하면 종단 말입니까. 어머니~~~

국악가요; 꽃분네야

전인; 아버지, 흐흐흑~

회재; 충도 효도 제 뜻을 따라 하지 못하고 이 보잘것없는 질긴 목숨만이 연명하여 살아생전 못 할 짓을 하는구나, 평생을 보답하고 베풀어도 모자라는 은혜이거늘 역적이 되어 그 여린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는 구나~

잠시 후 회재는 힘없이 아들 전인에게 한마디 한다.

회재; 전인아, 할머니 유의복을 가지고 오너라.(멍하니 앉아있다)

전인; 아버지 유의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재는 유의복을 가슴에 안고 흐느낀다)

회재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회재; 설위를 설치하거라.

전인; 아버지, 설위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물끄러며 바라보며) 아버지! 찬 바닥은 몸에 해롭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셔서 편히 앉으십시오.

아들 전인은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지만, 설위 앞에서 회재는 일어설 줄 모른다.

회재; 큰아들이 되어서 어머니 상도 치러 드리지 못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애비 탓이다. 내가 못나, 마음에 병이 드셔서 돌아가신 것 인게야.

전인;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회재; 나라의 충과 의를 행하려 이리 되었건만 진정 효를 다 하지 못하였구나!

회재가 엎드려 한없이 슬퍼한다. 전인이 그 모습을 보며 고개 숙인다. 조명이 들어오면 회재와 농재가 각각의 장소에서 농재는 어머니의 묘를 지키며 술을 따르고 회재는 앞마당에 앉아 술을 따르고 있다.

회재; 아우야. 나 대신해 삼년상을 치를 너를 떠올리니 마음이 아프구나. 못한 형을 대신해 어머니를 고이 보내다오.

회재; 이언적의 효 관련 한시 낭송

영제시창; 이언적의 효 관련 한시

충효구휴성명여(忠孝俱虧性命餘)

피창유한경하여(彼蒼悠漠竟何如)

궁변반야명잔촉(窮邊半夜明殘燭)

억제사친루만거(憶弟思親淚滿裾)

[해석]

충효를 다 못하고 목숨만 남았다니

늘 푸른 저 하늘은 나를 어찌 하잔 말 인고

변방 땅 깊은 밤에 잔촉을 밝히고서

어머니와 아우 생각에 눈물 가득 적시는구나

- 암 전 -

제2막 제5장/다시 만난 형제.

전인이 정성스레 약을 다리고 있다.

전인; 아버지! 꼬박 삼년을 밖에서 지내시니 어찌 몸이 버티겠습니까?! 이러다가 아버지께서 탈이라도 나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버지! 자식 된 도리로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필석이가 들어온다.

필석; 나으리!

필석; 저! 누가 찾아왔습메다? 농재가 힘겹게 들어온다.

전인; 숙부님!

농재; 전인아! 잘 있었느냐?

전인; 예! 숙부님. 회재가 뒤돌아보고 별떡 일어서며.

회재; (놀라며) 자용아!

농재; 형님!

회재와 농재가 서로 부등켜 안는다.

회재; 몸도 성치 않을 텐데 어찌 이 먼 곳까지 온 것이야?

농재; 아무리 멀다 한 들 제가 못 오겠습니까 형님?!

회재; 그래도 이 먼 곳을 어찌! 아무튼 고생이 많았구나.

농재;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더 고생이지요.

필석; 고저 둘 다 고생입메다!

전인; 이놈아! 조용히 하거라.

회재; 하하하 그래. 모두가 다 고생이구나. 할 말이 너무 많구나.

농재; 예 형님! 전인아 너도 어서 이리 오너라.

전인; 예! 먹을 것 좀 챙겨 오겠습니다.

농재와 회재가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농재; 형님. 저 아이는 누구니까?

회재; 가끔 우리를 돌봐주는 아이일세. 글을 알려주는 대신 가끔 맛난 음식을 가져오는 구만.

농재가 회재를 한참 말없이 쳐다본다.

회재; 그런 눈으로 보지 말게나. 난 잘 지내고 있네. 나보다 아우의 몰골이 말이 아니 구만.

농재; 형님 이제 그만 내려가셔야지요!?

회재; 어디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나?

농재; 제가 어떻게든 상소를 올려 누명을 벗게 하겠습니다!

회재; 자용아. 넌 절대로 나서지 말거라. 윤원형 일파가 세력을 잡고 있는 한 반대세력인 내가 누명을 벗을 수는 없다. 괜한 미움을 사 너까지 위험해 진다.

농재; 형님!

회재; (다급한 심정으로) 그 보다 아우야!! 어머니 얘기가 좀 들려다오. 어찌

가셨느냐? 어디에 모셨으며 가실 때는 괴로움 없이 평온하셨느냐?

농재; 예. 평온하셨습니다. 아버님 옆에 편히 모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도 어서 내려와 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요!

회재; 그래. 어서 빨리 인사를 드려야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농재; 형님!

- 암 전 -

제2막 제6장/형제의 작별

회재와 농재 그리고 전인과 아이가 밖에 나와 있다. 전인의 손에 짐이 들려져 있다.

회재; 조심해서 돌아가게나.

농재; 형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되겠습니까?

회재; 몇 달을 지켜보니, 자네의 몸이 성치가 않네. 어서 돌아가 몸을 보하고 편히 쉬게나. 이곳의 겨울은 자네가 견딜 수 있는 날씨가 아닐세.

농재; 형님.

회재; 필석아. 나으리가 무탈이 산을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겠느냐?

필석; 당연하지요! 저만 믿고 따라 오시라우요! 나으리 날래 갑세다.

농재가 절을 한다.

농재; 형님, 형님을 이곳에 두고 먼저 내려가 죄송합니다.

회재; 자네 홀로 돌려보내 미안하네.

농재가 길을 떠난다. 회재가 농재의 모습을 한없이 바라본다.

영제시창; 서색황향시읍차가형증별운

전인; 이제 들어가시지요.

회재; 어찌. 저 뒷모습이 이리도 밍글는지 모르겠구나.

전인; 몸의 기력을 찾으시면 다시 뵈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재; 예전만 못한 세월이 원망스럽구나.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정적이 흐르고 무대는 어두워진다,

- 암 전 -

제2막 제7장/형제의 죽음.

농재가 자리에 앉아 상소를 쓰고 있다. 농재의 몸이 성하지 않다. 농재의 아내가 약을 들고 들어온다.

아내; 나으리. 무리하시면 안됩니다. 그만하시고 누우시지요.

농재; 형님은 그 험한 곳에서 주무시는데 어찌 내가 편히 눕겠소! 상소를 올려 형님이 누명을 벗으면 그때 편히 누우리다!

아내; 나으리. 그럼 약이라도 좀 드십시오.

아내가 약을 내밀고 농재가 받으려는데 농재가 책상위로 털썩 쓰러진다.

아내;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제3막 제1장/회재의 아픔.

1553년인 계축년 정월 초하룻날 세상을 떠난 농재는 향년 60세였다. 아우가 세상 떠난 것은 1월인데 부음이 전해진 것은 3월이었다. 아들 전인이 다급하게 들어서며 회재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기 시작한다.

회재: (놀라며) 전인아! 어찌하여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전인: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한다)

회재: 어허! 무슨 일이냐고 묻지를 앓느냐?

전인: 아버지! 송구스럽사옵니다.

회재: 전인아! 어찌 그러느냐!

전인: 아버지! 숙부님께서! 숙부님께서! 별세 하셨습니다.

회재: (놀라 휘청거리며) 뭐라! 내 아우가?(흐느끼며) 아우야~ 아우야~ 아우야~ 흐흐흐~ 흐~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상을 당하고 형제간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한 나머지 목숨까지 잃게 되었으니 이 무슨 일이란 말이나! 그토록 지극한 너의 효우에 마땅히 신명과 하늘이 감응하였을 것인데도 하늘이 막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늘이 어찌 사

람과 다르다 하겠느냐! 살아서는 형제가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였고 상고를 당하여서도 염빈양례를 함께 받들지 못하였구나. 이제 너를 선영 아래 장사하고 나도 죽으면 그 곁에 묻혀 지하에서 서로 만나 세세로 형제가 되어 이생에서 못 다한 인연을 내생에서 다시 맺어 이별 없이 살아 보자꾸나 아우야~

조각배 - 이언적 동생의 제문
제망제자용문(祭亡弟子容文) 중

이언적

… 吾死亦欲葬於汝墳之右 庶得相從於泉下 是吾之志也 …

… 惟願與汝世世爲兄弟 又結來生未了之因 …

[개사 김영리]

이제 너를 선영아래 장사하고 나도 죽으면
그 곁에 묻혀 서로 만나 세세로 형제 되어
못 다한 인연을 다시 맺어 이별 없이
살아 보자꾸나 사랑하는 나의 아우야

노모의 별세이후 근친하게 여기며 의지하던 아우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진 회재는 1553년 11월, 아들 전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회재; 전인아! 이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서 듣도록 하거라. (기침을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이 아버지가 너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될 수 도 있단다.

전인; 아버지! 어찌 괜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회재; 허허허허허!!!! (콜록콜록), 자! 이것은 귀향을 오기 전에 내가 기초만 해 놓고 미처 전하께 올릴 기회가 없어 전하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성군이 되기 위한 8가지 치국요점을 적은 ‘진수팔규(進修八規)’ 이다.

첫째, 명도리(明道理): 도리를 밝히는 것.

둘째, 입대본(立大本): 큰 근본을 세울 것이며

셋째, 체천득(體天得): 하늘의 득을 체득할 것이요

넷째, 법왕성(法往聖): 옛날 성인들을 본받을 것.

다섯째, 광청명(廣聰明): 총명함을 넓혀 나갈 것이고

여섯째, 시인정(施仁政): 어진 정사를 베풀 것이며

일곱째, 순천심(順天心): 하늘의 마음을 따를 것이요

여덟째, 치중화(致中和): 중화에 이를 것 이라고 썼느니라

회재; 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이를 꼭 전하께 올리도록 하여라.

전인; 네 아버지! 꼭 그리하겠습니다.

회재; 전인아! 불쌍한 내 아들이...(힘없이 쓰러지며 생을 마감한다)

회재는 귀양간지 7년만인 1553년 11월 23일 향년 63세로 유배지인 강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 압 전 -

제3막 제2장/마지막 효심.

마을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웅성 거리며 안타까워한다.

여인4; 여기 계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담메다.

여인1;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몇 일째 아무것도 드시지도 않고 슬퍼만 하시다가 숨을 거뒀담메다. 아이쿠, 불쌍해서리 어캐함네까!!!

사람3; (빈정대며) 죄짓고 왔는데 뭐가 불쌍하다고 이 난리들임께까.

여인3; 기개 아니라 내가 보따리장사 하면서 귀동냥을 조금 했습메다.

여인1; 기래 사연이 뭘랍뎃까?

여인3; 나라에 둘도 없는 충신이었는데 간신들이 누명을 씌워 이곳으로 유배
왔다고 합데다.

사람2; 저런 저런 기런 췌일 놈들에 어뎃네에. 쫓쫓.

사람1; 어이구 그리니끼니 그 보라우요! 뭘 알고나. 요요요요요 입을 놀리라니
끼니.

사람3; 뭘 소문이 기리 들리두구만 그래.

사람1; 기리니끼니 잘 알고 주둥이 놀리라우.

사람2; 아이구 텅말, 안타까워서 어케합메까.

여인2; 고저 돌아가신 분도 안됐지만, 불철주야 그렇게 아바지를 잘 모시든 아
들은 어케하면 종탄말임께까. 쫓쫓.

여인1; 아이구, 그렇게 말임메다. 그렇게 착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어데
있습메까.

사람1; 불쌍해서 어케합네까. 참 하늘도 무심하구만기래.

여인3; 누명써서 죽으니끼니 허무하기 짝이 없구만 기래. 그 도와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너무도 딱하게 됐구만기래.

마을사람들 다함께 회재의 집으로 향한다. 전인이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하
기위해 떠날 준비를 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

전인; (슬픈 마음으로 편안하게)아버님! 이제 편안하십니까? 살아생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먼 곳까지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가 쓸쓸히 세상을 하직
하시니 마음이 편하신지요? (울먹이며)아버님! 어찌 이리 야속하고 원통
하게 가셨습니까, 살아생전 못다푸신 마음의 한도 씻으시지 못하고 이런

게 허무하게 가시다니요, 이제 아버님조차 곁에 두지 못하는 이 자식은 어찌 살아가라고 먼 하늘로 홀로 가셨습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살아생전 편히 모셔야 하거늘 이 못난 아들이 아버님께 효 한 번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외롭게 보내드린 이 불효자식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님~

필석이가 뛰어 들어와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필석이가 전인의 운구 채비를 돕기 시작 한다

전인; 아버님 하늘 아래 이 무슨 기이한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식 그리다 돌아가시고 아우는 형님 그리다 돌아가시고! 형님은 아우 그리다 세상을 하직하셨으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필석; 나으리 그만우시라우요. (먼 곳을 향해) 대감마님 좋은 곳에 가시라요~

동네사람들이 달려가 아이를 말린다.

사람1; 야 이놈아! 그러다 너도 죽어! 역적은 살아서도 역적이고 죽어서도 역적이야! 도와 줬다가 너까지 죽는다고! 이놈아.

필석; (울며)기린소리 하지말라우요. 대감마님과 나으리는 역적이 아녘메다! 기리구 아버지 시신을 모시는 거잖습메까! 역적이 아니라! 아버지 말임메다!

사람2; (끌어당기며) 기레도 안된다. 이 녀석아!

전인; 필석아! 괜찮다! 그냥 두거라. 니 마음만은 아버지도 나도 잘 간직하고 가마.

필석; 나으리! 혼자서는 절대 못 갑메다! 길이 뽕뽕얼어 설라무네 절대 갈수가 없음메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으리 손이며 발이며 다 찢어져서 나으리

마저도 큰일 납메다. 근데 어케 간단 말입메까! 기러디 말구, 날이라도 풀리면 그때 가시라우요!

전인; 필석아! 부모상에 자식이 예를 다하지 못하면 이 보다 더 불효가 있겠느냐! 내가 한 말 기억하느냐? 내 부모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나를 나오시고 살이 찢어지는 풍파를 막아주신 분이시다! 아버지를 편한 곳에 묻고 그 예를 다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니라.

전인이 운구를 끝기 시작한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수레는 퐁퐁 언 바닥에 잘 끌리지 않는다. 먼발치서 필석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큰소리로 전인에게 소리를 지른다.

필석; 스승님께서는 옳은 일을 행하는 자를 저버리지 말고! 도우라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부모님위해 수천리 길을 걷는 사람을 외면하는 일은 하지 못합메다. 저는 기렇게 배웠시오!

필석이가 달려가는데 필석이 엄마가 뛰어 나온다.

엄마; 필석아!

필석; 오마니!

전인; 이보시오. 이 아이는 아무 잘 못이 없소. 그러니.

엄마; 우리 같은 천것의 아이에게 글을 알려주신 고마운 분이십메다. 우리 아이의 크나큰 스승님이신데 요렇게 기냥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손에 들고 온 보따리를 건네준다) 고저 저희가 먼 길까지 함께 가지 못해스리, 요거라도 드시고 힘내서 가시라요.

전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엄마; 필석아! 동구뺨까디 편히 모셔다 드리라우.

필석; 알았습메다. 오마니.

전인; 고맙소, 내 한시라도 아버님을 좋은 곳으로 모셔야 하니 이만.

전인과 필석이 퇴장하고 엄마와 동네사람들 그리고 아낙이 멀리서 지켜보고 서있다. 무대는 서서히 어두워지고 암전된다.

- 암 전 -

제3막 제3장 / 퇴계 이황의 안타까움.

운구는 강계에서 산 넘고 강을 건너 어느 듯 안동 도산에 당도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퇴계 이황은 제자 조목 외 2명을 보내어 대신 상문하고 운구를 돕도록 명한다.

제자조목; 스승님. 마을 어귀에 화재 이언적 어른신의 자제 이전인이 저 멀리 강계에서 부친의 시신을 홀몸으로 운구 해 왔다고 하옵니다.

이황; 뭐라!?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어허! 이언적 선생님은 조선의 학자들 중에서도 정, 주학의 정통성을 확립하셨고 특히 주자의 태극개념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유가적 우주관은 불교적 우주관과는 달리 생동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유가적 학문은 일상윤리에서 출발되어야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이단을 막으신 선생님이시니 우리가 비록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스승과 같으니 상문하고 운구를 돕도록 하여라.

제자조목; 예 스승님.

사내 1, 2가 몇 걸음 다가가는데, 전인이 얼굴을 닦고 허리에 차는 수건을

보고 멈칫한다. 수건이 붉게 물들어 있고, 한 손에 들고 먹는 음식은 보신탕이었다.

제자조목; 아니 저건!!!

사내2; 저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구, 가자구.

제자 조목과 사내들은 다시 이황에게 달려와서.

제자조목; 스승님! 송구하오나 이언적 어르신 자제가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붉은 수건을 허리에 차고 손에는 고깃국 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필시 개 고기를 먹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내2; 저희는 그런 자를 상문할 수 없습니다!

이황; (화를 내며) 자네들은 어찌 그리도 어리석고 생각이 짧은 게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더냐? 이언적은 효심으로도 조선에 모르는 이가 없고 그를 보고 자란 이언적의 자제인 이전인 또한 깊은 효심을 갖고 있다! 필시 너희들이 잘 못 본 것일 터이니 다시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 보거라!

제자조목; 예 스승님.

제자 조목과 사내들이 다시 마을 어귀로 가 보니 동네사람들이 전인을 둘러싸고 서있다. 사내 1, 2는 전인에게 다짜고짜 묻기 시작한다.

사내1; 이보시오! 어찌하여 부모의 시신을 두고 보신탕을 먹고 있는 것이요?

전인; 그것이 아니라.

이때 도산 주민들이 나선다.

도산주민1; 그것이 아닙니다! 상주가 온 몸에 동상과 탈진으로 상주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상에 그 예(禮)를 다하는 모습에 감동한 저희들이 운구 밀 힘조차 없는 상주가 몸을 잘 가누어 무사히 경주까지 도착하라는 염원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만들어준 음식입니다.

전인; 내가 어찌 아버님을 이리 길가에 모셔두고 음식을 넘기겠습니까. 허나. 이렇듯 염려해 주시고 아버님을 고향으로 잘 모셔가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먹었던 것입니다.

사내1; 그럼, 그 붉은 수건은 어찌 된거요?

도산주민2; 그 또한 이 엄동설한에 수천리 길을 혼자서 운구해 오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 상주의 얼굴을 보이소.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눈 주위며 얼굴의 살이 다 터져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구, 눈뜨고는 못 보게 심~ 더. 찌찌.

도산주민3; 곧 쓰러질 저런 물골로 경주까지 어떻게 운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내내 너무도 안타깝고 염려됩니다.

제자 조목과 사내 1, 2들은 전인의 지극한 효심에 감탄하며 돌아간다.

사내1; 스승님! 스승님의 말씀이 옳았사옵니다.

사내2; 송구하옵니다.

이황;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구나. 집안의 형제와 자제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라의 본분이 되고 조선의 효를 보여주니, 감사해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무엇들 하는 겐가. 선비들의 스승인 이언적 대감을 무탈히 집으로 모셔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나.

사내1, 2; 예!

이황;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구나. 저리 차가운 죽음을 맞이할 분이 아니거늘.
어허!!! 이리 둘 수는 없는 게야.

영제시창; 무위

- 암 전 -

제3막 제4장/아들의 회향.

전인은 다시 힘을 내어 힘겹게 운구를 끌기 시작한다.

전인; 아버님,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도 그리워하시던 집 말입니다. 어찌 좋으십니까? 할머니와 작은 아버님을 뵈실 생각에 마음이 설레십니까? 전 설레입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실 그 얼굴을 떠올리니 새삼 눈물이 날 만큼 설레고 감격스럽습니다. 집으로 가시는 길 제가 아버님의 말동무되어 드리며 좋은 길로만 안내해 드릴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은 그저 가시는 길 좋은 것 마니 보시고 좋은 소리만 많이 들으십시오! 아셨지요? 아버님은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은 아버님을 그리워하니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이, 바로,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얼어붙은 저 땅위의 떨어지는 붉은 눈물과 붉은 피는 꽃이 되어 아버지의 길에 뿌려지고 상주의 아버지 그리는 가슴 뺏힌 울음소리에 부모 자식 둔 생명들은 함께 슬퍼하니 모든 이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무대 위에는 눈보라가 휘날리고 바람소리 거세게 몰아치면 조명은 서서히 사라지고 음악은 극에 달한다. 전인은 무사히 도착하여 묘를 입장(入葬)하고 삼년상 후, 5년 만에 회재 선생의 책들을 강계로부터 인수받아 퇴계질정을 받

아낸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그 이듬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소문을 작성하여 「진수팔규」와 함께 명종께 올린다. 명종은 회재의 관작을 복명하고 1568년 전인은 선생의 유문(遺文)과 퇴계 이황이 쓴 행장을 갖추어 올리니 회재 선생은 의정부 영의정에 증직(贈職)된다. 회재 선생이 별세 한지 20년 뒤인 1572년, 그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옥산서원이 세워졌다.

소리;

자막; 덕을 나아가 업을 닦으니 그가 충신이구나

어지러운 세상속에서 붓을 놓지 않은 이언적

밤낮으로 효를 다하고 낮밤으로 나라 위하니

그의 행함이 바로 학문이고 배움의 길이구나

대대손손 효를 낳고 대대 손손 의를 행하리

잊지 말지어다 조선의 충신 효우의 근본 이언적

- 암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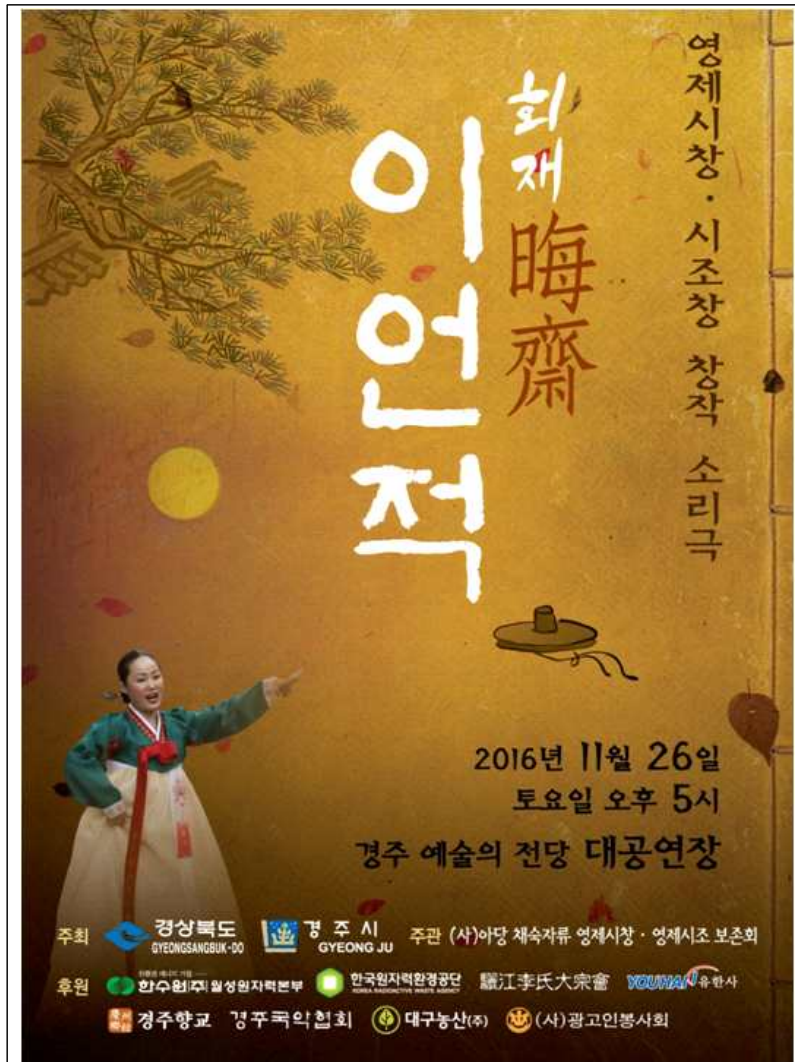
(4) 이언적 창극공연의 실제

영제시창·시조창을 활용한 이언적 창극은 ‘회재 이언적’이란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고 공연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이었다. 경주예술의 전당은 총 1,100석의 관람석을 갖춘 대규모 공연장이다. 주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이고 주관은 (사)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창·영제시조 보존회이다. 무료 초대권 총 3,000매를 배포하여 총 1,100석 규모의 객석에 약 90%의 관객이 모였다.

관객 연령은 대략 50~80세 정도로서 전국적으로 여강 이씨인 후손들과 각 문중에서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유럽과 학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회재 이언적과 아들 이전인을 통한 효사상과 회재 이언적과 동생인 농재 이언팔의 형제간의 우애는 제문에 남겨져 이를 무대화하여 창극화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각박한 현대인들의 가슴에 깊은 교훈으로 남겼다.

<표 18> 이언적 창극공연의 내용

막	장	내 용
제1막	1장	낙향한 회재
	2장	회재의 복직
	3장	윤원형의 계략
	4장	양재역 벽서(良才驛壁書) 사건
	5장	벽서사건의 고문
제2막	1장	유배 떠나는 불효자
	2장	유배지에서의 인연
	3장	농재의 기도
	4장	어머니의 죽음
	5장	다시 만난 형제
	6장	형제의 작별
	7장	형제의 죽음
제3막	1장	회재의 아픔
	2장	마지막 효심
	3장	퇴계 이황의 안타까움
	4장	아들의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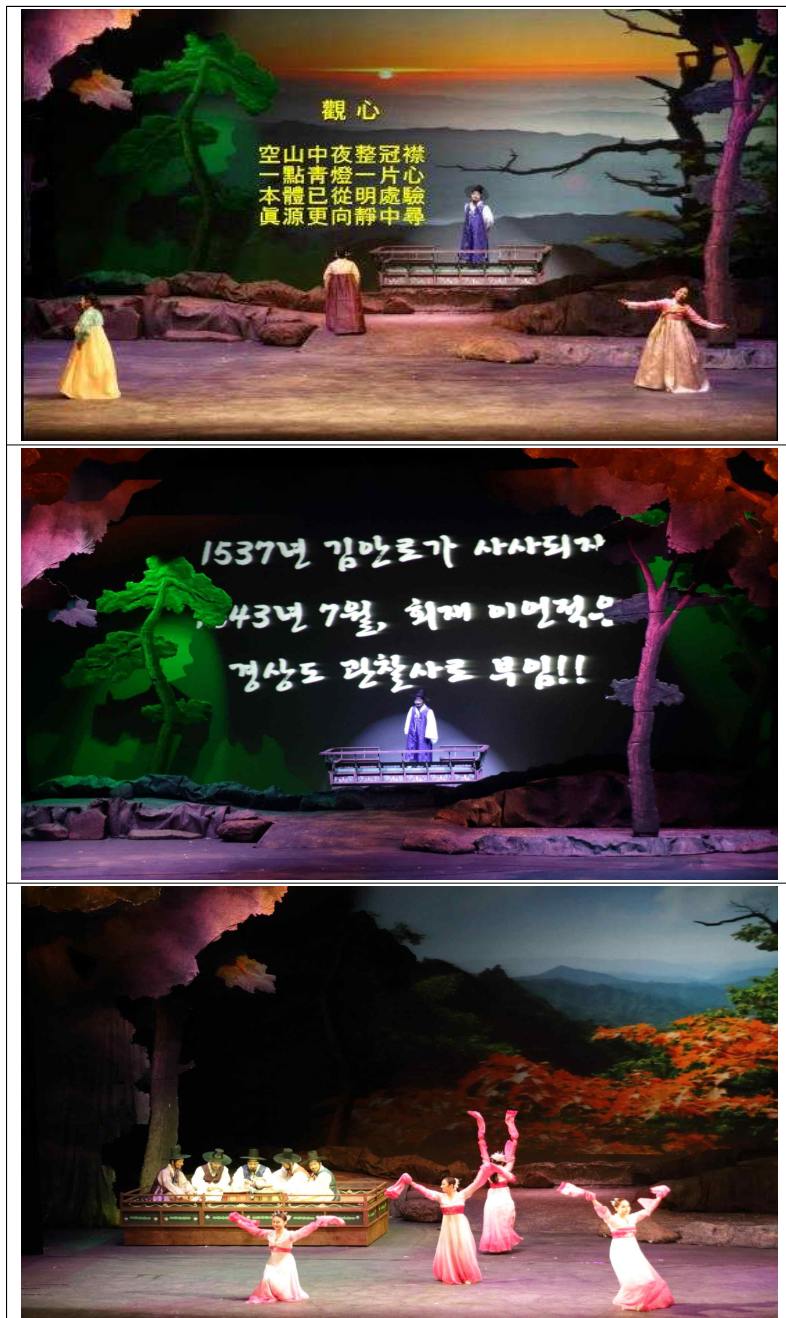
<그림 80> 2016년 11월 26일, 회재 이언적 국악 창극



<그림 81> 1500년 2월, 부친상 당한 어린 복고



<그림 82> 1막 1장/낙향한 회재



<그림 83> 1막 2장/회재의 복직



<그림 84> 1막 3장/윤원형의 계략, 4장/양재역 벽서사건



<그림 85> 1막 5장/벽서사건의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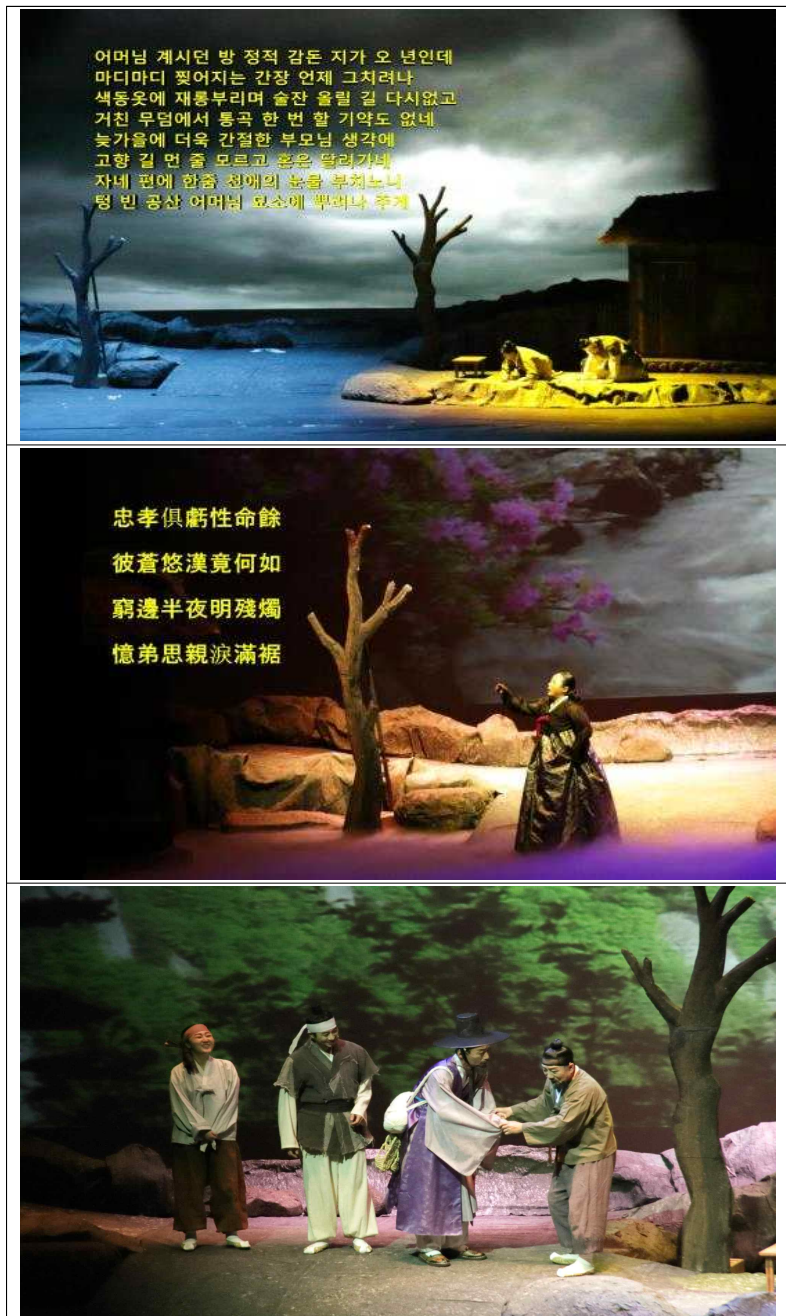
<그림 86> 2막 1장 / 유배 떠나는 불효자.



<그림 87> 2막 2장/유배지에서서의 인연, 3장/농재의 기도



<그림 88> 2막 4장/어머니의 죽음



<그림 89> 2막 5장/다시 만난 형제



<그림 90> 2막 6장/형제의 작별, 7장/형제의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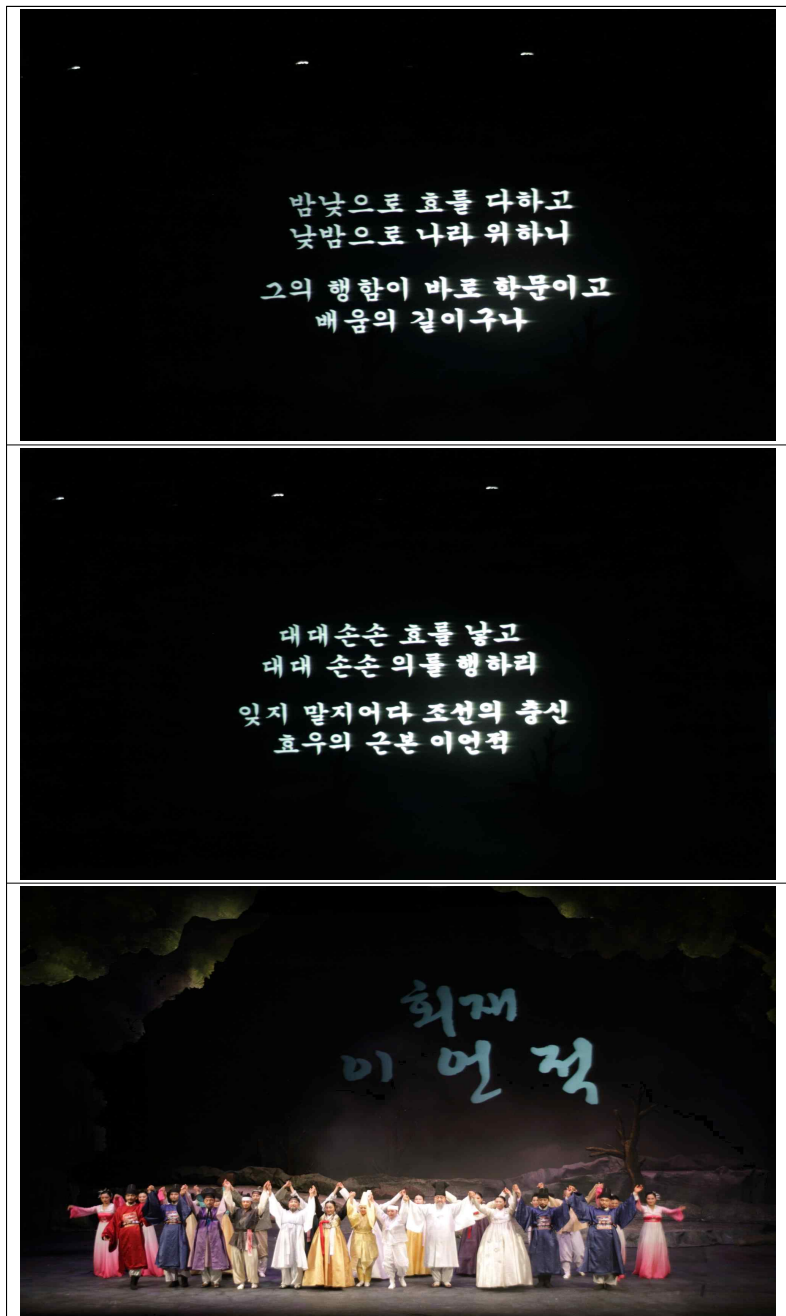
<그림 91> 3막 1장/회재의 아픔



<그림 92> 3막 2장/마지막 효심, 3장/퇴계 이황의 안타까움



<그림 93> 3막 4장/아들의 회향



<그림 94> 회재 이언적 국악창극을 마치며



<그림 95> 포토타임/관객과의 만남

V. 결 론

이 연구는 시창·시조창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현황을 연구하였고, 시조창 무형문화재인 채숙자를 중심으로 영제시창·시조창의 특성과 전승을 연구하였다. 그녀에게서 전승된 영제시창·시조창의 채보 자료를 확보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시창·시조창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대기 국악 창극의 형성과 전개를 연구하는 한편, 역사적 위인인 김교각·최치원·이언적의 중요 일화와 관련한 시창·시조창을 소재로 창극화를 연구하여 공연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창은 한시(漢詩)에 약간의 곡조를 얹어서 부르는 소리로서 한문을 암기하기 쉽도록 내는 소리이다. 읊조리는 송서(誦書), 율창(律唱)보다는 더 음악적인 소리가 시창이다. 시창은 서울·경기의 김월하, 서도의 김정연·오복녀, 영제의 채숙자 등 전문 소리꾼들에 의하여 명맥이 이어졌다. 지방과 유파에 따라 전수하고 있는 곡과 곡수가 매우 다르며, 채숙자만이 절대다수의 곡과 곡수를 전승하였다.
2. 시조창은 서울·경기도의 경제와 지방의 향제로 대별하며, 향제는 영남의 영제, 충청도의 내포제, 전라도의 완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가장 널리 퍼진 시조창은 석암제로서 현대 창작시조이다. 석암제에는 평시조를 중심으로 사설시조·여창질음·남창질음·반질음·사설질음·중허리시조·각시조·우시조·엮음질음시조 등이 있다. 그 중 석암제의 평시조는 영제시조창의 평시조에 근거하고 있다.
3. 영제시조창은 평시조를 중심으로 반사설·사설·질음시조로 4가지이다. 영제시조창의 특징은 주요 선율 간(間)의 음정이 4도를 이루며, 시김새와 꾸

밈음(장식음, ornaments)이 많지 않은 단순한 선율이다. 하지만 시조창의 첫 머리를 힘차게 평(平)으로 내는 선율과 황중(潢鍾)·중려(仲呂) 사이에 요성(搖聲), 퇴성(退聲), 추성(推聲)으로 표현하여 영남인의 기개와 중후한 멋스러움이 나타난다.

4. 일반적으로 경제의 평시조에서 중장(中章)·종장(終章)에 가성(속창, falsetto), 알운성(憂雲聲)이라고도 함)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영제시조창의 보유자였던 이기륜의 출판악보와 채숙자의 채보를 통해 가성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제평시조를 토대로 구성한 석암제의 평시조창에서도 가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영제시조창의 큰 특징이라 활용한 것이다.
5. 과거 영제시조창의 전승과 관련한 지정무형문화재는 이기륜과 채숙자였다. 이기륜과 비교하여 채숙자는 영제시조창을 전승한 인물로서 그녀는 고종대 명창인 이명서와 김영도에게 배웠으며, 그녀의 나이 20세인 1928년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일찍이 『동경속지』 명기(名妓) 조(條)에 그녀의 영제를 칭송하는 시 4수가 전해지고, 경주국악원의 교사로 악보연구를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6. 고조영제시조창의 보유자였던 채숙자는 1970년대에 이미 영제시조의 명인으로 인정되었고 1990년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즉 그녀의 관련 기록 및 계보, 그리고 김기수에 의해 채보된 악보 등은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제1집; 시조)』, 『국악전집 10』, 『정가집』 등에 실려 있으며, 현재 이 악보는 영제시조창의 연구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7. 채숙자 생전의 시조창은 김기수에 의해 평시조 1곡(버들은 실이 되고)과 사설시조 1곡(땅은 천하 제일 강산)이 정간보와 오선보로 채보되었다. 연

구자는 채숙자로부터 전수받은 시창 32곡 중 6곡과 시조창 54곡을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 · 시창보』로 채보하였으며, 남창과 여창 음계로 선율보와 정간보로 분류하여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 · 시창악보』를 연구하였다. 보존을 위해 CD와 DVD로 음원으로 제작을 연구하였다.

8. 예인들의 종합무대공연로 시작한 창극은 19세기인 대한제국시기에 형성되어 판소리를 중심으로 근대의 대중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누리었다. 최초의 창극은 협률사의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戯)』라 할 수 있으며, 협률사는 원각사로 이어지고 이후 창극은 국립국악원의 국극으로 변화하였다. 창극의 주요 소재는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배비장전 등으로 정절과 탐관오리의 응징, 인간의 부족함을 풍자, 지배계층의 위선, 군신간의 충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9. 영제시창 · 시조창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한 김교각은 신라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중국에서 등신불이 된 인물이다. 김교각의 창극은 불교계 및 불자들의 신앙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각본을 각색하였다. 공연에는 김교각이 지은 한시 ‘수혜미’와 ‘송동자하산’ 등을 영제시창 · 시조창법을 활용하여 극화하였다. 한편 이 공연에서는 혜인선사(慧印禪師)가 개사(改詞)한 ‘부모은중경’을 창곡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0. 최치원은 신라 출신으로 한 · 중 · 일을 통틀어 고대사에서 한문학의 위대한 인물로서 평가받는다. 그의 일대기는 『계원필경집』과 『고운집』에 기초하여 소재를 각본을 각색하였다. 창극에 활용된 한시는 6수이고 시조는 1수이며 영제시창 · 시조창법이다. 대중의 호응도를 높이하고자 극중의 스토리(story)와 연계하여 이별가, 긴아리랑, 장기타령 등 경기민요 3곡을 접목시켰다. 시창 · 시조창을 중심으로 최초의 최치원 창극의 활성화를 위

하여 대중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연소재에 중심을 두었다.

11. 창극공연에 소재였던 이언적은 조선시대 경주 출신으로 유교사상에서 효와 우애와 관련하여 매우 중시되는 인물이다. 창극에 활용한 한시와 시조는 이언적의 외삼촌 손중돈의 『우재집』, 이언적의 『회재집』, 그의 아우 이언팔의 『농재일고』에 전하는 한시 6수와 시조 1수와 일대기를 창극에 활용하였다. 창극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대 창작 국악가요 2곡도 공연에 이용하였다. 이언적 국악창극 공연은 충절과 효심에 중심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영제시창의 전승을 알리고자하였으며, 영제시조창의 정통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영제시창·시조창의 CD와 DVD로 음원을 제작하였다. 채숙자 전승 곡조를 채보한 악보집을 출판하여 이 방면의 교육과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강의를 개발하여 동호인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라를 중심으로한 인물로 김교각, 최치원, 이언적의 생애와 사상 등을 연구하여 국악 창극화 공연을 통해 영제시창·시조창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제시창·시조창의 학술 발전과 전통음악문화의 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사료>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경속지』

I. 단행본

경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경상도칠백년사, 제3권(분류사Ⅱ), 대구, 경상북도, 1999.

경상북도, 경북예악지, 영남대학교, 1989.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주시사, 2007.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경주군사, 경북, 경주시사편찬위원회, 1989.

곽승훈, 최치원의 중국사탐구와 사산비명 찬술, 한국사학, 2005.

국립국악원, 국악전집 10, 가사·시조·단가·긴잡가 편, 1982.

국어국문학회, 신라가요연구, 정음문화사, 1986.

김규희 외 7인, 경주문화의 이해, 대구, 중문출판사, 1997.

김기수 편저, 정가집, 서울, 은하출판사, 1979.

김동욱, 동야회집,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김열규·신동욱,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

김영리, 아당 채숙자류 영제시조창·시창악보, 서울, 국악춘추사, 2011.

_____, 영제시조의 맥과 계보를 찾아서, 대구, 유한사, 2012.

김하명, 시조선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김혜원, 지장법사 김교각 연구, 인하대학교, 1994.

노평규, 최치원의 유학사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범한철학회, 1999.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제3권(문화), 대구, 대구광역시, 199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최문창후전집, 1972.

성낙희, 최치원의 시정신 연구, 관동출판사, 1988.

신라왕자김교각전 추진위원회, 신라왕자 김교각전; 등신불의 신비, 1996.

신용산,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 지장왕보살 김교각스님의 일대기, 우리출판사, 1996.

_____, 대륙의 신라왕자, 우리출판사, 1995.

신형식, 신라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85.

에드워드 쉴즈, 전통-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서울, 민음사, 1992.

여세주 외 8人, 새로 읽는 경주문화, 대구, 중문출판사, 1999.

윤영옥, 고려시가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이구의, 최고운 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이수환,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 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경상북도, 경북 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이재운, 최치원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1999.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장도규, 회재 이언적의 삶과 임거십오영,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장문평, 최치원, 금성출판사, 1982.

장사훈, 국악개요, 정연사, 1961.

_____, 시조음악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장일규, 최치원의 사회사상 연구, 신서원, 2008.

정인보·최남선, 동경속지(東京續誌), 경상북도, 경주, 1961.

조선인사홍신록편찬부, 조선인사홍신록, 1935.

최영성, 최치원의 철학사상, 아세아문화사, 200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민속악체계정립자료집, 제1권; 시조, 서울, 1979.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예총50년사, 경주지회, 2013.

한석수, 최치원 전승의 연구, 계명문화사, 1989.

II. 논문

- 고동실, <배비장전>에 나타난 제주지역 특수성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2015.
- 기창덕, 의학계의 해외 유학생, 의학사, 제3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1994.
- 김미례, 고운 최치원의 풍류미학사상-사산비명과 난랑비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2016.
- 김영리, 영제시창 · 시조창의 전승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_____, 영남지역 시조문학과 영제시조창 연구-음악문헌학, 한국음악문헌학회, 2018.
- 김 훈, 중국불교사에 있어서의 금교각법사의 위치, 신라문화선양회, 1994.
- 김향교, 영제시조창에 관한 연구; 평시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민수민, 서울 · 경기시창과 영남시창의 비교분석; 김월하와 채숙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은경, 한국최초의 민간음악교육기관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민족음악학회, 2001.
- 배연형, 최치원의 사산비명과 문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백현미, 창극의 역사적 전개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손용배, 시조;시조정립사업조사보고서,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 오형근, 신라 김교각의 구화산 수행과 한중불교, 동국대학교, 1993.
- 이수건, 회재 이언적 가문의 사회경제적기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 이옥성 · 강순애, 춘향전-간행본의 계통 및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서지학회, 2012.
- 이장열, 한국 무형문화재정책 연구;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이종호, 회재 이언적; 난세의 성실한 자기경영자, 일지사, 2001.

이지경,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 한국학술정보, 2006.

이혜구, 한국음악연구;송만재의 관우회, 국민음악연구회, 1957.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장사훈, 한국최초의 민간음악 교육기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4.

조영규, 협률사와 원각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최경숙, 최치원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최영성, 한국철학논집; 최치원의 도교사상 연구, 한국철학사연구회, 1995.

III. 사전

장사훈,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4.

IV. 신문기사 및 방송

경남일보, 2007. 8. 7일자, 영제시조의 맥을 찾아서(중); 거짓말처럼 사라진
흔적들.

경북연합일보, 2016.11.22일자, “시조창으로 피워 올린 회재 이언적의 삶”

동아일보, 1923년 6월 20일자 2면, “소식(消息)” .

_____, 1991년 2월 19일자, 15면, “향토의 맥박” .

매일신문, 2016.11.18일자, “시조창으로 듣는 ‘회재 이언적’ ”

서라벌신문, 2017년 11월 2일자 “영제시창시조창 창작소리극, 등신불이 된
신라왕자 김교각”

영남일보, 2016.4.22일자, 양코르공연 “영제시창시조창 소리극, 최치원선생의

혼담은 김영리의 소리”

이장열, 중앙일보, 2006년 06월 29일, “[시론]무형문화재 정책, 과잉보호벽을 깨자” .

중외일보, 1928년 4월1일자, "조선명창, 음률대회, 대가로만 망라".

KBS방송, 「영제시조 그 남녘의 끝소리」 , 1991.

<http://m.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0476>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7.11.6. “등신불이 된 신라왕자 김교각, 경주에서 시작해 널리 알리고 싶다” 정민지 기자

http://m.srbsm.co.kr/view.php?part_idx=264&idx=27644&list_type=

<http://www.koreapansori.com/>

<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81%BC%EC%A0%84>

황성신문, 1900년 6월 23일자 기사.

_____, 1901년 12월 27일자 기사.

_____, 1902년 5월 6일자 기사.

_____, 1903년 2월 17일자 기사.

A Study on the Utilization from Korean Traditional Opera use the Poetry · Poem Song of Youngjae

Kim, Yeong Ri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Hee Jae)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the current state of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from korean traditional opera use the poetry song, poem song of Youngjae. The korean traditional opera in the poetry song, poem song of Youngjae which were handed down from her was secured and presented in this study. In addition to studying from information and developoment of modern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for the activation of korean traditional opera in the poetry song, poem song of Youngjae. I studied and performed on the basis of korean traditional opera in the poetry song, poem song of Youngjae related to the important anecdotes of Choi Chi-won and Kim Geo-kwak and Lee Eun-jeok. The Sight-Singing is a that is called by placing a little tune in poetry, so that it is easy to memorize korean text. There is a musical sound than the recitals(rehearsal), Yulchang (律唱). It was followed by professional shouters such as Kim Weal-ha of Seoul and Gyeonggi, Kim Jung-yeon of Seodo, and Oh Byeok-nyeo. Chae sook-ja of Youngjae. According to the province and the wave, the songs are

very different. Only Chae Sook-ja passed away from many songs. The poem song is divided into the song of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praise is in Yeongnam, Chungcheong-do, and Jeolla-do from Korean local poem song. The widespread of poem song is a modern creation. There are the old basilica, the vigorous voices, the voiced voices, the waning voices, the semitransparent sounds, the private voices, the middle vowels, the Korean poem song the wooshizo(羽時調), and the vocabulary. There are four types of poem song, semi-editorial, editorial, and vice tongu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llable of the songs are simple melody with the pitch between the main melody is 4 degrees and there are not many sights and ornaments(decoration sound, ornaments). However, it is called pyung(平) that gives the first head of the poem song vigorously and in the middle between Hwangjong(横鍾) and as Jeongryeo(中呂), yoseong(搖聲), chuseong(推聲). There is a stiffness and a splendor. It is generally known to use from Gyeonggi-do, gives the first head of the poem song caustic(falsetto, aleunseong(憂雲聲) in the middle and end chapters in the period of the Pacific War.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oser uses the psalm through the publishers of Lee Ki-lung and Chae Sook-ja who was the holder of the poem songs. In addition, the use of caustic is also which in Seokamjae(石菴制). The 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assets related to the tradition of the poem song in the past were confirmed with Lee Ki-ryung, Chae Sook-ja is a person who passed on the singer's poem song. and she learned from Lee Myung-seo and Kim Young-do in the Goryeo Dynasty. There was a record that the poetry praise her souls in the 『Donggyeungsokji(東京續誌)』, a famous song, and studied the music as a teacher at the Gyeongju Korean Traditional Music Center. In the 1970s, Chae Sook-ja who was the holder of the high contrast of poem song, was licensed as a master of the poem song in the 1990s and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the 1990s. Her recordings and genealogies, as well as the scores recorded by Kim Ki-soo, are listed in the Folklore

System Settlement Collection(Vol. 1, poem song), the complete korean folk Music 10, and the Settlement House. It is very useful as a research source for poem song. In the 1970s, Chae Sook-ja, who was the holder of the high contrast poem song was recognized as a master of the poem song in the 1970s and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the 1990s. Her recordings and genealogies, as well as the scores recorded by Kim Ki-soo, are listed in the Folklore System Settlement Collection(Vol. 1, poem song), the Complete korean Music 10, and the Settlement House. It is very useful as a research source for poem song. The poem song was performed by Kim Ki-su, one piece of the praise song(willow is a thread) and one piece of private poetry(the ground is the first one). The researcher has published 6 poems and 54 poem song from the poet's poetry. The sight singing was published. The music composition of sight singing and poem song in Yeongseo is a cornerstone for dissemination of educational sources and training sources and also the production of sound sources such as CDs and DVDs and internet lectures were also developed. The korean traditonal opera, which started with the stage performances of the prostitutes, was formed in the 19th century during the Korea Empire period and enjoyed a lot of popularity among the modern public, especially Pansori. The first korean traditonal opera can be called "sochundaeyuhee(笑春臺遊戲)" by the negotiator, and the negotiations lead to the former. The main source of korean traditonal opera is Chuanghyangjeon, Byuljubuseon, Baeyejangjeon, Yuchongryeong, etc. It emphasizes the punishment of fidelity and aggression, satire of human shortage, hypocrisy from national folk song theater. Kim Geo-kwak, who performed for the revitalization of social-cultural and poetry song in childhood, is a person who fled from Dang period(China) after abandoning the identity of the Silla royal family. Kim Geo-kwak's traditonal opera adapted his biography to emphasize the faith of the Buddhist and neighbor. The performances were dramatized by using the poetry and poem 'suhhaemi' and 'songdongjahassan' written by Kim Geo-kwak. On the other

hand, in this performance, it can be said that 'bumoyoeunguon geyung', which was made by Hyein Seon-sa, was featured. Choi Chi-won, When he came from Shill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inese characters in ancient history through Korea to the China. The poem used in Korean traditional opera is 6 numbered and poem song is 1 numbered, and poetry method. In addition to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linking with the story of the drama, we grafted three traditional folk songs such as farewell, the arirang. Lee Eun-jeok, who was a member of the Korean traditional opera performance, is a person from Gyeongju in the Joseon Dynasty. Poetry and poem, which were used for Korean traditional opera played a major role in the poetry of the 3 text books from Son Jung-don and Lee Eun-jeok and Lee Eun-gual. In order to increase the response of poetry, two contemporary Korean music songs were used for th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of the traditional Korean choreography centered on loyalty and devotion.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s wanted to inform about the tradition of the poetry and to study the legitimacy of the poetry. In addition, I made a sound recording with CDs and DVDs. It was published as an educational book and a study book for this area. The Internet lecture was developed so that it can be easily accessed by the people and the general public. I studied the life and thought of Choi Chi-won, and Lee Eun-jeok and as characters centering on Silla and pursued the revitalization of social-cultural and poem song by performa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refo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creature and the poem and the Korean traditional opera.